수 기

지옥에서 락원으로

금성청년출판사
1990

독자들에게 부치는 글

나는 왜 남조선을 탈출하였는가?

이것이 나의 장편수기의 골자입니다.

인간의 무덤으로 버림받은 이남땅을 탈출하여 해와 별이 빛나는 희망의 동산, 북녘의 복된 세상을 찾아온 나의 인생전환기에는 수만가지 이야기가 비껴있습니다.

나의 탈출기에 깃든 사연을 그대로 옮기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귀중한 교시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남조선에는 깡통을 차고 빌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다리밑에서 얼어죽고 굶어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으며 학비가 없어서 자기의 피까지 팔고있습니다.》

이남땅은 한마디로 사람 못살 생지옥입니다.

하나에서 열을 읽고 백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이 탈출기에서 간추려 적은 그 몇가지의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온 이남땅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서 어두운 이남땅을 등지고 밝은 새 세상을 마중가는 이남땅의 젊은 지성인들과 열혈학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맥박을 읽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편집부의 청탁을 받았을 때는 저의 필력때문에 다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버리고온 이남땅을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알려주고싶은 충동이 망설이던 저의 붓을 마지막까지 잡아주었습니다.

미흡하고 설익은 글이지만 저의 수기를 끝까지 읽어주었으면 하는 필자의 욕망을 구태여 감추려하지 않습니다.

필　　자

차 례

1. 푸른 꿈은 어디

나에게도 푸른 꿈은 있었다. 하건만 깨여진 꿈의 창가에 비낀것은 불쌍한 그림자뿐…
세파의 모진 사슬이 창공으로 날으는 나의 넋을 묶을줄을 누가 알았을가?

한강반에 꿈은 부풀어

흔히 10대는 희망에 살고 20대는 열정에 살고 30대는 판단에 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10대소년의 가슴속에는 푸른 꿈이 부푸는것일가.

나의 가슴에도 푸른 꿈이 저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피여올랐다.

서울 영등포구의 판자집에서 가난뱅이의 설음을 안고 살아도 배움에 대한 나의 희망은 컸고 공상도 아름다왔다. 인생의 10대를 공상의 시절이라고 일컫는것이 무리가 아닌듯싶었다.

세상은 험악해도 배움의 뜻을 꽃피워 청운의 꿈을 여물리려는 공상은 얼마나 아름다왔던가.

나의 첫 꿈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후 대학을 마치는것이였다.

철공의 아들로 태여나 국민학교를 졸업한 나의 첫 희망은 이처럼 단순하였다.

나의 첫 꿈이 부딪친 현장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장이였다. 실력보다 돈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경쟁률이 높은 이

고등학교에 입학할수 있을가?!

이것은 하나의 고민이였다. 그러나 중학교를 수석(제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나에게는 일종의 희망이 봄씨앗마냥 움트는것이였다.

겨울의 첫 추위가 엄습하던 12월 20일. 제5고시장(시험장)에 앉은 나의 마음은 떨리였다. 흥분을 가까스로 가라앉히고 붓을 들었다. 시험문제는 단숨에 쓸수 있는 헐한 문제였다.

수험생들을 돌아보던 시감(시험관)은 제일 선참으로 다 쓴 나의 답안지를 등뒤에서 보더니 나의 얼굴을 새겨두려는듯 찬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어진 교사인듯한 시감은 눈웃음을 담아 나를 바라보았다. 옷은 비록 람루하게 걸치였지만 남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였다.

시험성적이 좋은것 같았다. 그래도 마음은 몹시 초조했다. 지성을 쌓아주는 학교이기전에 민중의 얄팍한 주머니에서 돈을 우유처럼 짜내는 학교이기때문이였다.

나는 서울《ㅅ》고등학교에 2등으로 입학하였다. 합격생명단이 학교정문바람벽에 붙는 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외아들이였다. 온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소원이였다. 철공으로 등뼈가 휘게 일하는 아버지의 소원도 그렇고 궂은 식모살이에 서러운 눈물을 남몰래 흘리는 어머니의 희망도 그랬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일 저일을 하는 누이동생의 소망도 바로 그것이였다.

학교로 달려왔던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얼마나 기뻤던지 자꾸만 눈굽을 찍는것이였다. 아버지야 더 말해 무엇하랴.

늘 울적하고 무거운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 집 식솔이 이렇게 기뻐하는것을 나는 처음보았다.

우리 집에도 이런 기쁨이 나래칠 때가 있는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아버지와 풋얼굴이나 익힌 은행전무가 와서 들려준 말에 의하면 나의 시험성적이 너무 뛰여났기때문에 합격하였다는것이다. 시험지를 보고 감탄한 시감 (최교사)과 다른 교사(교원)들의 눈도 있고 하여 할수없이 실력대로 합격자명부에 등록했다는것이다.

하마트면 나는 합격자명부에서 그림자조차 사라질번하였다. 되새겨볼수록 소름이 오싹 끼쳤다.

금력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돈도 권세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야 어떻게 학교문을 마음놓고 두드릴수 있겠는가.

나는 《입시전쟁》이라고 부르는 《입시고》를 간신히 넘겼다.

이날 학교운동장에는 약속이나 한듯이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이 수백명이나 학교당국에 몰려가 항의를 들이댔다. 자기 아들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고시장에서 백지를 낸 학생들이 돈의 힘을 빌어 버젓이 합격자공시란에 들어있었기때문이다.

《돈이 입학하느냐? 실력이 입학하느냐?》 학부모들은 이렇게 들이대며 시험성적을 공개하라고 롱성을 벌리였다.

학부모들의 분노는 무리가 아니였다. 돈의 조화가 절정에 이르러 인격을 사고 입학증을 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랄가.

《돈이면 천당의 문도 열수 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살수 있다.》는 말이 이 세상에 떠돌고있다. 돈은 학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학생이 가는곳이면 그림자처럼 어디나 따라다니는것이 돈이였다.

돈의 무제한한 횡포속에서 겨우 입학의 문을 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행운이란 이런것일가. 돌담속에도 틈이 있는가싶었다. 하나의 화초가 그 담벽의 틈새로 간신히 줄기를 뻗쳐 해빛을 받는듯이 다행스러웠다.

나의 옆을 지나가던 토목회사 사장의 아들 창설이가 제 어머니와 함께 자가용차를 타면서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한마디 던지는것이였다.

《여, 영등포! 합격한 모양이지. 가난뱅이네 집에도 운이 튼게로구나.》

그자는 한마디 가시돋힌 말을 남기고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이것은 참을수 없는 희롱이였다. 나는 달려가는 그놈의 자동차에 눈총을 쏘며 침을 뱉았다.

(네깐놈들이 우쭐대는 세상은 아무때나 벼락이나 맞아 썩은 고목으로 될게다, 두고봐라. 힝—)

나는 울분을 가까스로 참으며 교문을 나섰다. 부자놈의 씨알때문에 기분이 몹시 잡쳤다.

나는 돈이 모든 인격을 사고 지성과 권력을 사는 이 불의의 세상이 배가 아파하도록 초인간적인 열정과 탐구로 공부를 잘하리라고 주먹을 부르쥐였다. 어쨌든 비장한 입학의 꿈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강한 의지의 나래를 펴고 저 푸른 지성의 하늘로 가없이 날아오를상싶은 마음이였다.

그날 나는 중학교동창으로 고등학교에 같이 입학한 종호와 함께 백사장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다.

한강의 차거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하염없이 흩날렸다. 정다운 벗인 우리 둘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끝없이 거닐었다.

《종호! 우리 공부를 잘해서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나는 종호의 더벅머리를 곁눈질하며 한마디 던졌다.

《그래, 입학은 겨우 했지만 고등학교를 1, 2등으로 졸업하자. 창설이같은 놈따위들이 배가 아프게 공부를 잘하자구.》

그도 나의 손을 뜨겁게 꽉 쥐며 대답했다. 그 역시 돈의 희롱때문에 하마트면 입학명단에서 제명될번하였던 것이다.

《그래, 가난한 집 애들이 수재가 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우리는 정처없이 거닐다가 모래바닥에 무턱대고 앉아 저녁해가 지는 한강변의 쓸쓸한 정취를 감상하고있었다.

저녁의 한강변을 두루 살피던 우리는 서로 제나름으로 자기 포부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종호의 희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의 선원이 되는것이였다. 외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서 귀한것을 사다가 자기때문에 고생하신 홀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것이다. 어쨌든 갸륵한 심정이였다.

나 역시 제 포부를 숨기고싶지 않았다.

《난 대학교를 졸업해서 신문기자가 될래.》

《신문기자? 굉장한데, 넌 한번 글로 명성을 떨쳐보자는게로구나.》

《아니야, 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나쁜것을 모조리 들춰내여 신문에다 내는 기자가 되겠어.》

《멋있는걸, 그건 네 혼자 생각해낸거냐?》

《아니, 졸업할 때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귀띔해준거야.》

《강선생님말야?》

《그럼, 참 좋은 선생님이였어.》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두텁던 국어교사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담임교사가 그리웠다.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

한줄 알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가.

…졸업식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담임교사는 시간을 내여 나와 함께 창경원주변의 못가를 찾았다.

사람들이 붐비는 못가를 거닐던 교사는 나더러 못을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이르는것이였다.

못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름다운 꽃밖에 보이지 않았다.

꽃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이파리가 탐스럽게 벌어져 물우에 떠있는 꽃은 흡사 동화의 세계에 나오는 신비로운 꽃의 정서를 풍기고있을뿐이였다.

교사는 못에서 아무런 특징적이거나 교훈적인것도 발견하지 못한 나의 머리를 정답게 어루쓸더니 교단에서늘 울리던 그 인자한 목소리로 깨우쳐주는것이였다.

《영선이, 저 꽃을 무심히 보지 말라구. 저 꽃도 그만이 간직한 귀중한 생리가 있어.》

《꽃의 생리말입니까?》

《그럼. 저 꽃이 뿌리내린 감탕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 악취가 풍길 정도지. 그렇지만 어지러운 감탕우에서 피여난 저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더러운 감탕물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꽃은 탐스럽게 피여나 못가를 아름답게 장식한단말야.》

듣고보니 선생님의 말이 옳았다. 꽃의 생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런데 그 《꽃의 생리》를 왜 나의 뇌리속에 새겨주려하는지 선생님의 뜻을 알수 없었다.

강교사는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나의 눈길과 마주치자 못가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영선이도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여나라구.

이 세상은 못의 감탕보다 더 어지럽고 불공평하지. 이 더러운 사회에서 참되게 살면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여

날수 있어. 캄캄한 세상에서 꽃의 생리처럼 참되게 살면 더러운 사회의 오물탕에 오염되지 않을수 있어.
아름다운 인간으로, 시대가 바라는 열혈의 남아로 자라나자면 이 악취풍기는 풍토에서도 굴함없이 꿋꿋이 살아야 해.
참에 살고 량심에 살고 정의에 살고 대망에 살아야 해. 거짓과 허영과 방탕에 사는 사람은 죽은자나 다름없단말야.
이것이 졸업을 앞두고 영선이에게 하고싶은 나의 말이야. 알겠어?》
뜻이 있는 선생의 고마운 말이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부조리한 이남사회에서 개인의 치부와 영화를 꿈꿀것이 아니라 꽃처럼 어지러운 감탕을 헤치고 일어나야 하네. 그리구 그처럼 더러운 감탕을 제거해버려야 해.》
들을수록 깊은 뜻이 담긴 선생님의 말씀이였다. 참으로 어질고 바른 선생님이였다.
나는 못가를 오래도록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꽃의 생리》를 안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배워 참사람이 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가난하기때문에 남들보다 더 이를 악물고 탐구의 등불을 밝혀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날 교사는 나의 어렴풋이 맴도는 포부를 듣더니 어지러운 사회를 날날이 고발하는 신문기자가 되는것도 좋을것이라고 귀띔해주는것이였다.…
입학의 날에 새삼스레 떠오르는 강교사의 말이였다. 담임교사의 뜻깊은 말을 되새기며 친구와 함께 날이 저물도록 한강백사장을 걷고 또 걸었다.
배움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의 나래를 퍼덕이는 우리

의 앞길에는 저물녘의 황혼이 깃들고있었다.

깨여진 꿈의 창가

어느 누가 그 나라를 알려거든 학교를 먼저 찾고 어린이를 먼저 보라고 했으되 교육의 얼굴은 그 나라의 거울이며 축도가 아닐가.

첫 수업의 인상은 깊었다. 그처럼 큰 기대속에 책가방을 풀어놓은 교실은 중학교의 실정을 그대로 닮아먹었다.

한 학급당 90명이였다. 《과대학급》, 《과밀학급》이란 이런 경우를 이르는 말이였다.

서울 도심지에 자리잡은 고등학교의 교실이라면 그래도 현대문명이 깃든 아늑한 요람이라고 예상했던 나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것이였다.

숨막힐듯한 교실과 악취풍기는 실내의 어설픈 풍경을 두루 살피던 나의 머리속에는 중학교의 졸업식이 떠올랐다.

중학교에는 졸업식을 할만한 넓은 교실이나 강당이 없어 《마이크졸업식》을 진행한다.

마이크졸업식, 얼핏 들으면 전자시대에 어울리는 그럴사한 졸업식 같을지 모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랑만도 애착도 없고 추억도 있을수 없는 황량한 졸업식임이 드러난다.

교무실에 앉은 교장선생이 마이크로 축사를 하고 졸업생들은 교실 책상에 우두커니 앉은채 《목소리》를 들으며 졸업식기분만 낸다.

《정든 교실》을 떠나는 형과 언니를 보내는 재학생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없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이렇게 재학생들과 어울려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며 찾는 졸업식 분위기가 여기에 감돌수 있겠는가.

마이크졸업식을 한다 해도 학부모들은 교실이 좁아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발돋움하며 교실안의 광경을 지켜보거나 복도도 넘쳐 졸업생과 약속한 운동장 구석구석에서 졸업식이 끝나기만 기다린다.

마치고 온 중학교의 그 졸업식현장과 비슷한 교실풍경이 오늘 내가 앉은 이 교실에 그대로 비껴있는것이 아니랴.

어설프고 불비한 교실이건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현대문명이 별의별 희한한 조화를 다 부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초현대화의 시대에 까마득한 옛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지하교실》이 있다니 놀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한가닥의 해빛이 그립고 한 점의 맑은 바람결이 아쉬운 지하교실…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는 지하교실이 서울시내의 국민학교의 경우만해도 수백개나 되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였다.

그 지하교실에 비하면 이날 내가 앉은 고등학교교실은 그래도 지상교실이니 괜찮은 편이다.

교육의 수난기에 몸부림치는 이남의 현실속에서 나의 고등학교 첫 수업은 어설프게 시작되였던것이다.

비좁은 교실에 앉았건만 배움의 꿈에 부푼 나는 새로 모인 학급학생들의 실력이 궁금했다.

각처에서 모여든 학생들이여서 그 실력이 각이하였다. 담임선생은 력사를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글도 읽혀보고 수학도 《테스

트》했다.

나는 대답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두고 깜짝 놀랐다.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어떤 애는 승하고 제하는 초보적인 수학지식도 없었다.

언젠가 《동아일보》에서 읽었던 글줄이 떠오른다.

《한글도 읽지 못하는 중학생, 나눌셈을 할줄 모르는 고졸생, 일간신문을 못읽는 대졸생이 있는 이 땅의 교육위기는 폭발전야의 위험수위를 기록하고있다.》

이러고보면 항간에서 비난하듯이 학교는 한날 《졸업장생산공장》으로 전락된셈이 아닌가.

첫 수업시간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도 어린데 일종의 환멸이 생길 정도였다.

고등학교의 첫날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오려 할 때였다.

교감이 나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내라는 첫 독촉을 하는것이였다. 학생의 그림자가 교실에 비끼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학비성화였다.

교감이 말하자 학생들속에서는 첫 반응이 일어났다.

한 학생이 일어나 묻는것이였다.

《그럼 올해 수업료는 3%나 더 내구 육성회비는 5%나 더 물어야 합니까?》

《그렇다. 물가가 오르는데 수업료나 육성회비가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면 되는가? 잔말말고 래일중으로 모두 물어야 해.》

교감이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는 교실에서 바람처럼 나가버렸다. 뱀처럼 차거운 사람이였다. 학생들이 웅성거리였다.

순간 나는 앞이 아찔했다. 그리고보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물어야 하는 공납금만해도 년간에 13만~20만원을 넘으니 약차한 돈을 어떻게 마련한담?!

등교하여 첫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공납금을 달라고 말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의 시름겨운 눈동자와 어머니의 초점잃은 눈길이 보이는듯했고 빨리도 셈이 든 녀동생의 한숨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입학의 기쁨은 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졌고 무거운 시름으로 변하였다. 입학의 고개는 간신히 넘었으나 앞으로 첩첩히 늘어선 학비의 고달프고 힘겨운 고개는 어떻게 넘을가?

이것은 아버지의 근심이였고 어머니의 시름이였으며 나의 불안이였다. 생각할수록 기쁨이 서린 이 가슴엔 시름의 파도가 거세게 일었다.

포부에 부푼 꿈과 시름에 시드는 희망의 먹구름이 무거운 가슴속에 함께 어려있었다.

첫날 수업을 마치고 떠나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고 지꿎게 늘어붙는 공납금의 무거움, 돈의 철쇄…

이 세상에서는 새 학년도 새 학기를 《돈의 추수기》라고 한다. 봄의 싹이 움트고 푸른 대지가 동심과 청춘을 부르는 3월의 새학년도와 더불어 우리 어린 학생들의 시름과 눈물을 자아내는것은 학비걱정이였다.

나는 무거운 발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에 들어오자 가방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나의 얼굴에는 시름겨운 그늘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어머니도 누이동생도 나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표정들이였다. 등록금으로 약차한 돈을 내는바람에 집에는 한푼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릴가 념려하여 래일 학교에 공납금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공납금걱정을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주름깊은 눈가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고이는것이였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만에 어머니가 두려움이 어린 목소리로 묻는것이였다.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였고 근심에 젖어있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

《없긴 왜 없었겠냐. 어서 말하렴.》

《참—어머니두. 걱정마시라는데두요.》

《얘야, 언젠가 너는 이 어미한테는 무슨 말이든 다하겠다고 했지. 아무리 괴로운 말이래두 감추지 않겠다고 말이다.》

《…》

나는 어머니의 진정에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가난한 집일수록 부모자식간에 서로 아끼는 마음은 별스레 뜨거운것만 같았다.

《영선아, 아버지가 오실 때 혹시 몇푼을 들고 들어오시겠는지 기다려보자꾸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냐.》

어머니의 음성은 몹시 서글프게 울렸다. 정말 어머니는 불쌍했다. 이 외아들의 전도때문에 언제 한번 시름을 놓아본적이 없는 어머니였다.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철공소에 다니는 아버지가 얼마만이라도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오면 좀 좋으랴.

언제나 기다려지는 아버지이지만 오늘따라 더없이 보고싶은 아버지였다.

날이 어둡자 나는 밖으로 나가 퇴마루에 앉아 책을 펼

쳤다.
3월의 밤날씨는 차가왔다.
《오빠, 어머니가 저녁밥을 다 지었어.》
영옥이가 근심스레 하는 말이다.
《난 먹고싶지 않어. 어머니랑 함께 먹으렴.》
《어머니가 빨리 방에 들어오랬어.》
《종호네 집에서 먹구왔어.》
《거짓말!》
《진짜야, 영옥아.》
《오빠, 엄마 속을 태우지 말구 빨리 들어가.》
이때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나오며 말하는것이였다.
《애야, 어서 들어가 먹자. 저녁이나 먹구 공부를 해얄게 안야. 저녁 한끼를 굶는다구 공납금이 나올것도 아니잖니.》
《어머니, 정말 먹었다는데두—》
《애두— 참 독한 성미야.》
어머니가 한숨섞인 말을 하자 옆에 섰던 영옥이가 한마디 덧붙였다.
《오빤 참 별래. 배가 고프구 추우면 정신이 긴장해져서 공부가 잘된다구 나한테 늘 말하지 뭐. 참 오빠두…》
어머니가 영옥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꼬리를 이었다.
《배고프고 춥다고 공부가 잘될게 뭐냐. 다 이놈의 가난때문이지…》
어머니는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치밀어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는것이였다.
《참, 어머니두 또 우시네.》
내가 걱정스레 말하자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듯이

《그럼 아버지가 오신 다음에 저녁을 함께 먹자꾸나.》이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밤이 이슥해서야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몇푼의 돈을 마련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것이다. 철공소에서는 밀린 봉급을 며칠후에 주겠다는것이였다.

나는 순간 앞이 아찔했다. 고등학교의 첫 공납금납부기일도 지키지 못하게 되였으니 정말 가슴이 타는 일이였다.

가슴속에 부풀어오르는 배움의 꿈은 첫순간에 서리맞고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창가에 배움의 푸른 희망이 열비치던 꿈은 산산이 깨여지고마는것인가.

하늘에 어둠이 깃들자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나 반짝였다.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별나라에 가면 마음대로 공부할수 있을가. 어느 하늘가의 별밑에 가면 배움의 꿈을 꽃피워볼수 있을가.

생각할수록 희망의 별나라는 아득한 꿈세계에 있는듯싶었다.

학생부업전선

집요한 공납금 독촉은 우박같이 쏟아져내렸다. 하루이틀 뒤로 미룬것이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이제 일주일안으로 공납금을 물지 않으면 리유불문하고 제적하겠다고 학교당국에서는 으름장을 놓는것이였다.

이런 위협을 받는것은 나만이 아니였다. 우리 학급에도 30명가량 되였다.

다행히도 아버지가 밀린 봉급을 타갖고 돌아왔다. 어머니도 두부를 팔아 얼마간의 돈을 쥐였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것만큼 공부를 잘해서 단연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리라는 속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나는 각종 잡부금의 위협에서 해방될수 없었다. 엄청난 잡부금을 마련하자면 나도 군고구마를 파는 행상이나 부업의 길에 나서야 했다.

서울에서 어지간히 가난한 고교생들이나 대학생들은 거의나 방과후면 부업전선에 몸을 말기는것이였다. 학생부업은 하나의 풍조를 이루고있었다.

(학생부업전선을 일명 《아르바이트전선》이라고도 한다.)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의 행상은 참말 천태만상이였고 그 정상이 처절하였다.

나도 늘 보는 일이지만 최근 도심의 지하철역이나 학원골목에 잡다하게 목판을 놓고 《학생행상》들이 길가의 이방인처럼 등장하여 뭇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동정을 사고있었다.

손수레에 귤과 군밤, 땅콩을 싣고다니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넓다란 종이장우에다 자신이 그린 크리스마스카드와 년하장, 희귀한 엽서들을 널어놓고 행인들의 눈길을 좇는 고교생들도 있었다.

광화문 옛 대성학원골목, 교육회관앞, 뻐스정류장, 종로2가, 지하철입구, 리화녀대정문앞길, 성균관대학교 정문앞길 등 사람들이 붐비는곳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이런 학생들로 성시를 이룬다.

어느날저녁 땅거미가 질무렵이였다. 내가 최교사댁에 들러 참고서를 빌려가지고 오다가 학생들의 행상시세를 알아보려고 종로구역 지하철역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벌려놓은 고교생들속에 종호의 얼굴이 보였다. 그역시 행상의 물결에 말려들어 군고구마를 목판에 놓고 길손들의 눈길을 좇고있지 않는가.

그의 가련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누이가 서독에 간호부로 떠난 이후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고등학교를 다니자니 저런 행상을 할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총명하기로 유명한 저런 수재급의 학생이 책을 읽어야 할 그 시간에 저렇게 부업전선에서 눈길을 판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서글픈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운명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나의 마음은 끝없이 쓸쓸하였다.

나의 눈길은 종호의 목판옆에 놓여있는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에 미치고있었다. 행상을 하면서 짬짬이 틈을 내여 공부하는 그의 탐구열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종호는 손님이 없을 때면 옆에 놓은 수학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무엇인가 익히고 원리를 새겨두는듯 눈을 끔쩍끔쩍하였다.

토막시간이 생기고 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그와 함께 고구마를 팔아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차피 이런 행상을 차려놓아야 할 처지가 아닌가.

내가 종호앞에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쑥스러운듯 당황해하며 변명을 하는것이였다.

《영선이, 할수 없구나. 군고구마래두 팔지 않으문.… 욕하지 마.》

《애두, 왜 욕해! 제손으로 벌어서 공부하는것이 하나의 풍조가 된 세상인걸. 그런 말일랑 하지 말구 나하구 같이 고구마나 팔자. 나도 너처럼 행상을 차려놓겠어.》

나는 종호옆에 다가가 고구마를 파는 그의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자, 군고구마, 군고구마요! 맛좋고 값이 싼 군고구마요! 제주도 고구마요. 1등 고구마요!》

나는 군고구마를 하나 들고 이렇게 말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고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성수가 나서 고구마를 단숨에 팔아버렸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리를 떴다.

내가 종호와 함께 서울 광화문거리를 지날 때였다.

비교적 터세가 적은 한산한 골목에 웬 포장마차가 있었다. 마차에 포장을 두르고 포장에는 《괴로울 때 한잔, 즐거울 때 두잔》이라는 희한한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눅거리 술, 따끈한 안주, 종로포장 KB》, 기분내키는대로 휘갈겨 쓴 포장마차의 이름들이 우선 다른 포장집들과 특색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 포장마차는 《대학생포장마차》였다. 이것은 학비와 하숙비를 벌기 위해 방과후 갖가지 일거리를 개척하고있는 대학생들의 한 부업형식이였다. 요즘 대학생포장마차라는 희한한 행상차림이 서울거리에 나타나 뭇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였다.

나는 포장마차가 하도 신기하여 그 포장안을 들여다보았다. 도수높은 안경에 부르튼 손, 익숙치 않은 안주료리솜씨— 이것이 그들의 초상이였다. 군고구마 목판을 들고다니는 우리도 가련했지만 그네들, 대학생형님들도 정말 불쌍했다.

눅거리 술잔을 찾는 손님들의 인기를 끌려고 허줄한 록음기까지 서글픈 음악을 토하고있었다. 어떤 포장마차에서는 녀대생이 뭇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눅거리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건만

내 희망은 어데로 사라졌나
가엾어라 가엾어라 이 내몸
깨여진 희망, 나의 창가

서러운 눈물의 방울방울
이 가슴을 적시누나

구슬프게 울리는 녀대생의 노래였다. 우리 학생들의 심정을 담아 대학생들끼리 가사와 곡을 만들어 부르는 자작곡인듯싶었다.

어쨌든 그 노래는 고달픈 생활전선에서 부대끼는 우리 고교생들이나 대학생형님들의 서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사와 선률에 담고있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던 나역시 한동안 축축히 젖은 눈길을 달래며 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손님들도 마시던 술잔을 잠시 놓고 자기식의 고민과 불안과 서러움에 잠겨있었다.

가수가 울고 손님이 울면 술을 따르고 안주를 볶던 대학생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함께 노래부르면서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있었다.

이 모습은 골목에 자리잡은 눅거리 술집이나 다방의 압축판이였고 축도였다.

애된 얼굴의 《경영주》—대학생들, 바지우에 위생치마까지 두르고 땀을 흘리는 서툰 《료리사》대학생형님네들, 이네들의 포장마차는 잠시 머물러있을 자리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고있다.

다른 포장마차들이 다 좋은곳을 차지하고있어 이들은 시외뻐스주차장과 같은 버림받은곳으로 밀려나기가 일쑤이다.

포장마차의 주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자금이

넉넉한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 포장마차를 차리기때문이다.

자금이 없거나 돈을 낼수 없는 학생들은 각이한 부업전선에 몸을 맡기고있는것이다.

방과후 학생들이 찾아나선 부업은 도서관책정리, 잔디깎기, 식당청소, 백화점점원 등 실로 다양했다. 한남동 모음식점에서는 녀대생들이 명찰을 달고 접대부일도 하고있었다.

내가 잘 아는 건국대학교 3학년 곽진주양과 같이 골목유치원의 보모를 하는 과외일자리를 마련한 녀학생들도 있었다.

지어 시골이나 주변 교외에 있는 녀대생들은 방과후 서울로 올라와서 고달픈 《림시차장》으로 채용되여 밤늦도록 고역에 지치기도 하고 힘꼴이나 쓰는 남학생들은 삯지게로 짐짝을 져나르기도 한다.

가난한 집 학생들이 누구나 가림없이 나선 행상과 부업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 고달프고 서러운 길이였다.

방과후 서둘러 나서는 이 힘겨운 부업의 길에서 정력을 다 바치고 나면 극도의 피곤에 몰리군한다. 때문에 그 이튿날 학교에 나오면 첫수업시간부터 창백한 얼굴을 가진 학생들은 례외없이 졸고있거나 구석에 앉아 코를 골기도 한다.

수업시간에도 책상에 머리를 박고있는 학생들을 보면 아슬아슬한 생각이 든다. 용모야 좀 예쁘고 아름다운가. 정말 머리야 좀 총명한가.

종호도 사람인것만큼 늘 피곤한 기색이였다. 글자가 눈뿌리에 감겨들어오지 않고 목소리가 귀뿌리에 잠겨들어오지 않는다고 늘 나에게 말하였다.

어떤 학생은 수업시간에 피곤과 영양실조로 졸도까지 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3학년에 올라가면 자퇴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것이다.

나의 눈앞에도 무거운 구름이 비끼는듯했다. 이처럼 고달픈 학업전선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로 갈수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앞길이 캄캄했다.

근심, 부담, 절망, 악몽, 이것만이 나의 온몸을, 나의 온 정신을 지배하고있었다.

마지막 강의

무거운 시름과 고달픈 속에서 힘겨운 배움의 날이 가고 달이 바뀌였다. 학기가 지나갔고 학년이 흘러갔다. 수업료, 교재대외에도 잡부금, 육성회비 등의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매일같이 학비의 위협을 받으며 배운지가 벌써 3년이 지나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였다.

학교에서는 돈과 뢰물을 수확하는 풍조가 짙게 감돌고 있었다.

담임선생인 최교사는 이 부조리한 병폐를 반대하며 학교본연의 궤도로 돌아가 청렴과 결백, 정의와 량심에 살자고 강력히 주장했던것이다.

선생님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학급학생들속에서 잡부금의 빚단련으로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때문이다. 3학년으로 올라가자 90명이던 학급이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군고구마부업을 하거나 어머니의 삯빨래로 얻은 몇푼의 돈으로 공납금을 겨우 물면 또다시 뒤따르는 잡부금의 위협은 종호의 앞길에도 무거운 그림자를 던지였다.

나 역시 2학년까지는 집안의 피눈물에 젖은 돈으로 그 많은 공납금을 간신히 물어왔지만 아버지의 철공수입이 떨어지는 관계로 학교에 다니기가 힘겨웠다.

종호는 담임선생님께 여러번 중퇴할 의향을 제기하였다. 선생님은 그래도 참아보라고 타이르는것이였다.

최교사는 어느날 력사수업을 마치고 한마디 말하였다.

《학교를 중퇴하기는 쉬워도 입학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학생제군은 학비때문에 교문을 떠날 생각일랑 말고 학부모님들과 잘 의논하여 학교를 마쳐야 합니다.

담임선생으로서 학급을 떠나는 학생을 도와주지 못하는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동정에 넘친 말이였다. 가난한 학생들의 가냘픈 처지를 함께 가슴아파하는것이 한없이 고마운 일이였다.

수재형의 총명한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 로동현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둔재형의 《석두》들이 돈의 힘으로 높은 성적증을 보유하는 이 썩은 학교풍토가 선생님에게는 전혀 허용될수 없었다.

최교사의 이 량심적인 자세는 학교당국이나 문교당국의 눈에 가시처럼 돋혔다.

그러던 어느날 력사시간에 최교사가 헤그밀사사건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는데 력사적인 사실대로 리준씨가 할복직전에 숭미사상과 결별하고 자주독립의 강렬한 사상으로 가슴을 불태웠다는 진실을 그대로 소개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학급에 박혀있던 회사사장놈의 아들 창설 (그놈은 어릴 때부터 밀정노릇을 하였다.)이가 학교에 박혀있는 정보책임자에게 최교사가 미국을 욕하고 자주독립의 사상을 고취했다는 사실을 일러바치였던것이다.

이것이 발단이 되여 최교사는 악질적인 교장과 비밀정

보원의 감시망속에 들게 되였다.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최교사를 마음대로 내쫓을수 없어 사상적으로 불온한 경향성을 가졌다는 리유로 이러저러한 압력을 가했다. 최교사는 이 부정과 불의 앞에 굴종하여 교편을 잡는 지성의 노예가 되고싶지 않아 결연히 교단을 떠나려고 결단을 내리였던 것이다.

어느날 교실에 나타난 최교사의 얼굴은 저으기 흥분되였다.

그는 담임학급학생들의 정겨운 얼굴을 한번 휘둘러보고나서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나는 여러 학생제군들과 두해 남짓한 세월을 한지붕밑에서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나는 이 교단에서 학생제군들에게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진리를 가르쳐주느라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내가 제군들한테 심어준 진리가 그대로 가슴속에 꽃으로 피여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제군들 가슴속에 간직된 진리의 무게,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보람이고 자부가 아니겠습니까.

참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심어주는것은 교사의 죄악입니다. 참과 거짓은 서로 대립되는 두 극입니다. 더우기 민족사를 배워주는 력사교사에게서 허위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것이야말로 생명이며 존재가치입니다.

나는 제군들앞에 허위를 가르쳐줄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밝혀두어야 할 문제들이 지금 외곡된채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외곡된 사실을 진리로 묘사하여 미래의 주인들에게 배워줄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설사 내 교편을 꺾을지언정 진리의 외면자, 허위의 강요자로 살고싶지 않습

니다.》

선생님의 음성은 흥분으로 떨고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얼굴이 그렇듯 붉게 상기된 때를 여직 본일이 없었다.

담임선생님의 말은 마치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최후의 선언같이 울렸다. 그만큼 그의 론조는 비장하였고 어조는 결단에 넘치고있었다.

교사의 목소리는 다시 세차게 울렸다.

《제군들, 력사는 언제나 정의와 더불어 흘러왔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나는 제군들이 사회정의, 새 정치를 위해 피를 뿌리고 간 4월의 아들들의 뒤를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형님들이 4. 19의 그날에 보도우에 뿌리고 간 붉은피는 아직도 우리의 혈맥에 뛰고있습니다. 진리와 정의에 사는 그들은 자유의 파수병이 되여 피를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4월의 꽃나무에 자유의 향기가 풍기고 진리의 열매가 주렁지기전에는 자신을 속이고 불의에 굴종할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최후의 강의시간에 제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 언덕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 우리는 진리의 탑을 세우며 힘껏 포옹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최교사는 다시한번 우리 학생들을 둘러보며 뜻이 깊은 눈인사를 보내고는 교단을 떠났다.

《선생님! 선생님!》학생들은 걸상에서 용수철처럼 튀여올라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섰다.

나는 다시 뒤돌아보며 무언의 눈인사를 보내는 선생님 곁으로 달려갔다.

정다운 담임선생님, 언제나 불쌍한 학생들을 동정해주고 진리앞에서는 굴종과 양보를 모르는 의로운 력사교사와 리별하는 마지막 순간이였다.

(아, 선생님! 진리를 사수하는 량심의 스승들이 교단을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 최교사의 등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담임선생님이 복도골목을 꺾어들자 이미 기다렸다는듯이 사복경찰이 그를 련행해가는것이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선생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후 담임선생님이 밀정놈의 밀고로 사복경찰에게 련행되여갔다는 소문이 학급에 떠돌자 학생들은 일시에 웅성거리며 성난 바다마냥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량심적인 최교사에게 무슨 죄가 있단말인가? 나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학생들은 책상을 가로타고 앉아 주먹을 부르쥐며 한마디씩 웨쳤다.

《량심이 죄인가?》

《정의가 죄인가?》

《우리 담임선생님을 찾아오자!》

보뚝이 터진 보물처럼 학생들의 항변은 거세게 일어났다.

나는 벗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학급에 밀정놈이 있는것 같애. 여우같은 놈이—》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창가의 책상우에 마주앉아 카나다껌을 질근질근 씹고있는 창설에게로 옮아갔다. 그러자 학생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듯이 그놈의 비게덩이같은 얼굴을 노려보는것이였다.

학급학생들의 무서운 눈총을 맞은 창설은 겁에 질린 눈길로 두루 살피다가 《왜들 이래?》라고 한마디 비명비

슷한 말을 내뱉고는 빠져나가는것이였다.
나는 학급동료들의 일치한 의사를 대변하여 나섰다. 나는 종호와 함께 담임선생을 찾아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단순한 생각밑에 교장실로 찾아들어갔다.
교장이 언짢은 눈길로 왜 들어왔느냐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데 갔습니까?》
《건 왜?!》
《배워주던 력사강의를 채 끝마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이 쪼무래기들이 별 참견을 다하는군. 최교사는 불온교사야. 이젠 돌아오지 못해. 경찰서에 가서나 물어봐라.》
나는 최교사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밖에 알지 못한채 악질교장실 문을 콱 닫고 나와버렸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나는 학교당국으로부터 《부정학생》으로 지목받게 되였다. 교무당국은 다른 학생들이 공납금을 제날에 가져오지 못하면 다음날로 미루어주기도 하지만 나만은 제날에 바치지 못하면 당장 학교에서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것이였다.
나는 담임선생님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최교사는 어데로 갔는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리행위, 불의, 부정으로 휩쓰는 고등학교에서의 힘겨운 나날은 흘러갔다.
종호는 홀어머니가 제대로 벌지 못하기때문에 고달픈 고학의 길을 헤매다가 끝내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고 자습의 길을 택하였다.
선생님들의 강의안을 사거나 동무들의 학습장을 빌려보면서 졸업시험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마음놓고 공부하면 훌륭한 발명가가 될수 있는 종호를

도와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몹시 안타까왔다. 나역시 종호의 처지보다 나은 편이 못되였다.

아버지가 다니는 철공소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잦아지더니 최근에 아주 파산되였다.

아버지는 하루밤사이에 실업자가 되고말았다. 고등학교졸업을 몇달 앞두고 이렇게 되였으니 참말 기막힌 일이였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나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사의 힘을 다하였다.

어머니는 손이 터지도록 두부장사를 하건만 몇푼이 생기지 않았다. 나어린 누이동생도 연약한 몸으로 《ㅅ》병원 청소부로 들어갔지만 아직 한푼도 쥐지 못하였다.

나의 앞에도 종호의 운명과 같은 가파로운 벼랑길이 가로놓였다. 고학이라는 고달픈 길에 몸을 맡겨야만 했다.

지식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아니라 돈으로 졸업하는 학교인 까닭에 그런 학생부업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종호와 함께 군고구마장사도 하고 가끔 지게도 지면서 돈벌이에 나섰다.

나와 종호는 이렇게 힘겨운 날을 보내면서 몇달동안 자습으로 고등학교 전과목의 내용을 독파하였다. 드디여 졸업시험을 쳤다.

나와 종호는 학교당국의 미움을 받았지만 성적이 만점으로 뛰여났기때문에 단연 으뜸의 자리를 차지했다.

고달픈 고등학교시절은 이렇게 끝났다.

졸업하자 걱정과 고민이 뒤따랐다. 돈이 없어 대학의 문을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사회인이 된단말인가…

어떻게 하나 대학에 가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학우의 유서

대학이란 청춘의 꿈을 지닌 젊은 지성들의 광장이라 할가. 배움의 붓을 든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 대학을 졸업하는것이였다. 부모들의 애오라지 희망도 바로 그것이 아닐가.

나는 사실상 대학에 갈 형편이 못되였으나 어려운 고학으로 대학을 마칠셈치고 대학입학학력고사에 응시했다.

《ㄱ》대학교 인문계에 입학하려고 서울시 종로구 교육청에 응시원서와 응시자 기록 OMR카드, 고사료 2,800원을 내고 시험을 쳤다.

국어, 실업, 국사, 국민륜리, 수학, 영어, 사회, 세계사, 국토지리, 물리, 화학 등의 방대한 고사교과목이였다.

놀랍게도 나는 전과목에 결쳐 최고점수를 맞아 단연 350점으로 《ㄱ》대학교 정외과에 입학하게 되였다.

나는 리야까를 끌면서도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 신입생들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실력검토에서도 나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여 교수들과 학생들의 눈길을 모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학교교수단에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뛰여난 실력과 남다른 두뇌를 두고 칭찬이 자자했다. 한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교를 맺는것이였다.

입학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방과후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교정에서 상급생들의 운동회를 구경하고있었다.

이때 구멍가게집 아들 강순호와 복덕방집 아들 박일수

라는 남학생과 대학교수의 딸 순이라는 아릿다운 녀학생이 나의 곁에 찾아와 말을 건네였다. (한 학급에서 공부하였으나 아직은 그들과 친교를 맺은 일이 없었다.)

《영선이, 우린 너의 이름을 다 알고있어. 우리 셋은 종로고등학교 출신들이야. 이 친구는 박일수라는 축구선수야.》

강순호라는 성동구의 구멍가게집 아들이 이렇게 푸접이 좋게 소개하자 박일수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다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나역시 눈인사로 반기였다.

《그리구 호수의 백조마냥 산뜻한 흰옷차림을 한 이 순이양은 첫날부터 대학사회의 인기스타로 등장했지. 그 천품이 소박하고 얌전하고 정의감이 강한것으로 남성세계의 화제거리지. 순이양의 아버지는 우리 대학교의 권위있는 정치학교수이며 박사이시네. 성함은 조운성교수라고 부르네.》

떡심좋은 익살군인 강순호가 나에게 순이를 소개하자 순이는 불그레 상기된 얼굴을 다소곳이 숙이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것이였다.

《전 순이예요. 전 영선씨에 대한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앞으로 저를 많이 배워주시고 도와주세요.》

순이는 은방울처럼 맑고 랑랑한 목소리로 정답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좋은 벗들이였다. 아픔도 고민도 함께 나누며 한지붕밑에서 배우고싶은 정다운 친구들이였다.

그런가 하면 한학급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신흥재단의 리사인 토목회사 사장의 아들 창설이와 같은 희떠운 특권족들의 아들들도 있었다.

대학신입생의 나날은 희망과 우정 속에서 흘러갔다. 어떤 때는 공납금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길이 막막하여 슬프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그만 쓰러질번하였다. 중학교 동창생인 종호가 자살했다는것이 아닌가!

종호네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앞에서 통곡을 하고있었다.

《종호야, 이 어미를 두고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 응!》

종호의 굳어진 모습을 바라본 나역시 무릎을 꿇고앉아 울었다.

《종호!… 종호!…》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정의감에 불타던 그 눈동자, 정의를 찾고 진리를 웨치던 그 입술, 배움의 열정에 불타고 지성이 넘치던 그 얼굴이 다시 그리웠다.

(아니 무엇때문에 자살한단말이냐. 종호야! 차라리 배우지 못하면 말았지…)

나는 가슴을 쥐여뜯었다. 생각할수록 그의 비상한 머리가 아까왔다. 늘 친구들이 수재라고 칭찬하며 그를 아끼지 않았던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사실상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건만 대학교에 가고싶어 입학시험이라도 쳐보겠다고 대학입학학력고사에 응시했던것이다.

나는 대학교 인문계에 가기로 하고 그는 자연계(실업계)에 뽑기로 하였다. 그역시 《ㄷ》대학교입학학력고사에서 놀라운 성적을 맞아 단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몇번째로 합격하게 되였다.

합격통지서를 받아쥔 그날부터 종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아찔하게 솟아있는 입학금과 등록금의 가파로운 벼랑

을 어떻게 오른단말인가.

대학교실업계 입학생이 처음으로 물어야 하는 입학금만도 자그만치 8만 8천원이다.

4년간 대학교실업계에서 물어야 하는 공납금이 모두 628만 2,000원이니 어떻게 종호가 홀어머니의 주머니를 믿고 대학에 다닐 생각을 할수 있었겠는가.

종호는 어느날 나와 나란히 거닐며 말하는것이였다.

《영선이, 아무래도 난 학교엘 못다녀. 당장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물어야 대학교책상에 앉아볼게 안야. 아, 난 정말 대학교에 가고싶다. 정말 대학교의 책상에 앉아보고싶어. 지성을 쌓아 현대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싶단말야.》

그는 이렇게 서글프게 말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애달파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도와줄수 없는 내 마음이 괴로왔다. 우리 집에서도 입학금과 등록금을 겨우 꿔오지 않았는가.

《종호,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해야 돼. 너의 두뇌를 그대로 파묻어버릴수야 없잖아.》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눈물을 흘리는 그의 서글픔이자 나의 아픔이였다. 나도 따라 울었다.

종호는 대학교정문에 들어섰으나 대학교명부에 끝내 제이름 석자를 적어넣지 못하였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낼수 없으니 대학생자격이 없다는것이 아닌가.

그는 합격하고도 학교에 더는 나올수 없었다. 부득불 동창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교수들의 강의안을 사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달이였다. 강의안을 사서 학문을 익힌다는것도 집에서 먹을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였다. 홀어머니가 제대로 벌지 못하니 당장

주린 배를 달랠길이 없었고 찬 날씨에 방안이 얼어들어와도 자그마한 온돌을 덥힐 구멍탄 몇덩이를 살 길이 없었다.

그럼 어쩐단말인가? 어머니는 자기때문에 매일 울고 비장한 생각을 품고있지 않는가.

배움의 길이 막히고 삶의 길이 캄캄한 그의 눈가에는 절망과 고뇌의 빛만이 질어갔다. 말도 없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익살도 없었다. 생의 마지막 벼랑턱에 올라선 그의 앞에는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죽음의 절벽이 기다리고있을뿐이였다.

그는 세상을 원망도 했고 저주도 했다.

구원을 바라는 애원의 붓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여 가정교사의 길도 탐색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하소연, 모든 애원의 손길을 들은체도 하지 않은 얼음장같은 세상이였다.

방황과 고민, 절망과 울적의 절정에 이른 그는 죽음으로 세상을 항거하는 길을 택하기로 결심하고 독약을 먹기에 이른것이였다.

이 가슴아픈 사연을 대충 알게 된 나는 종호가 남긴 마지막 유서를 집어들었다. 그 유서에는 밤새도록 고민하던 펜의 모대김이 어려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자욱도 남아있었다.

유서를 읽는 나의 눈물이 종호의 눈물자욱을 또다시 적시였다.

《나는 배우고싶었다. 대학교의 창가에 앉고싶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의 정문에 들어설수 없었다. 돈때문에…

나는 살고싶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살고싶다. 살고싶어도 살수 없구나. 차라리 고달프게 살바엔 이 모든것을 외면하고 이 세상과 결별하련다.

젊은 지성의 죽음으로 이 저주로운 세상을 고발

한다.…》
그 다음 그는 어머니에게 몇마디 남겨놓았다.
《어머니!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토록 고생하신 어머니! 어머니를 홀로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들의 모진 마음을 용서해주셔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살던 고향 목포땅에 가서 살려고 했어요. 선박회사 회사원이 되여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꿈이 부서졌어요. 나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되고 짐이 되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어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앞에서 사라진다면… 무서운 일이지만 용서해주셔요.
노여워마셔요. 울지 마셔요. 이 불효자식이 집에 어머니만 남겨놓고 떠난다고… 네 죽어 넋이 되여서라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싶어요.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다시 불러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유서를 다 읽고난 나의 손은 떨렸고 종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그 종이장은 맥없이 떨어졌다.
나는 굳어진 종호의 손을 쥐며 울었다.
《종호야, 눈을 뜨렴! 네가 뭐때문에 죽는단말이냐! 수많은 원망을 남겨놓고, 그 많은 꿈을 앞에 두고 그렇게 간단말이냐! 종호야, 종호야!》
나는 땅을 치며 울고 또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원한을 품고 세상과 결별한 종호의 넋을 위로할수 없었다.
정신을 잃고 방안에 쓰러져있는 종호의 어머니를 위안하며 나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종호의 비극적 운명,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이 세장이 그의 죽음을 강요한 타살이다. 타살!)
슬픔의 눈물을 거두는 나의 가슴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못을 파고있었다.

나는 다정한 벗을 이렇게 잃고말았다. 벗을 잃은 상처는 오래동안 아물지 않았다.

대학교입학의 기쁨을 나누며 꿈을 익혀갈 때 생긴 이런 참변은 나의 가슴속에 더더욱 비장한 결심을 새겨주었다.

그 결심이 또한 탐구의 등불을 밝혀가는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였는지 모른다.

나는 종호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이를 사려물었다.

2. 인간은 상품인가

인간이란 길가에 널려진 넝마인가, 바다가에 나딩구는 조약돌인가. 세상에 떠도는 리념도 인간의 사유와 더불어 생겨나고 땅우에 넘치는 부도 인간의 활동과 함께 창조되였건만…

인간시장에 팔려다니는 인간, 인간, 이남땅에서 인간은 과연 상품인가.

저울추와 몸값

우리 가정의 지붕밑에도 비극적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비끼기 시작하였다.

철공소의 파산으로 아버지가 실업을 당한 이후로는 네 식구모두가 우울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실업의 운명을 털어버리고 직업을 구하느라 여기저기로 뛰여다녔다. 외아들인 이 아들을 대학공부시켜 가난한 로동자가정의 애오라지 소망을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비록 늙어가는 몸이지만 기골이 장대한 자기를 어데서 값있는 로동력으로 사주지 않을가? 이것이 아버지의 머리에서 순간도 떠나지 않은 기대였고 소망이였다.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직업안내소를 찾아 서울의 골목길을 걷고 또 걸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끊임없는 방황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또 찾았으나 허탕만 치고 집에 돌아왔다. 방안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애꿎은 담배만 빨고계시는 아버지의 가냘픈 모습을 볼 때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전선에 나서고싶은 생각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때마다 아들을 공부시키려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피어린 노력에 목이 메여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지워버리군하였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위험하지만 벌이가 좋다는 탄광으로 떠났다. 친구의 주선으로 얼마동안 태백산일대의 광업소에서 일할 생각밑에 떠났던 것이다.

나는 공부만 할수 없었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줄 때까지라도 학비를 벌어야 했고 당장 끼니걱정에 목이 메여 계시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아버지가 계실 때 가끔 나가보던 과외 지게군벌이란 하루에라면 한봉지값도 안되는 때가 많았다.

나는 밤일감이라도 구할 심산으로 신문광고란도 부지런히 살펴보고 발이 닳도록 직업안내소에도 찾아갔다.

그러던 10월 어느날 영광금속에서 공원(로동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나는 그달음으로 달려갔다. 하루종일 일하는 공원도 모집하고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림시공원도 채용한다는것이였다.

(하루 4시간씩 채용되여 일한다면 학교에 나가면서도 학비를 벌수 있지 않을가.)

《행여나》에 건 나의 기대는 참으로 컸다. 광고란에 씌여진 돈 액수도 지게군벌이에 비하면 곱절도 더 되였다.

내가 공원모집장소에 달려갔을 때는 벌써 많은 구직자(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하루종일 일하는 공원신청자는 수를 헤아릴수 없었다. 림시공원으로 채용될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림시공원 30명을 모집한다는데 신청한 사람은 275명이

라는것이다.

한마디로 모집비률은 9대1이다.

다른 아홉을 물리쳐야 자기가 들어가는 힘의 대결장이였다. 이 치렬한 경쟁에서 합격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은 힘이였다.

쇠물을 다루는 회사의 공원모집경쟁에서는 두뇌나 지성따위는 계산에 넣지도 않는다. 오로지 쇠물을 뽑고 쇠붙이를 다루는 로동력인탓으로 오직 하나 경쟁의 눈금은 힘인것이다. 힘만이 남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기는 최대의 비결인것이다.

힘을 겨루는 시험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저울추는 70키로그람이나 되는 무거운 상자였다. 이 상자를 메고 80메터밖에 세워놓은 나무표말로 달려갔다가 돌아와야 하는것이다. 누가 더 빨리 더 기운차게 돌아오는가에 따라 경쟁시험에서 합격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저울추로 판정하고 인간을 상품처럼 사는 인간시장이 아닌가.

무거운 상자와 80메터밖의 표말, 이것은 단순한 계량수치나 표식이 아니라 인간의 로동력을 매매하는 저울추였고 그 값을 판정하는 수치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는 사람이 인간시장에 상품처럼 팔려다녔다던 력사이야기가 떠올랐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시장》이라고 하면 인간이 《말하는 상품》으로 팔리던 고대 로마나 바빌로니야의 옛 력사책을 생각할것이다.

아득한 옛날 아메리카나 구라파에서 성행하던 《노예시장》이 오늘 서울에 있어 현대인들의 리성을 놀래우는것이였다.

경쟁대상자들은 한줄로 주런이 늘어섰다. 로무과 직원이 나타나더니 체화상품마냥 마당에 정렬되여있는 사람

들에게 번호를 주는것이였다. 나는 《98번》이였다.

사람들의 이름은 번호로 통했다. 번호순서대로 사람들은 시험장으로 나갔다. 어떻게 하나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비지땀을 흘리는 그네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못박혀있었다.

목에 흰 목수건을 질끈 동여맨 50대의 실업자가 드디여 시험장에 나섰다.

얼핏 보아하니 허우대가 좋은 그는 힘깔이나 쓸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엔 넁큼 상자를 들더니 어깨에 메고 몇발자국 씽씽 달려나갔다. 그러던 그가 발목을 붙잡혔는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것이였다.

파리한 그의 얼굴로는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새파래진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그만 상자를 떨어뜨리고 거꾸러졌다. 그러나 상자를 메고 목표까지 갔다돌아와야 한다는 본능적인 잠재의식이 그를 다시 꿈틀거리게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를 부추겨주려 하자 회사의 로무과 감독놈이 《가만!》하고 버럭 고함을 쳤다. 그가 죽어가도 가만 내버려두라는것이였다.

나이에 비해 퍽그나 늙어보이는 그의 깊은 이마주름살에는 땀들이 고여있었다.

겨우 다시 상자를 메고 일어난 그는 한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한채 또다시 꺼꾸러지고말았다. 더는 일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자 감독놈은 머리를 내흔들고나서 《다음》하고 소리를 치는것이였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버려진 인생이다. 이 세상은 그에게 한푼어치의 값도 붙이지 않고있다. 길가에 나딩구는 넝마는 그래도 하다못해 넝마주이들의 눈길이라도 끌지만 저렇게 쓰러진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페물로 버

려지고있다. 인간의 가치는 이렇게 령점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있다.

나는 불쌍히 쓰러져있는 그의 모습에서 다름아닌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이런 무거운 생각에 파묻혀있는데 《98번》 하고 나의 번호를 부르는 감독의 목소리가 울렸다.

드디여 나는 다른 생각을 할 경황이 없이 시험현장에 나섰다. 무거운 상자가 지금 《나》라는 인간의 값을 규정하게 되는것이다.

순간 나는 초인간적 힘을 내여 그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안깐힘을 써서 표식물에까지 당도한 나는 되돌아서 달려와야 했다. 앞을 내다보니 앞길이 천리같이 멀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목표물까지 거의 당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랴. 목표물을 눈앞에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한참만에 로무과 감독의 얄미운 목소리가 울렸다.

《98번 불합격!》

나는 감독원의 말이 떨어지자 벌떡 일어났다.

불합격,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였다. 2메터 못미친곳에 당도하여 쓰러졌으니 불합격이라는것이였다.

나의 힘은 9대1의 경쟁에서 끝내 밀려나고말았다. 공원생활의 첫 페지를 남기며 고학을 해보려던 나의 꿈은 70키로그람의 저울추에 의해 여지없이 부서지고말았다. 그야말로 로동현장의 첫 발걸음부터 살인적이였다.

지옥 0번지

나는 일자리를 구해볼가 하여 이리저리 헤매다녔으나

헛수고였다.

태백산기슭의 광업소로 떠난 아버지라도 가서 만나보고싶었다. 이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탄광촌으로 떠나갔으나 편지 한장 없었다.

아버지는 탄광으로 떠난지 두달만에 몇달분의 공납금을 물 돈을 한번 우편으로 부쳐왔을뿐이다.

겨울방학이 되자 나는 아버지를 찾아 광업소로 떠났다. 어머니가 꾸둥쳐준 보짐을 하나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보짐에는 늙은 아버지가 추워할가봐 어머니가 정성들여 기운 동내의와 콩가루로 만든 미시가루가 들어있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가 불쌍하였다. 실업군의 대홍수가 범람하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끝내 얻지 못한 아버지는 태백산일대의 광업소들에서 탄부들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삼척지방으로 떠났던것이다.

아버지가 일공으로 일한다는 남강원도 삼척군의 한개 읍인 장성의 광업소마을에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아침녘이였다.

탄광마을 합숙에 들려 물으니 아버지는 며칠째 허리를 앓다가 채 낫지 않은 몸으로 새벽녘에 갱속으로 들어갔다는것이다.

아버지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난 나의 마음은 한시도 불안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가슴에 갈마들었다.

탄광마을의 아침은 음산하였다.

집집의 굴뚝에서는 탄연기가 연하게 피여올라 찬 공기속에서 사라지고있었다.

탄광합숙에 잠간 머무르는데 한 중년 아낙네가 급히 찾아와서 어제저녁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 안나왔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 녀인은 급히 도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런데 마당가에서 다른 녀인과 주고받는 탄부의 안해인듯싶은 그 녀인의 말소리가 나의 귀속으로 파고드는것이였다.

《댁의 검은 사람은 돌아왔나요?》

《아직 안돌아왔어요. 댁의 검은 사람은요?》

《우리 집 검은 사람은 한창 자고있어요.》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이 짤막한 대화를 듣고 나는 흠칫 놀랐다. 《검은 사람》이란 분명 탄부를 이르는 말이고 자기 남편을 부르는 별명인것이다. 어떤 녀인은 탄부인 남편을 가리켜 《검은 돼지》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통용어로 쓰이고있었다.

나는 놀랐다. 어쩌면 탄가루를 뒤집어써서 새까맣게 되였다고 하여 탄부를 《검은 돼지》라고 부를수 있단말인가.

나는 그 녀인들이 례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무람하였다.

탄광이라는 침침한 고장이 녀인들의 고운 마음씨를 저렇게 거칠게 만들고 험악한 말씨를 낳게 하였다고 나는 제나름으로 생각하였다.

알고보니 자기 남편을 《돼지》로 부르는 그들의 말을 탓할 일도 아니였다. 그 말에는 로동자들을 상품처럼 다루는 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원망과 불평의 색조가 깃들어있었다.

인간이 상품화되다 못해 동물화되는 이남땅은 그대로 인간의 무덤이였다.

합숙주변에서 맛본 탄광의 첫 인상이 벌써 살인적이였다. 나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갱으로 향하였다.

아버지가 일하는 탄광막장이 보고싶었다. 아버지가 갱

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면 한나절은 실히 걸려야 했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고있는 탄부와 함께 슬그머니 갱속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하였다.

아침 7시 싸이렌(고동)소리가 울리자 꽁무니에 도시락을 찬 탄부들이 물밀듯이 흘러나와 탄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허름한 작업복을 얻어 입은 나도 탄부들의 흐름속에 끼여들었다.

탄부들의 등뒤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바래우는 안해들과 아이들의 서글픈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또 하루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원의 마디마디였다. 웃음으로 바래주어야 무사하게 돌아온다는 탄광주변의 고유한 풍습때문인지 그들의 얼굴에는 한가닥의 어설픈 웃음이 피여났다.

아침에 펄펄 뛰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시체로 변하여 실려나오는 끔찍한 참사의 지대이고보면 그럴만한 웃음의 의미도 각별하리라고 본다.

어느 기자가 탄광마을을 편력하고나서 탄부들을 《1초전인생》이라고 쓴것은 매우 실감있는 표현이였다. 말하자면 탄부와 광부들은 1초전에는 숨쉬는 인생이였지만 1초후에는 죽은 시체라는 뜻인것이다. 얼마나 적중한 비유인가.

사람을 삼켜버릴듯한 시꺼먼 갱입구가 입을 쩍 벌리고 탄부들을 기다리는듯싶었다. 갱입구에 이르니 등골이 오싹했다.

탄차에 실려 갱구로 들어가던 우리는 수직갱을 지나 수평갱도에 이르렀다. 수평갱도에서 다시 두더지굴같은 비좁은 굴속으로 기여들어갔다.

높이가 60센치메터 되나마나하기에 누워서 곡괭이로 석탄을 캐내야 했다. 환기시설도 없는 두더지굴은 금방 숨이 막힐듯 이름할수 없는 악취가 풍겼다. 게다가 지열

까지 30도를 오르내리 탄광막장은 그대로 지옥이였다. 땀방울에 석탄이 뒤범벅이 된 얼굴모습은 그대로《돼지》를 련상시켰다. 세상에 이런 험한 로동현장도 있을가, 탄광지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하느라면 탄부들은 두더지굴을 헤치고 갱밖으로 나올 힘조차 없다.

너무도 기력이 없어서 가스가 폭발하고 갱목이 무너진다고 고함을 쳐도 뛰지도 못할 형편이다.

게다가 사고나 없으면 얼마나 좋으랴, 련이은 사고때문에 갱은 죽음의 굴로 곡성이 그칠 날이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데서 일하는지 알수 없었다. 교대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나는 탄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우두커니 보았다.

내옆에서 일하는 50대의 한 탄부가 내가 일하러 갱에 들어온줄 알고 나더러 말하는것이였다.

《보아하니 자네는 이제 스물도 되나마나한 젊은이인것 같은데 뭣때문에 하필 이런 마굴에 와서 일하나?》

《…》

나는 걱정해주어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냈다.

《이봐 젊은이, 당장 다른곳으로 떠나가라구. 여기 있다간 석탄더미에 묻히고말어. 나같은거야 이제 이 탄굴에 명줄이 걸렸으니 어찌할수 없지만…

탄부들은 이 갱막장을 〈지옥 0번지〉라고 말하지.》

《지옥 0번지요?》

《그럼 〈지옥 0번지〉구말구. 탄부들이 일하는곳이야말로 〈지옥 0번지〉야.》

나는 마음속으로 그 끔찍스러운 말을 다시 되뇌였다.

(지옥 0번지!)

탄광막장을 일러《지옥 0번지》라고 하는것은 결코 놀라운 말은 아니였다. 울며 찾아왔다가 시체가 되여 나가

는 이 살인탄광이야말로 《지옥 0번지》였다.

숨막히는 흐리고 탁한 공기, 견디기 바쁜 높은 지열, 석탄먼지, 허리도 펼수 없는 비좁은 두더지굴, 곡괭이로 탄층을 허무는 중로동, 갱목이 무시로 부러져내리는 무시무시한 살인굴…

이것이야말로 《지옥 0번지》의 모습이고 살인풍경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항간에서는 탄광공사현장을 《죽음의 마굴》, 《죽음의 고역장》, 《도살장》, 《칠성판을 지고 드나드는 지옥행》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이라고 본다.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였다. 몇시간이래도 막장에서 목숨이 붙어있는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였다.

내가 고통스러운 몇시간을 막장에서 보내고 갱밖으로 방금 나왔을 때였다. 탄광에서는 갱이 무너졌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보니 아버지와 함께 새벽에 갱으로 들어간 탄부들이 막장수평갱이 무너지는바람에 40여명이 죽고 20여명은 중상을 입었다는것이다.

아니 《1초전인생》이라더니 몇시간전에 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탄속에 묻혀버리다니 가슴이 와들와들 떨리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가?)

예상을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의 운명이 나를 한없는 불안의 세계로 몰아넣는것이였다.

나는 갱속에 파묻혀 시체도 꺼내오지 못했다는 탄부들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 명단속에 다행히도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다.

탄광입구는 가족들의 곡성으로 수라장을 이루고있었다.

어떤 녀인은 해산직전의 무거운 몸을 겨우 이기면서

땅을 허비며 목놓아우는것이였다.

《아이구 당신이 가면 난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찌고… 아이구, 아이구…》

그 녀인의 애끊는 울음소리는 모여선 사람들의 마음을 더더욱 구슬프게 했다.

뒤늦게 달려온 여덟살난 소녀애는 시꺼먼 갱입구를 내려다보며 《아버지,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으시면 우린 뭘 먹고 사나. 동생들은 어떻게 살려요. 네, 아버지!》

여덟살에 벌써 어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이애는 광업소의 감독한테 달려가 울며 애걸하는것이였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오늘아침 집을 떠날 때 꼭 돌아온다고 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를 빨리 찾아주세요!》

그 소녀애의 절절한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죽은 탄부의 가족들은 시체라도 보게 해달라고 광업소당국에 진정하였다. 그런데 악착스럽게도 광업소측에서는 그처럼 큰 대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이 아닌가.

울음소리, 아우성소리, 고함소리… 이것은 분명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였다. 생지옥에서 잃는것은 인간의 가치였고 얻는것은 절망의 시체뿐이였다.

사망자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는것을 알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던 나는 중상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것을 알고 그만 주저앉고말았다.

아버지는 석탄무지에 깔려 허리가 상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서 구급치료를 받고있었다.

아들의 학비때문에 머나먼 탄광에 돈벌러 왔던 아버지, 꿈에도 그리운 아버지를 보러 왔던 나의 앞에는 중태에 빠진 아버지가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아버지! 영선이가 왔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드디여 넋을 가다듬고 실눈을 뜨는것이였다.

정다운 눈길로 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본 아버지는 반갑다는 표정을 눈가에 짓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아버지는 이렇게 나의 학비를 마련하려다가 불구가 되고말았던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로동현장을 《살인지대》라고도 부르고 《로동지옥》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것은 결코 과장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였다.

살인지대로 불리우는 로동현장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공원(로동자)의 운명은 불구나 시체로 통하고있었다.

상품화된 이남의 로동자들은 고대사회의 농노처럼 피땀을 빨리고있었으며 탄광주변의 버럭처럼 버림을 받고있었다.

일루의 희망 지게에 싣고

기둥처럼 믿고있던 아버지의 불구는 온 집안의 눈물이였고 아픔이였으며 절망이였다.

당장은 나의 학비보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더 급했다.

아버지의 병은 몇달사이에 더 악화되였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럴수밖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종신불구가 된다는 사형선고와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안은 무거운 시름과 한숨에 잠겼다.

나는 대학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연약한 누이동생이 병원청소부로 벌어오는 몇푼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대가로 얻은 돈은 생계유지비도 안되였다. 집안의 가장이 된 나의 마음은 향방없이 헤매이기만 하였다.

당장 일자리도 구할수 없었고 돈을 벌자니 밑천도 없었다.

나는 어느날 학급동무들의 도움이라도 받아볼가 하는 심산으로 학교에 나갔다.

학교정문에 들어서자 첫눈에 뜨인것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내붙인 게시판이였다.

나는 거기에 붙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단의 첫자리에 있어야 할 내 이름이 빠지지 않았는가. (벌써 대학에서 제적했단말인가, 아니면 혹시 교무당국에서 나의 이름을 루락시켰단 말인가?)

응당 제적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허전하였다.

대중없는 생각이 허공을 방황하고있을 때 순호군과 일수군이 뛰여오며 반겨맞는것이였다.

《영선이, 왜 학교에 안나왔어? 아버지 병이 더 하셔?》

나는 허구픈 웃음으로 대답하였다.

《영선이, 네 등록금을 순이씨가 물어주었어.》

《순이씨가?!》

《조운성교수가 딸의 말을 듣구 순이더러 영선이 등록금도 함께 물어주라고 일렀대. 수재형의 학생이 등록금을 물지 못해 얼마나 고민하겠냐고 하면서 도와주자고 말씀하셨대.》

옆에 서있던 박일수가 한마디 곁들었다.

《영선이 아버지가 불구가 되였다는 소식을 듣구 순이씨랑 얼마나 괴로와하는지 몰라. 학급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영선이 아버지의 약값을 보태주자고 모금운동도 발기하구말야.》

그처럼 동정해주는 벗들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모진 세상에는 악독한 사람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이처럼 고마운 마음씨를 지닌 인간들의 살뜰한 향기도 풍기지 않는가.

생각할수록 순이씨의 마음이 한없이 고마왔다. 조운성교수의 동정의 마음씨가 나의 가슴속에 영원한 은정의 호수로 설레이는것이였다.

등록금을 물었으니 얼마동안은 학교에 다닐수 있었다. 당장은 일자리도 없고 하여 나는 방과후에 삯짐이라도 져나르기로 결심하고 학교에 나왔다.

그러나 엄청난 학비를 우유처럼 짜내는 대학의 길은 날이 갈수록 더 가파로왔다.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일자리를 구하러 이리저리 헤매다녔으나 허사였다.

어느날 내가 친구들앞에서 지게나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차려놓았다는 강순호가 그 이튿날 나의 손목을 끌고 지게군들이 있는곳으로 데리고 갔다.

순호가 한 지게군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아저씨, 난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지게를 저희들에게 파셔요. 고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 지게군은 벌이가 되지 않아 화가 나던 참이라 8천원을 받고 얼른 지게를 내주었다.

순호가 말했다.

《이 돈은 우리 어머니가 번 돈이야. 달리 생각말어.

지게라도 가지고 학비에 보탬하렴.》
나는 눈뿌리가 따가왔다.
《고마와!》
눈물이 목에 걸려 이 말 한마디밖에 할수 없었다.
《지게에라도 희망을 담아 피우렴. 내가 널 생각해줄수 있는건 이게 다야. 우리 어머니두 구멍가게장사가 잘 안되여 고민을 하셔.
내 마음인줄 알구 지게를 쓰렴. 넌 머리가 비상해서 남들처럼 하루종일 책을 붙잡고 앉아있지 않아도 돼.》
《순호, 후에 신세를 꼭 갚겠어. 정말 고마와!》
나는 흐려지는 눈길을 애써 달래며 지게를 냉큼 짊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책가방을 메고다니던 두어깨에 고학의 첫 지게를 메는 순간 서글픈 생각이 가슴속에 확 치밀어올랐다.
나는 그길로 정거장엘 달려가 밤늦도록 지게를 졌다.
점심을 굶은데다 무거운 상자를 지게에 지고 다니자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상자를 두번 지고나니 해태국수 한그릇값이 생겼다. 배가 한없이 출출한 나의 눈길은 기름튀기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점으로 향하건만 참았다.
나는 돈을 안주머니에 꼬깃꼬깃 말아넣었다.
첫날 지게군수입이 괜찮았다. 해태국수 대여섯그릇값이 생겼다. 나는 몹시 기뻤다.
그러나 과외지게군벌이는 순전히 우연이였다. 운수가 트이는 날이면 괜찮았고 그렇지 못한 날이면 완전히 허탕이였다.
나는 정거장이나 뻐스정류소옆에 앉아 무거운 짐을 갖고다니는 행인들의 눈길을 하루종일 좇았다. 그들이 나를 불러주기를 안타깝게 기다렸다. 《행여나!》속에 하

루종일 살아가는 나어린 지게군인생의 조마조마한 나날이였다. 손님들도 힘깔이나 쓰는 장년 지게군들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나와 같이 체소한 애된 학생은 항상 외면당했다.

한푼도 손에 쥐여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어쩌다 몇푼이 생겨도 나는 주머니에 말아넣었다. 그래서 몇백원이나 되면 그길로 은행에 달려가서 정기저금에 들었다. 은행에서는 하잘나위없는 액수로 수고만 끼친다고 투덜거렸다. 그래도 나는 모든것을 참으며 한푼두푼 모았다. 늘 돈이 목에 걸려 울고계시는 어머니에게 쥐여주고싶었지만 참으며 돈을 모았다.

그것은 지게도 지면서 리야까(손수레)를 사서 아버지의 치료비와 나의 학비를 마련하려는 하나의 희망이 온몸을 불태웠기때문이다.

나는 어머니도 영옥이도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게 지게를 졌던것이다.

오늘을 참고 래일에 웃자. 이것이 나의 마음이였다. 그런 마음에서 나는 장만한 지게를 집에 가져오지 않고 친구네 집에 두고다녔다.

어느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누이동생이 나를 기다리다 못해 허름한 책상옆에서 몸을 꼬부리고 자고있었다.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를 뒤척이고있었고 어머니는 피곤에 지쳐 잠들고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가서 누이동생옆에 앉았다. 그의 머리말에는 종이장이 놓여있었다. 종이장을 집어든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종이장엔 지게가 큼직하게 그려져있지 않는가! 바로 내가 하루종일 지고다니는 그 지게가! 그렇다면 영옥이가 나의 지게를 보았단말인가. 지게에 짓눌려 사는 이 가냘픈 모습을 보았단말인가. 그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고계실가?

나는 종이장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 종이장엔 서러운 눈물자욱이 얼룩져있었다. 이 오빠가 불쌍해서 흘린 눈물일가.

책우엔 영옥이가 쓰다만 일기책이 펼쳐져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그 일기책을 펼치였다. 일기를 띠염띠염 읽어보았다.

4월 1일

오빠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어도 안가지고 간다. 밤엔 늦게 돌아온다.

무슨 일일가. 물어보고싶었으나 오빠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자.…

4월 9일

오늘도 오빠는 책가방을 메고 돌아왔다. 수업료를 물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난것이 분명한데 책가방은 왜 메고다닐가?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일가.

어머니는 오빠에게 무슨 사연인가 물어보고싶어도 무서운 대답이 나올가봐 입을 봉하고계시는것 같다.

4월 12일

순이라는 오빠네 학급 녀대생이 오빠의 수업료를 물어주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언니가 보고싶다. 그처럼 인정이 있는 녀대생도 이 세상에 있을가. 그것이 다 우리 오빠가 수재이기때문이야.

나도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고 대학교에서도 소문난 오빠의 학비를 보태주겠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가. 우리 오빠는 참 멋있는 오빠야. 우리 집의 희망이구 자랑이구. 난 오빠만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4월 13일

나는 오늘 오빠가 지게우에 책가방을 올려놓고 순호오빠네 집에 가서 벗어놓는것을 보았다.

오빠는 여태까지 지게를 지고다녔구나. 그런데두 말 한마디 안하고… 오빠는 정말 야속해! 지게를 지고 일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할가?! 오빠가 무거운 짐을 지고다니느라 얼마나 어깨가 아팠을가.

돈은 해서 뭘해! 오빠에게 달려가 가슴을 때리며 울고싶었으나 나는 못본척 발길을 돌리고말았다. 불쌍한 오빠! 나의 정다운 오빠! 오빠에게도 희망의 별이 비쳐들 날이 올가? 아, 그날이 막 그립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그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들키고말았구나.)

여하튼 동생의 마음이 고마왔다. 짤막한 몇줄의 일기에서 오빠를 생각하는 영옥이의 마음이 따스한 체온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강심을 먹고 지게를 졌다.

어느날 나는 비닐포장을 한 상자를 지고 길가를 힘겹게 걸어가고있었다. 이때 느닷없이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역전까지 급하게 져날라야 할 짐이고보니 그 창살처럼 내리꽂히는 비를 피할수가 없었다.

나의 온몸이 비에 함뿍 젖었다. 머리에서는 비물이 줄기져 흘러내렸다. 땀까지 비오듯 흘러내려 얼굴에 흐르는 물은 진정 비물인지, 땀물인지…

길가는 행인들은 모두 비를 긋느라 판자집처마밑으

로, 가게방안으로, 지하철역으로 밀려들어갔다.

유독 그 넓으나넓은 대통로로 비를 맞으며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어린 지게군, 나의 모습은 가난을 고발하는 고역의 상징이기도 했다.

바로 이때 나의 눈앞으로 막 달려오는 녀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그가 우산을 들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걸어가는 나의 머리에 씌워주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고마운 일이였다.

마음씨 고운 녀학생을 익혀두려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글쎄 나의 등록금이며 수업료를 물어준 순이가 아닌가.

나는 전류에 닿은 사람처럼 놀랐다. 어떻게 그 많은 인파속에서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달려왔단말인가.

《영선씨!》

첫마디부터 순이의 음성은 갈려있었다. 동정에 넘치는 순이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그의 애무의 눈길에 정다운 눈인사를 보냈다.

나를 위로하는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다시 울렸다.

《영선씨! 지게를 꼭 져야 하셔요? 우리 아버진 영선씨의 학비를 대주겠다구 여러번 말씀하셨어요. 지게를 지는 시간이면 책을 보세요. 우리 집이 그닥 넉넉치 못해도 영선씨를 도와드릴수 있대요. 이젠 부디 지게를 지지 말아주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나의 머리우에 우산을 씌워주느라고 자기는 비에 흠빡 젖어있었다.

《순이씨, 고마와. 그러나 나는 지게를 져야 해. 아버지두 앓고계시지…》

《제가 이제 방금 집엘 다녀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온 약을 아버님께 드리구 왔어요.》

《약을?!》

《네…》

《순이씨!》

나는 그 진정에 목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순이씨! 옷이 다 젖었어. 어서 여길 떠나줘.》

비가 어지간히 긋자 순이는 눈물에 젖은 눈길을 땅에 떨구고 어디론가 달려가고말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며칠후 나는 꼬깃꼬깃 저금한 돈으로 허줄한 리야까를 샀다.

이젠 가난의 계단을 톺아올라 《지게인생》으로부터 《리야까인생》으로 발돋움한셈이다.

나는 낮에는 리야까를 끌고다니면서 어지러운 짐을 날랐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순간도 식힐수 없는것이 학구에 대한 열망이였고 하루도 버릴수 없는것이 배움에 대한 꿈이였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공부는 하루 못해도 살수 있었지만 리야까는 하루만 끌지 않아도 살수 없는것이 우리 가정의 고민이고 불행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길가에 세워놓은 리야까가 미친듯이 달려가는 미군트럭에 치워 형체없이 사라졌던것이다.

애오라지 희망이 담겨있는 리야까가 박산이 났으니 이제 어떻게 먹고 살며 공부할 돈을 벌수 있단말인가. 나는 가슴을 치며 미군트럭을 저주하였으나 나의 목소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마냥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다.

리야까에 꿈을 담아 한발자국 한발자국 톺아오르던 가파로운 고학인생의 길은 이렇게 끝나고말았다.

국민학교학생을 맡아보는 가정교사의 길이라도 택하려하였으나 그런 길도 나에게는 막혀있었다. 대학교수, 현직교사들이 《특에이(A)급 과외선생님》으로 나타나 가정교사로 보수를 받고있는 형편에서 나같은 대학교 재학생

을 누가 가정교사로 채용하겠는가.
실력보다 간판을 더 중시하는 허영과 위선의 땅 이남에서 나같이 간판이 없는 애숭이에게 《과외선생님》이라는 행운의 열쇠가 차례질수는 없는것이다.
생각할수록 앞길이 캄캄하였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뢰우가 울면 이 괴로운 마음이 한결 안착될가.

채무인생

《빈익빈》이란 말은 우리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다.
아버지의 병은 입원치료비가 없어 진찰만 받는것도 부르는것이 값이였다.
대학교의 학년이 높아갈수록 잡부금은 턱없이 많았다.
빚은 새 빚을 부르고 그 빚이 새끼를 쳐서 빚돈이 엄청난 액수로 자라났다.
이남땅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채무국이라면 우리 집은 빚에 짓눌린 채무가정이였고 우리 식솔들은 채무인생이였다. 빚에 짓눌린 판자집은 통채로 허물어질듯싶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위태로와져도 손쓸 길이 없었다.
순이네의 신세도 한도가 있었다. 순이씨의 아버지는 명망높은 교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경향성이 좋지 못한 저항교수》라는 리유로 강의에 많이 나서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전처럼 강의료를 많이 타지 못하니 교수의 생활이 핍박해질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교수는 나의 학비에 늘 관심을 두고있는터였다. 인정미들이 고목

처럼 말라버린 이 세상에서 교수의 그 마음이 한없이 고맙고 소중하였다.

집안의 무거운 시름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느낀것은 나어린 동생 영옥이였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일수록 세속에 눈이 빨리 트고 셈이 빨리 든다는 말도 있지만 영옥이는 열여섯나이에 비해 《정신년령》이 빨리 자랐다.

병원청소부 일이란 어지럽고 힘겨운 일이였다.

몇푼 안되는 품삯을 벌기 위하여 그 어지럽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제 한번 고달프다는 말을 비치지 않던 영옥이가 요사이 눈에 뜨이게 수척해졌다.

얼굴이 해쓱해지고 밤이면 잠자리에서 자주 신음소리를 내면서 헛소리를 치군한다.

영옥이를 보는 어머니의 눈가에 근심이 더 짙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영옥이는 값이 약차한 아버지의 약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돈이 어데서 났을가?) 어머니도 나도 멍하니 영옥이를 쳐다보기만했다.

약을 사들고 들어온 영옥이는 변명이라도 하는듯 애써 웃어보이며 설명하는것이였다.

《로임에서 조금씩 떼내여 따로 모았던 돈으로 샀어요.》

영옥이의 말은 거짓이였다. 그처럼 정직하고 착한 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후두두 떨리였다.

《약방아저씨가 그러는데 허리를 쓰지 못하는데는 이 약이 제일 좋대요. 아버지병이 인차 나을거라고 했어요.》

약을 매만지며 어설프게 웃는 영옥이의 눈가에 애써 감추는 눈물이 맺히는것이였다.

나는 멍하니 영옥이를 쳐다보았다.

어쩐지 동생에게 예상외의 불행이 덮쳐드는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후 어느날 나는 순이씨의 얼핏 스치는 말가운데서 영옥이가 혈액은행에 다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 그랬댔구나.)

나의 입에서는 비명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참말 악의 세상이다. 어쩌면 그 가냘픈 몸에서 피와 땀을 깡그리 앗아낸단말인가!

나는 터지는 울분과 설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오빠의 학비를 보태주려는것이 영옥이의 희망 전부였다. 그것을 위하여 그 어린 몸을 서슴없이 험한 세상에 내여맡긴 동생이였다.

피와 땀과 어린 넋을 다 바쳐도 조들려만지는 집사정을 보다 못해 어느날 영옥이는 같이 일하는 청소부아주머니의 주선으로 《복덕방》할아버지한테로 찾아갔다.

《할아버지,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주셔요. 아버지의 병도 심해지고 오빠도 학비때문에 대학엘 제대로 나가지 못해요. 사정을 봐주셔요.》

《그래, 네 마음이 기특하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하구 의논해봤냐?》

《할아버지, 걱정마세요. 돈을 주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힘껏 하겠어요.》

《그래, 하긴 며칠전에 종로구에 있는 〈ㅈ〉회사사장네 집에서 어린 처녀로 시녀를 구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긴 했다만…》

《시녀요?!》

《그렇다. 선불로 3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1년만 일하면 된다지 않니. 그래도 네 마음에 드냐?》

《30만원!》

영옥이는 귀가 벌름해졌다. 30만원이면 아버지의 병도 고칠상싶었고 이 오빠의 1년 공납금도 물상싶었다.

영옥이는 더 따져볼 경황이 없이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말았다.

《복덕방》할아버지의 주선으로 영옥이는 수입이 낮은 《ㅅ》병원 청소부일을 그만두고 《ㅈ》회사 사장집에 시녀로 가게 된것이다. 누워 앓는 아버지와 학비때문에 지게를 지고다니는 나를 위해 영옥이의 그 어린 가슴속에 그렇듯 비장한 결심이 생긴것만 같았다.

영옥이가 선불로 받은 30만원의 돈을 어머니의 손에 쥐여주고 사장네집으로 떠나야 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울음바다속에 잠겼다.

충격의 전류에 닿은 나는 가슴을 치며 마음속으로 울고 또 울었다. 동생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듯 입술을 앙다물었지만 솟구치는 슬픔을 참을수 없어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영옥이의 손을 꼭 붙잡고 부뚜막에서 계속 흐느끼기만했다.

《영옥아, 엄마 말을 듣거라. 이 돈을 도로 갖다주어라. 이런 돈은 없이도 산다. 아무렴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 어쨌든 넌 이 엄마곁을 못떠난다. 참 기막혀라.

세상이 어쩜 이렇게 모질단말이냐. 어이구—》

어머니는 또다시 비탄과 절망으로 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의 걱정일랑 말어요. 사장네집에 가서 1년만 일하고 오겠어요. 복덕방할아버지도 그렇게 약속하셨나봐요.》

《안된다. 영옥아, 제발 이 어미말을 들어주렴.》

《아니예요. 어머니, 전 가야 해요.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해요. 오빠의 학비도 보태쓰고요. 정말이예요. 어머니, 제발 저의 말을 들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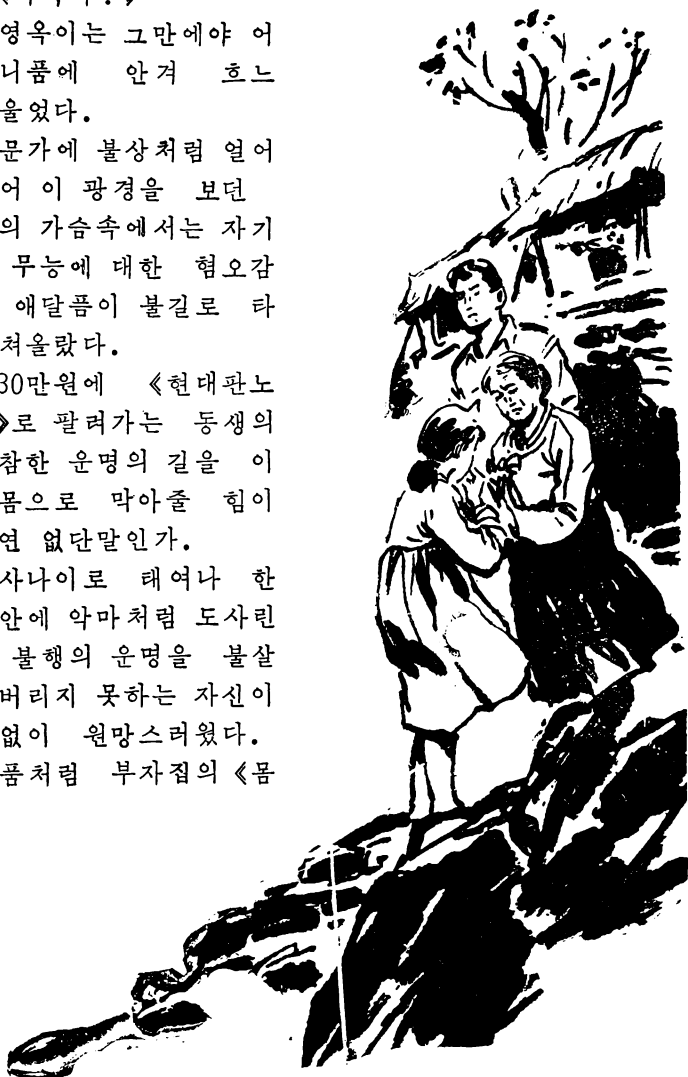
《영옥아—》

《어머니!》

영옥이는 그만에야 어머니품에 안겨 흐느껴울었다.

문가에 불상처럼 열어붙어 이 광경을 보던 나의 가슴속에서는 자기의 무능에 대한 혐오감과 애달픔이 불길로 타래쳐올랐다.

30만원에 《현대판노예》로 팔려가는 동생의 비참한 운명의 길을 이 한몸으로 막아줄 힘이 과연 없단말인가.

사나이로 태여나 한집안에 악마처럼 도사린 이 불행의 운명을 불살라버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상품처럼 부자집의 《몸

종》으로 팔려가는 귀여운 동생의 손목을 붙잡아 돌려세우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간을 두고 저 무심한 하늘도 비웃는듯싶었다.

나는 더 참다못해 판자집문밖으로 나와 마당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이윽고 영옥이는 어머니가 꾸동쳐준 자그마한 보짐을 들고 구슬픈 울음을 남기며 떠나고말았다. 세종문화회관을 지나 뻐스에 오른 영옥이는 자꾸만 흐려오는 눈굽을 찍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가까울수록 멀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가까운 서울장안으로 가건만 인제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를 기약없는 인생행로에 오른 영옥이였다.

창경원주변에 자리잡은《ㅈ》회사 사장네 집이건만 아득히 먼 수평선 저멀리로 떠나는것만 같았다.

뻐스가 멀어져갈수록 영옥이의 정겨운 얼굴이 나의 눈뿌리에 못견디게 잠겨들었다.

빈과 부는 공존하는가

세월은 흘렀다. 그 누가 시간은 준마같다고 했거니와 아무튼 세월은 화살처럼 달렸다.

그처럼 예쁜 동생, 나에게 그처럼 귀여운 동생 영옥이가 떠난지 몇달이 실히 지났다. 영옥이가 그리웠다.

비록 가난한 판자집에서 서럽게 자란 영옥이지만 어머니의 갸륵한 성미를 닮아서인지 착하기로 마을이나 학교에서 평판이 자자한 애였다.

그처럼 예쁘고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영옥이를 잃은 그 아픔때문에 어머니는 신경쇠약에 걸려 고생을 하고있었다.

영옥이에게 옷 한벌 입혀보내지 못한 그 괴로움이 가

슴속에서 줄곧 사라지지 않은 어머니였다. 열여섯살치고는 숙성해보이는 딸에게 갈아입을 옷 한벌 장만해보내려고 그렇게도 마음을 쓰시더니 끝내 그 뜻을 성사시킨 어머니였다.

나는 어느날 어머니가 지어준 눅거리 옷을 한벌 꾸둥쳐들고 영옥이를 찾아 집을 떠났다.

영옥이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앓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빚에 우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이 못난 오빠의 꿈을 위해 상품처럼 팔려간 영옥이고보면 그에 대한 그리움이란 정말 못견딜 정도였다. 시름겨운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달려나오며 반겨맞던 영옥이의 얼굴이 나의 뇌리속에서 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 만가지생각이 종잡을수 없는 예측을 낳으며 방황하였다.

(영옥이가 그새 얼마나 변모했을가? 억대의 부자집이니 새옷도 해입혔을지도 몰라. 아니면 몸종으로, 하녀로 울며 살가? 만일 구박을 받고살면 집으로 데려와야지…)

이런 무거운 생각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회사사장네 집에 이른 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키높은 담장을 둘러친 3층 양옥집은 첫 인상에 벌써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거대한 부로 부풀어오른 마굴》 같았다.

내가 사장네 집 대문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경비원을 만나 동생을 찾아온 딱한 사연을 말하였더니 인정미가 있는 그는 정원에 들어와서 잠시 기다리라고 이르는것이였다.

정원에 들어선 순간 나는 어느 동화의 세계에 나오는 왕궁의 정원을 보는것만 같았다.

넓다란 정원엔 남방식물들이 보란듯이 자라고있었다.

집권자들의 특혜를 입어 벼락부자가 된 신흥매판자본가의 집이니 모든것이 희한한것뿐이였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텔레비존장치를 첫 출입문과 2중, 3중, 4중 출입문마다에 죄다 설치하여 출입자들을 지켜보고 감시하였다. 정원과 복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텔레비존화면으로 지켜보고있었다. 만일 비상사건이 발생하여 집을 봉쇄할 필요가 제기되면 스위치장치로 철문이 자동적으로 잠긴다고 한다.

집을 지키는 각양한 모양의 개만 해도 네마리였고 집안을 드나들며 주인이나 주인 《마님》의 품에 기여들어 호의호식하는 개만 해도 세마리였다.

별관에는 수족관을 차려놓고 세계의 희귀한 물고기를 거의나 다 기른다고 하였다. 어떤 희귀한 금붕어는 50만원이상의 값을 뽐내고있다. 신형 자가용차만 해도 여섯대나 된다.

서울장안에서 열손가락안에 든다는 이 자본가의 재산은 얼마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별장만해도 부산 해운대에 하나 있고 인천 바다가에 또 하나가 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말고 큰 공장만 해도 영등포와 인천 등지에 여섯개나 가지고있다.

그의 재산이 있는 모든곳에 그를 다루는 수많은 관리원이 있고 회계원이 있으며 경비원이 있다.

서울 창경원옆에 있는 본집만해도 정원의 나무를 관리하는 원예사가 세명, 개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뛰놀게 하는 《개의 몸종》이 두명, 식모와 료리사가 네명, 청소부가 세명, 운전사가 일곱명, 경비원(출입을 단속하는 사람)이 다섯명, 가정교사가 두명, 전화수, 리발사, 안마사, 본처아이 두명과 첩년들이 낳은 아홉아이들을 제각기 시중하는 몸종들… 그 고용인원은 부지기수이다.

자본가의 생활은 사치와 방탕의 극치였다.

매 가족들이 하루에 갈아입는 옷만해도 하루평균 30여벌이라고 하니 그 옷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랴?!

돈이면 사람도 사고 지식도 사고 벼슬도 살수 있었다.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감투도 뒤집어쓸수 있다는 세상이였다.

그집 정원의 으리으리한 풍경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집의 추녀낮은 판자집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단간방, 기껏 잡아야 8평도 되나마나한 숨막히는 집이였다.

우리 네식구가 매끼 먹는것이란 라면 두봉지가 고작이였다.

회사사장네 집과 우리 집, 이 얼마나 부와 빈의 두 극단인가.

《부》에 《부》가 더해질수록 가난한 《빈》은 더없이 빈곤한 《빈》을 낳는다. 말하자면 《부익부》는 《빈익빈》을 동반하는것이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비만한 자본가의 집을 두루 살피면서 이처럼 호화스러운 부자놈들과 우리 집처럼 가난뱅이들이 한하늘아래서 같이 사는것이 정의인가고 스스로 묻기도 했다.

빈과 부는 공존하는가? 아직 나는 이 물음앞에서 똑바른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어쨌든 너무도 어마어마한 부의 현실을 목격하니 눈앞이 아찔하기만했다.

내가 자기를 잊고 돌부처처럼 우두커니 못박혀 두리를 살피는데 저쪽 별관곁에서 개의 시중을 드는 영옥이의 모습이 보였다.

영옥이는 멕시코종자인 《월트》라는 개의 등을 만져주는가 하면 개의 금발머리를 빗으로 빗겨주고있었다.

분명 영옥이는 《월트》의 시중을 드는 개의 《몸종》이였다. 개가 무한히 《즐겁고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개

의 《기분》을 맞춰주고 개의 《구미》에 맞게 최대한 잘 먹여 사장《마님》의 품에 안겨주는것이 영옥이의 일이였다.

한마디로 영옥이는 개의 《시녀》였다. 항차 인간이 짐승에게 종속되여 살아가는것이였다. 이것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최악의 인간비극이였다.

《부》가 《빈》을 무참하게 희롱하는것이였다.

사랑하는 영옥이가 자본가놈의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인격을 짓밟힌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피가 솟구쳐올랐다.

정원구석의 나무뒤에서 그 기막힌 광경을 바라보던 나의 뇌리속에는 당장 달려가 영옥이의 손목을 이끌고 집으로 데리고가고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슴을 쳤다.

나는 주먹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를 사려물었다. 죽기보다 괴로운 순간이였다.

바로 이때 경비원의 련락을 받고 영옥이가 나한테로 달려오는것이였다. 주인의 눈에 들킬가봐 두리를 살피며 슬그머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마음씨 착한 경비원이 영옥이가 하도 불쌍해서 나의 청을 들어준것만 같았다.

《오빠!》 영옥이는 나를 발견하자 첫마디에 울며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나의 손목을 잡은채 정원뒤골목 구석진곳으로 이끌고갔다.

나는 말문이 막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오빠,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의 병은 어떄요? 엄마는 앓지 않았나요? 빚은 다 물었나요?》

영옥이의 울음섞인 물음이 련이어 총알같이 튀여나왔다.

《…》

《오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장집의 담장밑에서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남매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영옥이는 여전히 쿨쩍쿨쩍 울고있었다. 남의 집 몸종노릇을 하느라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의 해쓱한 얼굴을 바라볼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설음의 눈물이 분수처럼 뿜어올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영옥이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오빠, 제가 오빠를 너무 걱정시켰나봐요. 일없어요. 몇달 더 일해보겠어요.

오빠. 걱정마세요. 집만 무사하다면 전 괜찮어요.》

어린 동생이 오히려 이 오빠를 위로하려 무진 애를 쓰는것이였다. 자기의 희생으로 부모의 고민을 가시고 오빠의 부담을 덜려는 갸륵한 동생의 마음이 나를 더더욱 괴롭혔다.

나는 그에게 하고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싶은것도 부지기수였으나 천만근 무거운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동생은 괴로와하는 이 오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는 심산으로 눈물을 거두고 애써 웃어보였다. 그것이 더 가슴에 맺히는것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들려준 옷꾸레미를 영옥이에게 내밀었다.

《옛다. 어머니가 지어 보낸거란다. 다 큰 처녀애가 남의 집에서 갈아입을 옷 한벌이래도 갖고있어야 할게 아니냐. 어서 받으려무나.》

《오빠, 이건 필요없어요. 주인집에서는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인지 갈아입을 옷을 한가지씩 주었어요. 일한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예요. 이 옷은 도로 가지고가서 어머니옷으로 바꿔드리세요.》

이때 개가 웡—웡— 짖었다. 자기 《하인》을 부르는 소리같았다. 영옥이가 흠칫 놀랐다.

《오빠, 전 가봐야 해요. 후에 한번 꼭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어서 가거라.》

나는 동생의 손에 다짜고짜로 옷을 쥐여주고 담장곁을 떠나 대문으로 향하였다.

별관쪽으로 달려가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영옥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우리의 상봉은 이렇게 끝났다.

그후 영옥이는 브라질이민으로 떠나갔다. 3년을 기한으로…

그는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병도 고쳐드리자고, 이 오빠의 학비도 장만하겠다고 눈물겨운 편지를 써놓고 먼 이역땅으로 떠나고 말았다.

3. 감옥의 땅

하늘이 푸른줄 모르고 강물이 맑은줄 모르는 숨막히는 땅 언제나 내 몸에 감겨드는 쇠사슬의 차거움에서 순간이나마 해방되여본적이 있었는가. 온 민중이 죄수이고 온 땅이 철창없는 감옥인 이남땅에 언제면 따스한 자유의 해볕이 비쳐들가?

《10대조심병》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남땅이 한갖 공포의 땅이였다.

황금과 권세를 틀어쥐고있는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상시적인 죄인》으로 되는것이 이남땅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불공평하고 숨막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소한 불평이나 딴 생각을 품어도 파쑈의 철쇄에 묶이게 된다.

언젠가 나는 광화문거리의 한 골목길에서 리야까를 세워놓고 행인들의 눈길을 좇고있다가 저녁무렵 순호네 집으로 책을 구하러 갔다.

그런데 순호네 집 맞은켠 자그마한 집에 사복경찰들이 나타나 웬 중년사나이에게 까박을 붙이며 반말투의 위협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순호에게 무슨 일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맞은편 《동아일보》기자네 집에 경찰이 나타나 기사

를 놓고 시비를 걸면서 당장 붙잡아갈 기세를 보인다는것이였다.

순호와 나는 그 기자네 집 담벽으로 바싹 다가가 그들의 대화에 귀를 주었다.

경찰이 기자에게 말아쥐였던 《동아일보》신문 한장을 획 던지는것이였다.

기자는 인격을 모욕당한듯이 얼굴을 붉히며 땅에 떨어진 그 신문을 쥐고 읽었다.

갑자기 기자의 얼굴에 조소가 피여나더니 말하는것이였다.

《아하, 당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사가 이〈10대조심병〉이란거요?》

《그렇소.》

《난 그 기사가 괜찮게 된줄 아는데…》

《잘됐기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어나지 않소. 기자나리.》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야유조로 상대방을 모욕할 셈이요?》

《모욕? 흥 기자나리, 이야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어서 갑시다.》

《어디로?》

《우리 경찰서로—》

《왜 가자는거요?》

《짐작이 가지 않아?》

경찰은 반말투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기자도 만만찮았다.

《〈10대조심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데 나는 사실대로 썼을따름이요.》

《기자나리. 누가 사실대로 쓰라고 했는가?》

《기자가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거짓말을 쓰란 말이요? 기자는 량심을 가지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것이 본연의 사명이란 말이요.》

《본연의 사명? 아따. 이 기자나리 봐라…》

경찰은 윽벼르는것이였다.

기자 역시 도고히 맞섰다.

《종로거리에 모여선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한것이 당신의 비위에 왜 걸리는가 말이요? 민심인데…》

《민심?》

경찰은 기자의 손에서 신문을 도로 홱 뺏으며 읽어내려갔다.

《〈요즘 세상에서는 모든것을 조심해야 한다. 요즘 항간에서는 10대조심병이 류행병으로 되였다.〉 자, 보라, 이것이 정부를 비난한것이 아닌가 말이야!》

경찰의 목소리는 거의나 위협조였다.

기자도 자기의 존엄을 쉽사리 짓밟히려 하지 않았다.

《조심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 아니요!》

《잔말 말고 가자!》

《참 언론의 붓을 꺾으려 드는가?》

기자도 성이 났다.

《그따위 붓은 아예 토막쳐 분질러놔야 한다.》

《당신은 자기의 발언을 책임져야 하오.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있다는 이 사실말이요.》

《언론의 자유? 무슨 놈의 자유! 야 가자—감방이 당신을 기다린다.》

경찰은 다짜고짜로 기자를 경찰백차에 마구 밀어넣고 사라졌다.

주위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내밸았다.

《그 기자의 말대로 조심히 살아가야 할 세상이군.》
《무지막지한 깡패들이야…》
《기자가 보고 들은대로 글을 썼다고 저렇게 잡아가두니 우리 백성들의 목숨이야 더 말해 뭘 하겠나.》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민주인사들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는것은 또 어떻구.》
《교회당에 마구 뛰여들어 한창 설교를 하는 신부나 주교를 묶어가는 판국이니 세상에 이런 몽둥이정치가 어데 있단말인고.》
파쑈의 세상에 대한 민중들의 울분이 연거퍼 튀여나왔다.
나의 가슴에도 울분이 서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나는 방금 그 기자가 썼다는 기사를 읽고싶은 호기심이 생겨 순호네 집에서 《동아일보》를 뒤져보았다. 참말 거기엔 길지 않은 《10대조심병》이란 기사가 실려있었다.
나는 기사를 얼른 내리읽었다.
《…종로거리는 번잡한 거리라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천태만상의 차림을 한 실업자들이 쭈그리고앉아있었다. 어떤 실업자는 지게다리에 몸을 의지하여 앉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펼쳐놓고 고객들을 부르고있었다. 리야까군들도 많이 모였다.
저녁황혼이 깃들무렵이였다.
한 지게군이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에서는 모든것을 조심해야 하거든. 3대조심이란 말이 공연히 떠도는줄 아나?〉
요즘 항간에서는 〈3대조심〉을 〈안명보신〉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는것이였다.
〈3대조심?〉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다른 지게군이 묻는 말이

였다.

〈그렇지. 몸조심, 입조심, 귀조심이란 말이네.〉

듣고보니 3대조심이란 매우 희한한 말이였다. 말하자면 업무상 필요한 사람외에는 되도록 사람 만나는것을 피하는것이 〈몸조심〉이고 알든모르든간에 극히 필요한 말외에는 입을 놀리지 않는것이 〈입조심〉이고 궁금하고 답답해도 구태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것이 〈귀조심〉이라는것이다.

골동품을 팔고있는 인테리풍의 한 중년사나이가 그들의 말속에 끼여들었다.

〈요즘 3대조심이 아니라 5대조심을 해야 해요.〉

〈5대조심?〉

〈그럼요. 눈조심, 코조심까지 해야 하니깐요.

눈조심이란 뭔고 하니 청와대나 중앙청이나 경찰청이나 대법원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무리 흥미가 있고 괄불견이여도 되도록 보지 않는게 좋다는 뜻에서 생긴 조심병입니다.〉

〈그럼 코조심이란건 또 뭐예요?〉

한 젊은이가 끼여들며 물어보는것이였다.

중년사나이는 지체없이 대답하였다.

〈코조심이란 아무리 이남땅에서 썩은 정치냄새가 풍기고 지독하게 퇴폐한 냄새가 코를 찔러도 절대로 말지 않는것이 좋다는 조심병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안녕을 도모하고 육신이 성해있다는거지요.〉

사람들속에서는 파쑈광란을 야유하는 통쾌한 웃음이 터지였다.

도수높은 안경을 코허리에 건 사람이 또 한마디 곁들었다.

〈그러니까 조심병은 5대조심이라는것이 적당할것 갈군요.〉

중년사나이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지. 이남땅에서는 모든것을 조심해야 하니까 이름붙이기에 달렸지. 자, 내가 몇가지 더 꼽을테니 들어봐요.

제 발로 마음대로 걸어다녀서는 안되는 발조심, 제 팔로 내키는대로 휘저어서는 안되는 팔조심, 어디 그뿐인가.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뇌조심, 하늘이 푸르고 높다고 맑은 공기를 제 힘껏 마시며 숨을 쉬여서는 안된다는 페조심, 허기가 져도 배고프다는 말을 아니하고 먹고싶어도 참아야 하는 위조심…〉

안경쟁이가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그러고보니 이남땅은 조심땅이고 이남민중은 조심인생이구만요. 하하하…〉

저마다 한마디씩 주어섬기며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매몰하는 파쑈독재의 세상을 신랄하게 풍자하고있었다.

그러고보니 〈3대조심〉, 〈5대조심〉, 〈7대조심〉, 〈10대조심〉 등 〈조심병〉은 끝이 없었다.

과연 10대조심병이 발진티브스나 콜레라처럼 온 이남땅을 전염시키는 이 숨막히는 인간의 무덤, 인권의 페허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루인들 무사히 살수 있겠는가.》

기사를 읽고난 나는 순호를 마주보며 말했다.

《비슷하게 썼는데, 속씨원해…》

《야유조로 멋있게 썼어.》

그 기자의 글이 꼭 맞았다.

사실상 이 땅은 무시무시했다. 경찰의 눈에 나거나 밀정의 감시망속에 걸려든 사람들은 언제나 무사하지 못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하루밤 자고나면 많은 사람들이

종적없이 없어지군했다. 그래서 신문에는 매일같이 《실종사건》이 대서특필로 보도되지 않는가.

경찰에서 밤새 감쪽같이 묶어간 일, 골목에 숨어있던 정보원이나 밀정놈들이 불의에 랍치하여 없애치운 일…

어쨌든 나는 거의 매일과 같이 이런 현상을 목격했다. 하루밤을 무사히 넘기기가 매우 힘겨운 세상이였다.

때문에 하루밤을 자고나면 서로 묻는 인사가 류행어처럼 통용되고있다.

《밤새 무사한가?》

새 아침을 맞이하여 서로 주고받는 이 첫 인사속에는 밤새 건강한가 하는 뜻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라 지난밤에 붙잡혀 죽거나 불구가 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는가 하는 의미가 담겨져있는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였다.

도처에 밀정이 있어서 어디서나 마음놓고 말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누가 밀정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친구들사이에도 밀정, 부모자식간에도 밀정이 있다는 판국이다. 학교로부터 식당, 공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숨쉬는곳에는 어디라없이 밀정의 검은 마수가 그림자처럼 뒤따라다닌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밀정속에서 매일 살다나니 매일, 매 시각 《몸조심》하는 조심병에 걸리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속에는 자연히 서로 경계하고 배척하는 공기가 감돌고 사람들사이에는 《담》이 생긴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담》은 나날이 높아가는것이다.

이런 《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생기는것이 아니라 집과 집사이에도 높이 쌓아지는것이다.

서울만 보아도 세월이 흐를수록 집사이의 담장들이 높

아지는데 도적을 막는데도 그 리유가 있겠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정서가 그토록 높은 담장을 낳은것이라고 본다.

공포의 땅, 철쇄의 풍토, 《10대조심병》이 류행병으로 돌고있는 이 땅에 언제면 자유의 노을이 비낄가.

이 파쑈의 세상에서는 누구나 한순간도 마음놓고살수 없다. 참말로 이남땅에서는 모든 민중이 한쪽 다리를 감옥에 넣고살고있는것이다.

밤의 철창

밤은 확실히 괴로운 시각이다.

서울의 밤은 돈이 많고 권세를 휘두르는 특권족들에게는 방탕과 쾌락과 유흥으로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지만 시름속에 살아가는 빈민들에게는 고달픈 시간이다.

하루종일 고된 일에 지친 몸을 한순간 누워달래는것이 밤이지만 그 고달픈 어둠속에 살아갈 만가지 근심이 쌓여 더더욱 괴로운 시각이 또한 밤이다.

낮은 낮대로 고달프고 밤은 밤대로 괴로운데는 어찌할 길이 없다.

나는 고학의 길에 몸을 맡긴 그때로부터 그 언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밤을 보낸적이 없다.

학비를 물어야 할 걱정, 아버지를 돌봐야 할 시름, 가정의 그 모든 고민을 안고 남몰래 울고있는 어머니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생각… 이런 정신적 고통속에 깊어가는 밤이였고 그 고민속에 밝아오는 새벽이였다.

이런 고통스러운 밤에 집단단속에까지 걸려들어 즉결

심판을 받을 때는 정말 괴로운것이다.

경찰들은 임의의 순간, 임의의 장소에서 불의에 수색을 하고 검속을 하였다.

어느날 밤, 나는 빈 지게를 지고 태평로 덕수궁옆에 있는 세실극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웬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집으로 가던참이라 나는 그런 광경에 눈길을 팔고싶지 않았지만 하도 이상한 일이 생겼는가싶어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가까이에 이르고보니 희한한 삐라가 벽돌집 바람벽에 나붙어있었다.

삐라에는 처단해야 할 특권족들의 이름이 주런이 적혀 있었다.

그속에는 《파쑈독재자》로 민중의 지탄을 받는 권력형의 인물도 올라있었고 수십억대의 부정축재를 한 악질 매판자본가들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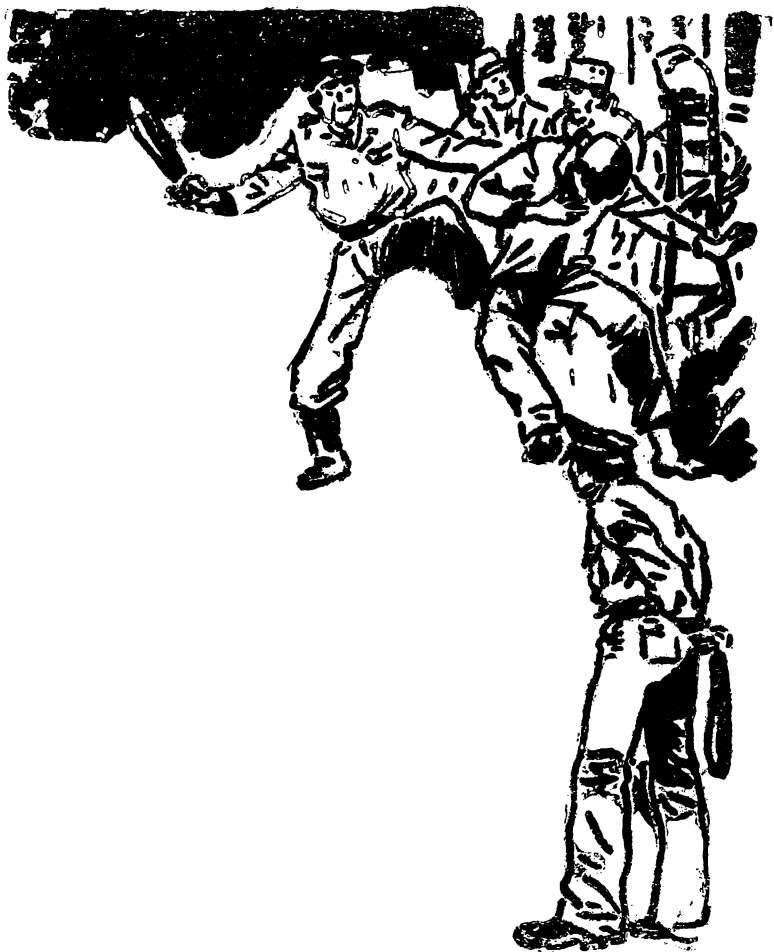
《처단할 놈이 왜 그뿐이냐. 이놈도 징벌을 받아야 할 놈이지.》라고 하면서 웬 중년사나이가 자기가 살고있는 종로구 경찰서장의 이름을 연필로 적어넣는것이였다.

그바람에 너도나도 한마디 한다는식으로 저마다 달려들어 자기가 제일 미워하고 저주하는 악질적인 정객들, 군장성들, 법관들, 회사 사장들의 이름을 되는대로 마구 써내려갈겼다.

흥미있는 광경이였다.

바람벽으로 다가가서 락서식으로 쓴 수많은 이름을 읽어보니 더러 알 놈도 있었지만 태반이 모를 놈팽이들의 이름들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락서현장의 울분은 고조되였고 모여드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불어났다.

바로 이때 곤봉을 든 경찰들이 달려들더니 다짜고짜로

모여선 사람들을 마구 때리며 붙잡아가는것이였다. 그바람에 나같이 애꿎게 구경하던 지게군들까지 경찰들에게 붙잡혀 곁에 있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서에 이르니 집단단속에 걸려든 사람이 부지기수

였다.

알고보니 오늘밤은 서울치안국의 《갑호지령》으로 집단단속을 하는 날이였다. 매일, 매 시각 단속하고 수색하고 구속하는 무시무시한 땅에서 《갑호지령》까지 떨어졌으니 단속에 걸려든 사람들이 경찰서복도까지 비좁도록 들어찰수밖에 없었다.

엎친데덮친다고 갑호단속의 밤에 락서사건을 구경한 《죄》까지 지었으니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였다.

나역시 밤새도록 취조를 당했다. 경관은 나더러 왜 그런 락서를 보았는가고 따져물었다.

《이제 방금 말하지 않았나요. 난요, 남들이 모여서 보기에 봤어요.》

나는 어처구니 없다는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임마. 눈이란 아무거나 마구 보라구 만든건줄 아냐?》

《그럼 눈으로 보지 않구 소경처럼 감구 다니겠어요?!》

《야 임마, 골라가면서 보라는거다.》

《눈앞에 있는걸 어떻게 골라가면서 보라는거예요? 차라리 소경이 되는 편이 낫지 않나요.》

나는 악에 받쳐 볼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야 이 자식, 주둥아리가 살았다. 갈비대순서를 바꿔놓아야 알겠냐!》

이런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무쇠같은 경찰놈의 주먹이 나의 옆구리에 박혔다.

《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모로 쓰러졌다. 숨이 금방 넘어가는것만 같았다. 한참만에 그놈은 나의 머리카락을 쥐여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겨우 걸상에 도로 앉았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일이였다. 내가 잘못한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제눈으로 보았는데 그게 무슨 죄란말인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량심대로 말하였다.

주먹으로 박고 발길로 차고 곤봉으로 때리는 경관놈의 무지한 취조는 끝날줄 몰랐다.

어쩐지 오직 보았다는 《죄》로 뭇매봉변을 당한것이 분하기 그지없었다.

경찰서에는 《보호실》이라는곳이 있었다. 즉결심판을 받기 위한 즉심피의자(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혐의자)들의 대기실이기도 하다.

내가 경찰서《보호실》에 이렇게 끌려간것은 7월이였다. 화끈거리는 열기는 자정을 넘어도 식을줄 몰랐다.

모두가 비지땀을 흘리며 지친 얼굴들이다. 아예 웃도리는 다 벗어붙이고 양말도 구석에 처박혀있었다.

퀴퀴한 땀냄새, 술냄새, 《보호실》안의 한쪽 구석의 변기에서 나오는 악취… 이 모든것이 범벅이 되여 다른 어떤 냄새와도 구별할수 없는 《보호실》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윽고 또 한패의 취객들과 통행금지위반자들이 경찰과 방범대원에게 끌려 들어왔다.

수백명이 대합실같이 큰 방에 모여 즉결심판을 기다리고있었다. 《보호실》에는 각이한 표정을 지은 인간만물상이 비껴있었다. 살창문밖에는 당직경관이 졸고있었다.

경찰서《보호실》에도 사람이 숨쉬는 한 제나름의 생활이 흐르고있었다. 남녀구별도 없이 마구 드러눕고 무질서하게 엉뎅이를 맞붙이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주정군이 있는가 하면 잠이나 실컷 자보자는 심산으로 천정이 무너지도록 코를 골아대는 배심좋은 사람들도 있었다.

날이 밝았다. 밤새에 《빽》이 돈뭉치를 안겨주는 사람

들은 모두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빽》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만 즉결심판을 받게 되였다. 이윽고 경찰서장이 나오더니 지난밤 경찰서에 걸려든《죄수》들에 대한《즉결심판》을 벌리는것이였다.

수많은《죄인》들의 각이한 《죄명》을 부른 다음 매 사람들에게 류치장구류처분과 벌금형을 내리는것이였다. 어떤 사람은 류치장구류처분 열흘, 벌금 2만원이라는 선고를 받고있었다.

《김영선, 류치장구류 2일, 벌금 3,000원.》

이것이 나에게 내린《즉결심판》의 형량이였다. 글쎄 류치장에 갇혀있는것이야 이틀이 아니라 한달도 있을수 있다. 먹을것이 없는 사람은 당장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 우정 범죄를 지어 류치장에 들어오기까지 하지 않는가. 류치장구류는 그런대로 참을수 있지만 단돈 몇잎이 없어 대학교의 육성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에 어떻게 벌금을 물수 있겠는가.

나는《즉결심판》이 끝난 다음 그 자리에서 《상소》하였다. 무슨 죄가 있다고 벌금까지 물겠는가고 진정을 들이댔다.

《에익 자식, 무슨 반발이야, 네놈을 다시 심판한다. 불복하는 죄로 류치장구류 3일, 벌금 5,000원.》

물어뜯는듯한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였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한마디라도 진정을 하면 벌금이 늘어나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가슴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이건 완전히 도적놈의 세상이다. 깡패세상이다. 백성들의 팔다리를 결박하고 입을 봉하더니 나중엔 눈까

지 뺏으려드는 이 악착한 세상을 어떻게 내버려둘수 있느냐, 저 하늘의 벼락이 어디서 잠자고있느냐. 벼락을 쳐라. 이놈의 세상이 콱 허물어지게 벼락이나 쳐라!)
《즉결심판장》에서 나와 류치장으로 들어간 나는 사흘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많은것을 생각했다. 가슴을 쥐여뜯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내옆에 앉았던 한 녀인은 남자들 틈바구니속에서 밤새도록 집에 두고 온 어린 딸생각을 하며 즉결심판을 기다렸다.
그 녀인은 하오 3시무렵 《과료》 1천원을 선고받았다. 《과료》를 물 돈마저 없이 구류당하게 된 그 녀인은 울상이였다. 마침 옆에서 그 녀인을 딱하게 생각하던 30살가량의 김모씨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1천원을 꿔주어 구류직전에 풀려나왔던것이다. 그는 사회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다시 넘겨받고 집으로 총총히 갔다.
대체로 《경범피의자》(경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에 따라 5천원이하의 벌금과 《과료》를 물거나 구류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 경찰서에서는 15초에 한건씩 《즉결심판》을 하였다.
《즉결심판》대상은 하루에 평균 100명이고 지어 200명선으로 육박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고개에 이르는 동안 26번이나 경찰서에 묶여 즉결심판을 받은 기록을 보유하고있다고 한다.
나는 류치장에서 사흘밤을 보내고 벌금을 사흘안으로 물겠다는 시말서에 지장을 찍고야 겨우 풀려나올수 있었다.
참으로 기막힌 몽둥이세상이였다. 이 파쑈의 세상에서는 누구나 무사히 걸어다닐수도 없고 제멋대로 볼수도 없

다. 장님으르, 벙어리로, 앉은뱅이로 살것을 강박하는 이 파쑈의 지옥,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이 악귀같은 무덤을 가리켜《파쑈의 동토대》라고 칭하는것이 옳을것이다.
진정 인간의 아름다운 모든것들이 파쑈의 한파에 얼어 죽는《동토대》였다.

시체제작소

하늘은 푸르러도 무사히 살수 없고 땅은 넓어도 자유롭게 살아갈수 없는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서 이남땅이 손꼽힐것이다.
이렇다 할 리유가 없이 경찰놈들의 매를 맞고 저렇다 할 구실이 없이 류치장이나 교도소의 세례를 당하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고문정치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이남땅에서는 감옥이나 중앙정보부(지금은 안전기획부)의 밀실을 가리켜 일명《피의 목욕탕》또는《시체제작소》라고 부르고있다.
일본의 한 지성인이 이남땅을 다녀보고《호텔의 료정에서 술이 넘쳐흐를 때 남산지하실(중앙정보부 고문실을 칭하는 말)에서는 피가 흐른다.》고 말한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서울의 어느 한 시인이 이러한 사회풍토를 두고 읊은 시구절이 생각난다.

땅도 폐허
사람도 폐인

피의 땅엔

불구자가 흐른다
시체가 딩군다…

시구절은 짧지만 의미는 깊다. 《자유의 동토대》로 세상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남조선에서는 몽둥이 파쑈정치가 판을 치는 까닭에 뜻있는 사람들과 무고한 주민들이 감옥과 고문실에서 불구자가 되고 시체로 변하고만다.

나는 어느날 고등학교시절의 담임교사가 그리워 최교사의 집을 찾은적이 있었다.

내가 8월의 무더위가 수그러질 석양무렵 마포구에 있는 그의 판자집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은 음침한 방에 누워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달려나오다가 그 자리에 꺼꾸러졌다. 불구가 되다싶이한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았던것이다.

《선생님!》

나는 옛 담임선생한테로 달려가 그를 부축여주었다. 선생님은 나를 붙안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영선군이 보고싶었어!》

부둥켜안은채 등을 정답게 쓰다듬어주던 최교사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참다운 스승과 제자의 뜨거운 포옹이였다. 나역시 눈굽이 따가왔다.

건장한 체구를 가진 최선생이 그처럼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병약한 몸이 된것이 가슴아팠다.

《선생님, 다리는 왜 잘 쓰지 못하십니까?》

《내 다리?! 몽둥이세상이 나에게 준 〈혜택〉이란다. 이 세상에선 목숨이 붙어있는것도 기적이야. 누가 나더러 이남땅을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하라면 나는 〈곤봉과 철쇄〉를 그릴 생각이다.》

파쑈의 세상을 저주하는듯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증오의 빛이 비끼고있었다. 최선생은 나의 손목을 잡고 방문가에 앉으며 사연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로 말하면 몇해전 고등학교 교단에서 헤그밀사사건의 력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배워준것이 《죄》가 되여 철쇄에 묶여갔던 최선생이였다.

그는 《남산지하실》과 비슷한 한 지하취조실에 묶여가 심문을 당했던것이다.

《그날 나는 취조실에 들어가자바람으로 곤봉세례를 당했어. 취조하기전에 공포를 주는 살인귀들의 〈첫인사〉였지.》

그는 괴로운 기색을 애써 감추며 기막힌 사연의 첫머리를 떼는것이였다. 최선생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은 다음에 취조를 당했다.

《야, 여기가 어딘줄 알지? 4호지하실이야. 〈죽을 사〉자말이다. 살아들어왔다가 죽어가는곳 몰라?》

첫마디부터 피비린내를 풍기는 말이였다. 그 교형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고문실의 장구류만 보아도 무시무시하였다. 초현대적 고문가구로부터 중세기적인 고문형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최악의 고통을 줄수 있는 모든 살인기구들이 갖추어져있었다.

방구석에 놓여있는 쇠그물통에는 아프리카산인듯한 고부라며 인도의 독사같은 뱀들이 독기어린 혀를 날름거리고있었고 무쇠를 달구는 야장간 비슷한 기구도 있었다. 또 다른쪽 쇠그물속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켰다 껐다 하는 전기불에 사나운 모습을 희끗희끗 드러내고있었다. 바로 최선생이 뭇매를 맞고 잃었던 정신을 차려 눈을 뜨니 이런 광경이 벌어졌다는것이다. 첫순간 너무 끔찍스러워 본능적으로 눈을 감아버렸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야만인의 고문실이였다.

옆방에서는 고문을 당하는 녀인의 애처로운 비명이 련이어 들렸다. 그리고 녀인을 심문하기 위해 붙들어온 어린애들의 울음소리 또한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얼핏 보아도 완전한 지옥이였다. 보통사람은 이런 살인풍경속에서 한시간을 견디여낼상싶지 않았다.

이윽고 교형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 처음부터 공손히 대답하라.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데 왜 미국을 고발하는 강의를 학생들앞에서 했어. 엉?》

이번엔 말이 끝나자마자 드센 주먹이 최선생의 가슴에 그대로 박히는것이였다. 그만 급소에 불의의 타격을 받은 그는 또다시 꺼꾸러졌다가 한참만에 다시 제자리에 일어나앉았다. 최선생은 점잖게 한마디 대꾸했다.

《이보시오. 왜 때리기부터 합니까? 신사적으로 말로 합시다.》

《야, 이 자식 주둥아리가 살았다. 여기가 뭐 고등학교 교실인줄 아냐. 임마, 여긴 불구제작소야.》

불구제작소?! 그 말이 옳은것 같았다. 누구나 이 마굴에 하루만 갇혀있어도 틀림없이 불구가 되였을것이다. 위스키라는 독한 술이나 환각제 같은 약물을 병채로 들이마신 난쟁이같은 교형리가 이발을 사려물고 앙칼지게 물었다.

《자, 말해. 왜 미국을 욕했어?》

《나는 학생들에게 력사를 가르쳤을따름이요.》

《력사?》

《그렇소. 렬사 리준씨가 남긴 유언이야 엄연한 력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최선생은 되도록 사리를 따져가며 대답하려 하였다.

《임마, 력사란게 뭐냐. 있는 사실이라고 다 력사냐. 미국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있는데 뭐 미국을 믿다가

망한다고?! 너 암만 봐도 불온분자가 틀림없어!》
드디여 《난쟁이》의 진짜 고문이 시작되였다.
그자는 미국에다 특별주문하여 만들었다는 신형 수갑전기곤봉으로 팔과 다리, 온몸을 괴롭혔다. 교형리는 아픔을 견디다 못해 고함을 지르는 최선생의 오른쪽 무르팍관절을 불에 달군 시뻘건 쇠로 지지였다.
전기곤봉이라는 초현대적인 고문방법과 불로 지지는 전근대적인 고문방법을 동시에 들이대였다.
학교교단에서 강의나 하던 최선생은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다리가 떨어져나가는듯한 급성적인 고통에 또다시 정신을 잃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교형리가 쓰러진 최선생의 얼굴에다 찬물을 끼얹고 소생시키는 주사를 놓아도 최선생은 일어날줄 몰랐다.
지하감방에 들것으로 실려온지 이틀만에야 최선생은 눈을 떴다. 사람의 힘은 무서웠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문을 당하고도 목숨이 붙어있는것이 사람의 의지인듯싶었다.
지하감방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던 최선생은 오른쪽 다리를 내딛다가 그만 풀썩 주저앉았다. 강한 타격을 받은 오른쪽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전혀 혈맥이 통하지 않았다.
(불구자란 이렇게 생기는가? 불구제작소란 말이 과연 옳은 말이다.)
최선생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다리를 끌며 겨우 철창가로 기여가 복도를 내다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복도로는 시체가 들것에 끊임없이 실려나가고있었다. 맞은편 방에는 채 죽지 않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틀거리고있었다. 이제 몇초나 몇분이 지나면 저 사람들도 더는 꿈틀거리지 않는 시체로 변하

고말것이다.

(어쩌면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둘수 있을가. 저 사람들도 나처럼 고문을 받고 저 모양이 되였겠지. 이 땅은 생사람을 죽이는 지옥이며 무덤이다!)

최선생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제 와서 최선생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란 거의 없었다. 오직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감방벽에 기대여 뙤창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한 장년이 최선생의 마음을 헤아린듯 한마디 건네는것이였다.

《이보시오. 그리 놀라울것은 못됩니다. 이 지하실은 시체제작소입니다. 이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시체로 변할지 누가 알겠소. 정의는 철창속에 갇혀 시체로 변하고 불의는 명동거리에서 활개치는 서울…아니 온 이남땅 전체가 시체제작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은 한없이 빛났다.…

최선생은 피곤한듯 땅바닥에 비스듬히 누웠다.

《영선군, 내 다리는 그때부터 이렇게 잘 쓰지 못하게 됐네.》

그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어둠이 깃들었다. 추녀낮은 판자집의 지붕밑으로 덧없이 고달프고 쓸쓸한 밤의 장막이 깃들기 시작했다.

최선생의 말을 듣는 나의 머리속에는 여기서 보고 저기서 들은 수많은 사실들이 필림처럼 풀려나갔다.

사람들은 폭력정치, 고문정치, 살인정치의 압제하에서 매일같이 불구로, 페인으로, 시체로 변하고있었다.

생각할수록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증오의 화염이 타올랐다.

4. 조선이 살게 하라

남이 사는 내 나라, 이남땅은 남의 얼이 광란하고 남의 풍조가 지배하는 이방지대라 할가. 정녕 미국의 마지막 주나 일본의 조계지가 이남땅이 아니더냐. 내 땅에서 남을 추방하고 내가 사는 내 나라를 가꿔 조선이 살게 하자. 잃었던 나를 찾고 나를 살게 하자.

《남이 사는 내 나라》

《남이 사는 내 나라》, 이 말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세계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는 이남땅에 대한 상징적인 문구라 하겠다.

아무튼 땅은 분명 우리가 태줄을 묻은 조국땅이지만 땅우엔 남이 살고있다.

사실상 이남땅은 조선이면서 조선이 보이지 않는《내나라》이다.

우리는 분명 여기서 태여나 민족의 즙액으로 양육되였고 조국의 자양으로 성숙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할나위없이 뜨거운 정열을 모두어 우리의 대지를 받들어왔고 이를데없이 순결한 사랑을 다듬어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형제를 아껴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것이면서 우리것이 되지 못하는 이방지대를 본다. 낯익은것이면서 낯설수밖에 없는 서글픔을 안고 산다.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은 남이 사는 내 나라의 축도라 하겠다.

리태원동을 거닐 때마다 나의 머리속에는 《이남땅에 미국이 살고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속에 이남이 살고있다.》는 생각이 들군한다.

나는 어느날 순이와 함께 룡산구 리태원동으로 갔던 일이 있다. 방과후 《유엔군 기지촌》에 가서 밤일거리를 구할 심산으로 떠났는데 순이가 나의 뒤를 따라나섰던 것이다. 순이양은 그나름대로의 일이 있었다. 사촌언니네 집이 그주변에 있었기때문에 그곳에 들리려 하였던 것이다.

나는 늘 보아온곳이지만 다시 보아도 리태원동은 남들이 말하듯이 《서울속의 아메리카》였다.

어떤 사람들이 서울속에 있는 아메리카라 하여 《서메리카》라고 리태원동을 부르던 별명이 생각났다. 그만큼 아메리카가 서울속에 버젓이 뿌리내린것이다.

세계의 각종 인종이 몰려있고 녀자와 양주(서양술)와 딸라가 많다고 하여 일명 《삼다동》으로도 불리우는 고장이다.

처음으로 리태원동을 찾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번 찾아온 나역시 그 입구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이국의 풍물에 접하게 되였다. 간판의 대부분을 영어로 갈겨 썼고 길가에 붐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기때문이다.

리태원동은 유엔군 기지촌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 그때로부터 《이남속의 국제도시》로 그 이름이 바뀌여졌다.

여기에는 민족적 수모와 인종차별도 많고 미국식 우월감이 지배하고있었다. 미국식으로 번개처럼 만난 《풋사랑》도 있고 우뢰처럼 헤여지는 《영리별》도 있으며 유흥시설에 넘치는 각종 술과 음탕한 노래도 많다.

무더위가 들이닥친 7월이였다. 내가 순이양과 함께 점

표가 7백여개나 있다는 리태원1동을 지나 파출소옆에 위치한 힐톤양복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내옆에서 걷던 순이가 비명삼아 한마디 말하는것이였다.

《아이 끔찍해.》

앞을 보니 라체족들이 거리에 붐비고있었다.

나의 두눈도 휘둥그래졌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인》들과 각종 외국인들이 남자녀자를 가리지 않고 《빤쯔》(아래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니고있었다. 물론 그속에는 외국풍을 좋아하는 특권층들도 많이 끼여있었다.

《빤쯔》바람으로 나다니는 남녀젊은이들, 반라체로 걸어다니는 20대의 녀자들…

한마디로 무더위에 《간편한 여름복장》을 입고다니는 이 거리, 각종 살색의 육체가 반라체로 흐르는 이 거리는 그대로 하나의 번잡한 해수욕장을 방불케 하였다.

바다물이 있고 모래불만 있다면 이것은 나무랄데 없는 해수욕장의 풍경이였다.

우리옆을 지나가던 한 60대의 로파가 이 꼴불견의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말하는것이였다.

《에익— 끔찍도 해라. 저렇게 큰거리를 벌거벗고 다니다니, 양놈들이란게 워낙 례의범절이 없는 종자들이란 말이야. 쯧쯧—》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그 로파의 말은 어쩐지 나와 순이양의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물론 리태원동은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기때문에 서양 문물과 류행이 가장 빨리 스며드는곳이고 특히 의복의 류행바람이 가장 먼저 불기 시작하는곳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놈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어지러운 풍조를 퍼뜨릴 필요야 어데 있는가 하는 못마땅한 생각이 나의 가슴속에서도 고개를 드는것이였다.

헤밀톤호텔옆의 가방가게인 《페코》라는 가게앞을 지날때였다.

가방을 사러 온 미군병정놈이 새노란 눈알을 굴리며 가게방주인과 흥정을 하고있었다.

《이것 얼마인가?》

말투만 들어봐도 거만한 미군놈이였다.

《2만원인데요.》

《2만원? 비싸다. 나한테 8천원에 팔라. 내 위안부색시한테 갖다주겠다.》

《아니 8천원이라니요?! 본전도 안되는 값인데요. 다른 상점엘 가보세요.》

가게방주인은 어이가 없어 입맛을 다시면서 미군병정놈을 외면하였다.

《나는 미국사람이다. 당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눅게 팔아야 한다.》

주인이 기가 막힌 눈길로 그놈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을 때 그자는 진렬장에 있는 가방을 냉큼 들고 가게방을 나가버리는것이였다. 흥정하던 그 돈도 내지 않고…

과연 날도적이였다. 대낮에 가게방에 들려 남의 물건을 강짜로 뺏아가는 미국놈을 나는 오래도록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국놈들이 생도적놈들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새삼스럽다.

분통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가게방주인은 사라지는 미국놈의 뒤등에 침을 콱 내뱉으며 되알지게 내쏘는것이였다.

《망할자식, 내 저놈들의 꼴을 보지 않으면 열끼를 굶어도 살이 지겠다. 흥! 더럽다. 퉤!》

가게방주인의 성은 극점에로 부풀어올랐다. 남의 나라땅을 강점하고 로략질과 행패질을 일삼는 미국놈들에 대한 그의 분노는 가슴속깊이에서 소용돌이치고있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였다. 4시경이 되자 미제 8군의 미군놈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길거리 가게에 미군들로 성시를 이룰 때는 미제 8군의 군무가 끝나는 오후 4시이후부터 밤 10시였다.

휴무일인 금, 토, 일요일이면 가게는 온통 미군 등 외국인들로 붐비는것이였다.

미군놈들이 가게에 들려 제마음에 드는 물건을 눅거리로 사거나 다짜고짜로 빼앗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한다.

남의 나라에 와서 제마음대로 날치는 미군의 행패는 리태원동에서 그칠날이 없었다.

저녁해가 뉘엿뉘엿 지려는 석양녘이 되자 리태원동의 거리는 미군의 방탕으로 몸부림치듯하였다.

리태원동은 환락가중의 환락가라고들 말한다. 료정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디스코클럽도 있으며 심지어 밤 12시만 넘으면 라체춤을 추는 유흥업소들도 많다. 그뿐이랴. 돈만 있으면 모든 환락을 맛볼수 있는 극비 료정까지도 있는곳이다.

소방소를 중심으로 한 사방 500메터의 밤거리는 별천지다. 외국인 전용 특수관광업소 7개와 20여개의 디스코클럽, 2개의 나이트클럽, 30여개소의 소형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탕한 음악소리와 소란을 피우며 춤추는 고함소리로 거리는 마치 악몽속에 잠긴듯하다.

이곳을 가리켜 사람들은 《미국의 텍사스》라고 부르고 있다.

밤거리의 《텍사스골목》은 한마디로 녀자시장이 번성하다는것이다.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아야 하는 운명을 강요당한 꽃나이 녀성만도 400명을 헤아린다니 정말 몸서리치는 일이였다.

밤이 괴로운 장막을 펼치자 내가 순이양과 함께 그의

사촌언니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랜올아프리클럽옆을 지날 때였다.

키가 구척같은 미군놈이 옆을 지나가는 순이양을 붙잡고 희롱하는것이였다.

《어이—녀학생.》

순이양은 그놈을 힐끔 쳐다보고는 내결에 바싹 붙어 그대로 총총히 걸어가려고 하였다.

《어이, 처녀!》

거나하게 취한 미군놈이 독한 술냄새를 풍기며 순이양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나하고 저기 가자… 나한테 돈이 많아. 오늘밤은 기분이 좋아. 60딸라까지 주겠다.》

미군놈은 이렇게 말하며 순이양의 손목을 쥐려고 하였다.

《비켜요. 난 양공주가 안예요!》

순이양은 우악스럽게 거머쥐려는 미군의 털손을 뿌리치며 총알같이 쏘아붙였다.

《야, 이남 녀자는 다 내것이야!》

미군놈은 이렇게 말하면서 순이를 다짜고짜로 골목으로 끌어가려 하였다.

순이는 그놈의 뺨을 철썩 때렸다.

나는 순이양과 오래동안 한학급에서 배워왔지만 오늘처럼 록록치 않은 처녀인줄은 몰랐다.

미군병정놈은 뺨을 어루만지더니 야수처럼 씨근거리며 달려들려 하였다.

나는 더 참을수 없었다. 나는 미군놈에게 비호같이 날아들어 그놈의 면상을 단방에 쳐서 넘어뜨렸다.

지나가던 길손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며 그놈 꼴 좋게 너부러졌다고 비웃었다. 주위에 모여선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미군병정놈을 저주하였다.

달려오던 경찰차가 모여선 길손들앞에 급정거하더니 순경 두놈이 사람들을 헤집고 너부러진 미군병정놈에게 다가왔다.

나와 순이양은 시비를 가릴 경향도 없이 얼른 자리를 떴다. 시비를 따져야 미국놈들 손발이 된 순경놈들이 이남민중의 편에 있을리 만무하였다.

뒤에서는 순경이 지르는 고함소리와 사연을 알려주는 길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군병정이 길가던 처녀를 희롱했거든요.》

《미군이 잘못했으니 응당한거죠 뭐.》

길손들의 반항에 성이 치밀어오른 순경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닥쳐, 양공주로 알았겠지. 그런데 질서를 위반하고 미군을 욕보인놈이 어느 자식이냐?》

자기의 땅, 자기의 사람들앞에서 양놈을 위하여 악을 쓰는 순경놈의 꼴을 놓고 사람들은 저주와 분노를 터뜨렸다.

《순경도 양놈의 씨알머리냐?》

《민중을 등지고 외인을 사모하는 순경, 자살이나 하지.》

《량심에 부끄럽지 않냐? 버리지만도 못한 놈아.》

나와 순이는 그들의 격분한 목소리를 등뒤에 남기면서 가던 걸음을 재촉했다. 이 땅이 뉘 땅인데 양놈들이 저렇게 활개치며 역적의 무리들이 그에 장단까지 쳐주는가. 생각할수록 울분의 불길이 가슴을 불태웠다.

기지촌주변에서

내 민족의 얼이 맺혀있고 내 겨레의 꿈이 깃든 땅,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 고향의 정든 시내물이 변함없이 흐르는곳에 징박은 미군놈들이 활보하고있다.

4만명의 미군들이 이남땅 사방에 널려있으니 이남땅은 온통 미군놈들의 군화에 짓밟혀있고 국토전체가 미군의 기지촌으로 돼버렸다.

기지촌주변에는 곳곳에 《조선사람 통행금지》라고 쓴 표말까지 꽂혀있다.

남의 나라 땅에 주인처럼 도사린 미군은 어데나 갈수 있지만 분명히 제 땅이면서 미군의 노예처럼 취급받는 우리 겨레들은 그 어데나 마음대로 다닐수 없는것이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촌에서 며칠동안 잡일을 하면 10만원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방학기간에 난생처음으로 동두천행 뻐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40㎞지점에 있는 동두천은 시외뻐스로 한시간이면 닿을수 있다. 확실히 여기는 《이남의 이색지대》이다. 행길가의 건축양식부터가 마치 서부영화를 찍기 위해 세워놓은 쎄트촬영현장에 들어선 기분이다.

모든 간판들이 빠짐없이 영어일색이다. 미군병정들의 옆에 붙어 거리를 활보하는 녀인들의 옷차림은 손색없는 서양아가씨 차림이였다.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 짙어가는것이였다. 정말 조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동두천입구의 중심거리인 생연동, 보산동에는 24개의 클럽이 있어 미군을 부르고있다. 모든것이 미군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나는 보산동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먼 친척벌 되는 아저씨의 주선으로 《헐리우드》라는 간판을 건 나이트클럽(사교장을 겸한 야간 음식점)에서 얼음 나르는 일을 하였다.

기지촌이란 도적부재, 주권부재의 이방지대이다.

기지촌에 사는 이남사람들도 모두 양놈들의 그 야성적 광란에 봉사하는 시중군노릇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공주》들의 경우인데 그것도 매일과 같이 주먹에 맞고 발길에 채우면서 그 시중을 드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닌가.

눈만 뜨면 어제밤 어느 누가 지.아이(미제륙군병사)의

주먹에 맞아 앞이가 부러졌다느니, 또 누가 재크나이프(단도)에 찔렸다느니 하는 소리만 들린다.

살인사건도 드문히 발생한다.

어느날 밤 11시경에 나는 다음날에 써야 할 얼음을 가지러 클럽을 나섰다.

이 시간이면 기지촌의 소란한 하루가 죄많은 잠에 곯아떨어지는 때이다. 손수레를 끌고 레코드상점을 지나 《오아시스클럽》 옆골목에 들어섰는데 클럽과 양복점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있었다.

호기심이 동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은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한 녀인이 지. 아이놈의 발길에 채우고 짓밟히우며 비명을 지르고있었다.

옷이 찢겨 상반신이 거의다 드러난 몰골이지만 첫눈에 《양공주》라는것이 대뜸 알렸다.

원래 나는 《양공주》들을 여간 멸시하지 않았다.

웃음과 몸을 파는 그따위것들이 무슨 인간인가, 하필 양놈들을 상대로 그짓할게 뭐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이라는것도 모르는 추물들이라고.

기지촌에 온 다음에도 그녀들에 대한 멸시와 혐오감은 가셔지지 않았지만 미군병정놈들의 만행을 볼 때마다 놈들에 대한 의분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이 불쌍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긴 학대받는 약자를 동정해주는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사실 그녀도 우리와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동족이 분명할진대 그가 미군놈에게 이처럼 비참하게 유린당한 사태앞에서 민족적 의분을 참을길 없었다.

알고보니 미군병정 제임스라는 놈이 자기의 온리(미군놈에게 팔려와 계약기일까지 그놈에게 봉사하는 첩)를 데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버리자 그녀를 판돈처럼 노름판에 태워놓았다는것이였다. 그놈들의 눈

앤 온리란 말하는 노리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놈의 기상천외의 제의에 상대편놈은 미친듯이 눈알을 번뜩이며 환성을 질렀고 구경군놈들은 박수를 쳤다.

제임스놈은 노름판에서 지게 되자 꺼리낌없이 그녀에게 지껄였다.

《미스 리. 당신 나와의 계약기일 아직 두달 남아있지. 그 기일동안 존에게 봉사하시오.》

제임스놈의 지껄임이 끝나기도전에 미군병정놈들이 이놈저놈 달려들어 그녀를 욕보이려 했다.

새파랗게 질린 그녀의 얼굴에서 경련이 일고 꽉 깨문 입술에선 금시 피가 터질것 같더니 갑자기 번개같이 손을 놀려 미군병정놈들의 뺨을 후려치며 웨쳤다.

《더럽다. 개같은 놈들.》

매섭고 날카로운 그 무엇이 그녀의 억양과 표정과 손끝에서 확확 쏟아져나왔다.

미군병정놈들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출입문으로 막 나가고있었다.

미군병정놈들은 먹이를 놓친 짐승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좇아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군병정놈들이 좇아오는것을 보자 그녀는 쏜살같이 뛰기 시작하였다. 하이힐(굽이 높은 녀자구두)이 벗어져나가는것도 모르고 뛰였으나 녀자의 주력이란 한계가 있었다. 얼마 못가서 그는 짐승같은 놈들의 손에 걸려들었던것이다.

그녀가 너무 급해 《사람살려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미군놈은 식인종의 이발을 드러내며 사정없이 치고 차고하였다.

동료놈들의 부추김을 받아 기세가 오른 제임스놈이 재크나이프를 뽑아들었다.

자기의 온리를 찌를 태세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중년사나이가 참다 못해 놈의 팔목을 콱 잡고 들이대였다.

《당신들, 미군은 이남민의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런 짓도 보호인가?》

《정치인들 하는 그런 말 미군 몰라. 당신 저리 비키시오.》

제임스놈은 완력으로 그를 떠밀어버리려 하였다.

사태가 이쯤 되고보니 행인들속에서 그놈들을 저주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젊은이들이 팔을 걷고 미군병정놈들을 에워쌌다.

놈들은 행인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것을 제꺽 눈치챘던지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더니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것이였다.

《양공주》들의 자률조직인 《민들레회》회장이 몇몇 녀인들을 데리고 달려와 쓰러진채 흐느끼는 그녀를 부축하고 사라졌다.

그녀는 겨우 발걸음을 옮겨놓으면서도 울부짖는것이였다.

《우리도 사람이예요. 수치도 알고…》

울음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빰으론 두줄기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아, 저것은 《양공주》라는 오명속에 몸부림치는 한 녀인의 피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양공주》들의 존재가 미군놈들의 야수적 환락의 대상으로 변한 이 땅의 슬픈 현실의 일면을 보여준 슬프고 치욕스러운 사태앞에서 나의 지성은 몸부림쳤다.

(내 차라리 학비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할지언정 미군놈들의 노린내나는 딸라와 그놈들한테 몸을 팔아 번 《양공주》들의 부스럭돈을 노리고 하는 이 노릇 그만두

자. 도로 가자! …)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길로 기지촌을 떠나고말았다.

민족의 자존심이 어혈진 이 미군기지촌을 떠나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무서운 말이 튀여나왔다.

(이 땅의 주인은 미군이다. 이것은 가슴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식민지이기때문에 미국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모든것을 좌우지하는것이고 식민지통치자들이기때문에 미군놈들이 이 땅의 남녀로소를 함부로 죽이고도 여전히 휘파람을 불며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것이다.

숱한 우리 녀인들이 그처럼 처참하게 릉욕당하고 짓밟히는것도 대학인들과 민주인사들이 그처럼 쓰러지며 피흘리며 절규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것도 다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

침통한 심정으로 이 거리를 지나는 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하였다.

식민지백성이라는 우리의 욕된 운명이 해소될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일본인이 뽐내는 거리

저 한강은 내 강이고 북악산도 우리 산이지만 이남땅엔 조선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통행금지구역이 많다.

미군군사기지와 함께 《일본인사회》가 바로 그런곳이다.

서울속에 《일본인사회》가 있고 그것이 점차 구역을 넓혀 온 이남땅을 왜색으로 물들이고있다.

《일본인사회》로 알려진 거리, 서울에서도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사는곳은 이촌동 한강 아빠트촌과 한남동 외인촌일대이다.

《일본인사회》로 불리우는 이 거리로 나는 여러번 다녔다. 지게를 지고 가기도 했고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기도 했다.

《스쿨 빼스》가 길목을 돌아들면 한무리로 몰켜서서 재잘거리는 깔끔한 차림의 일본 어린이들이 옆에 지켜서있는 엄마들에게 손을 흔들며 빼스쪽으로 내닫는다.

《까아쨩》, 《각꼬…》 하는 일본말들이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서울의 몇몇 주택가에서 아침마다 볼수 있는 이 풍경은 서울에 자리잡아가고있는 《일본인사회》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런 일본사람들은 그 수가 점차 늘면서 단순한 《이방인 집단》으로부터 조직된 《외국인사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사회》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퍼뜨리는 왜색왜풍이 우리 생활에서 독버섯처럼 새롭게 돋아나 겨레의 순진한 넋을 괴롭히고있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거리를 뽐내며 활보한다.

한때 일본 호색동물들에게 《가깝고도 먼》 이남이 이젠 《가깝고도 싼 관광지》로 변한것일가.

나는 어느해 가을 서울에서 《고고층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표호텔에서 일본인관광객의 손짐을 운반한 일이 있었다. 호텔안으로 들어간 나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왜색이 가장 심하게 범람하는곳이 유흥가라는것을 알고있지만 표호텔에서는 일본류행가 소리가 몸부림치듯 흘러나왔다.

호텔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는 가수들이 일본말 가사로 일본노래를 부르고있었다.

《항구여,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도오꾜.》

노래가 끝날무렵이면 일본가수가 부르는 일본류행가가 록음테프속에서 연거퍼 울려나왔다.

후지야마 이찌로가 불렀던 흘러간 노래《언덕을 넘어서》, 《아카시아에 보슬비 내리는 밤》, 《녀자의 마음》…

호텔에서 일하는 한 로무자는 복도에서 나를 만나더니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이남땅에 망조가 들었어요. 조선노래보다 일본노래가 귀에 더 익숙하다고 저렇게 일본류행가만 부르거든요.

사람들의 취미도 점점 변해가요. 일본노래가 안나오면 흥을 내지 않는 형편이예요.

일부 몰지각한 손님중에는 함께 일본노래를 합창하면서 대화까지 일본말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여.》

그는 민족의 넋이 병들고있다고 가슴아프게 말하는것이였다.

한참만에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일본곡이 다시 연주될 때 한 무리의 일본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지나치게 흥에 겨워》를 합창하면서 일본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일본관광객들이 서로 어울려 몸을 비트는 춤을 추자 무대우에 있는 가수는 더욱 목청을 돋구었다. 장내는 완전히 일본풍으로 변했다.

일본에서 온 동포손님들이 그 꼴사나운 광경을 보다가 눈길을 돌리고말았다.

이때 느닷없이 한 30대의 젊은이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버럭 고함을 쳤다.

《야! 여기가 일본인줄 알아! 당장 그만두지 못할가!!》

민족과 애국의 피가 끓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청년의 고함소리는 장내의 어지러운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눈정기가 이글거리는 그 청년에게로 쏠렸다.

거만한 일본기업가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기분으로 청년에게로 한걸음 다가서며 언짢게 말했다.

《우리가 일본노래를 부르는데 당신 무슨 상관인가?》

청년은 일본땅이 아닌 이 땅에서 왜 제세상처럼 놀아대는가고 쏘아붙였다.

그들은 서로 옥신각신 싱갱이질을 하였다.

안경을 코허리에 얹은 일본기업가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노기등등하여 말하였다.

《야— 너따위 서울거지는 당장 나가라. 여기는 조선이지만 우리 일본이나 다름없단말이다.》

《뭐? 일본?》

《그렇다. 이남은 우리 일본의 돈으로 살아가는 가난뱅이 〈나라〉란말이다.》

《뭐, 가난뱅이? 그래 우리는 못산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같은 일본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일본을 숙적으로 생각하고있단말이야.》

반말투의 말싸움이 노기를 띠며 고조되자 성이 난 일본기업가는 고함을 질렀다.

《어이, 뽀이, 이 거지놈을 당장 내좇으라. 기분이 나쁘다.》

《뭐, 거지?》

《너희들은 거지란말이다. 너네 〈나라〉가 우리 일본한테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아? 야,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너네 〈나라〉회사가 6개나 문을 닫는단말이야.》

《당신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옛날 일본식민지때만큼

여기고 그렇게 으시대는가?》

《너네가 36년동안 우리 식민지로 있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뭣이?》

청년은 그만 격노한듯 숨결이 높아졌다. 당장이라도 그놈의 상판대기에 주먹을 안기고싶은 심정이였다.

그 서리발같은 청년의 눈길에 겁을 먹은 일본기업가놈은 《어이, 뽀이! 뽀이!》하면서 연거퍼 불렀다.

뽀이가 달려오고 한참만에 비밀경찰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가는것이였다.

청년이 저 일본자본가놈에게 혼쌀을 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자 비밀경찰은 그 청년의 뺨을 철썩 때리며《일본나리들을 노엽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지시야. 알았는가?》고 고함을 쳤다.

청년은 비밀경찰의 손에 잡혀 어디론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말았다.

반일감정으로 온몸을 불태우던 그 청년의 애국정기가 마음에 들었다. 나역시 참을수 없었다.

그 청년의 말대로 이 땅이 뉘 땅인데 일본놈들이 제세상처럼 날치며 뽐내는것인가.

그 광경을 보느라니 일장기가 백화점매대에까지 버젓이 나붓기던 일이 생각났다.

어느날 나는 동창들과 같이 서울《신세계백화점》 4층에 차려놓은《특설수입상품매대》를 본 일이 있다.

매대앞에 이른 나의 두눈은 휘둥그래졌다. 일본이 제2차대전때 사용한 가미까제 특공대비행기, 일본병정, 일본땅크, 장갑차와 오토바이, 자동차 등 일본제완구가 진렬되여 멋모르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끌고있었다.

이러한 일본제완구에는 일장기까지 버젓이 꽂혀있고 그 값도 엄청나게 비쌌다.

《신세계백화점》에 붐비던 고객들이 그 매대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있다가 한마디씩 던지고 떠나는 것이였다.

《서울장안에 어떻게 일본제국주의의 망령까지 되살아나 매대우에 버젓이 앉아있는가. 그것도 항차 일장기까지 꽂고말이지…》

《일본이 되살아나 들어오는데 당국자들은 뭣들을 하고 누워자고 있는지…》

그들의 불평은 저도 모르게 튀여나왔다.

일제의 망령이 깃든 그런 완구가 어린이들의《교재용》으로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모두들 고개를 기우뚱거리였다.

생각할수록 민족적인 의분이 숯불처럼 타올랐다.

《자기를 찾자》

대학가에는 저항의식이 자라났다.

높아가는 학년과 더불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성만이 자라는것이 아니였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진리에 대한 사수의 정신이 강렬해졌다.

악에 찬 현실에 대한 거부반응이 세차게 일어나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으려는 강한 열망이 불탔다.

참에 열렬하고 거짓에 과감한 20대의 열혈학도들의 마음은 하나로 통하고있었다. 자유와 진리는 그들에게 목숨보다 귀중한 좌우명이였다.

《ㄱ》대학교의 지붕밑에서도 그런 사회정의가 불타고있었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는 하나의 신조가 자유와

정의의 광장에로 행진하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결속시키는것이였다. 데모가 자주 일어나고 삐라사건이 련이어 생기는 대학교에는 숱한 밀정들이 욱실거렸고 사복경찰들이 도처에 박혀있었다. 학생들속에서는 학생들의 틈에 낀 밀정을 《사꾸라》라고 불렀고 학생복을 입은 《사꾸라》를 색출하여 고립시키는데 눈을 밝혔다.

어느날 정외과 2학년에서는 대학교 캠퍼스에서《민족의 주체성과 이남현실》이란 론제를 걸고 토론을 한것이 학교당국에 알려져 학생들이 봉변을 당한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창들은 그 《사꾸라》가 창설이라는것을 밝혀내고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학급동창들이 학교정문으로 나가는 창설이를 에워싸고 한마디씩 주어박았다.

《야, 이 돈버러지야, 밀고한 값으로 얼마나 받아먹었어?》

《네놈에게 내 툭 털어놓고 말한다. 네가 여러명의 학생들을 잡아먹은것만큼 네놈의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줄 알어.》

《어제밤에 너희네 집에 위협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나야. 너네 집으로 위협편지를 보낸것두 나구.》

《너네 아버지가 신흥재단이면 이 세상이 다 네것인줄 아니? 양놈이나 쪽발이놈한테나 붙어먹다가 앎에나 걸려보지.》

《보아하니 백정질이 네 기질인것 같은데 또 동창들을 잡아보지.》

《너는 네 스스로 네 젊음을 모독한 대학가의 고아가 되고말았어. 어찌 네가 가슴에 우리 대학교의 빠찌를 달고 저 태양아래 활보할수 있느냐?》

《야, 퀴퀴한 향수냄새를 그만 피우고 다녀, 괄사납다. 네가 뭐 순이씨를 미국류학이라는 낚시에 걸어 한번

유혹해보자구 했지?》

《팔불견이다. 냉큼 사라져라. 이 석두야! 돈으로 입학증도 사고 졸업증도 사는 이 비계족이야.》

순호군을 비롯한 드센 동창들이 저저마다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분통을 터뜨리며 창설에게 된욕을 안겼다.

이때 정외과 곱슬머리가 선교사시늉을 내며 익살을 피우는것이였다.

《아서라, 그대들, 이 웬일인고! 그 회사 사장님의 아드님이 아무리 석두구 아무리 사꾸라라고 한들 그렇게 된욕을 보이면 어찌고, 그만하면 저 도련님이 혼이 빠지고 눈알이 뒤집혀졌겠다.

그리구 이 창설도련님, 그 꼴을 하구서야 어떻게 우리 학급에 다시 나타날고, 아예 오늘로 우리 대학을 떠나머나먼 미국땅으로 류학이나 떠남이 어떠하리. 아멘—》

벗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폭소를 통쾌하게 터뜨리였다.

창설이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희들 날 몰아주누나. 요씨, 보자.》

그는 이렇게 외마디 비명삼아 남기고는 밖에서 기다리는 승용차안으로 꽁무니를 뺐다.

《창설각하, 시원하시겠시다. 하하하.》

벗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급히 사라지는 그놈의 등뒤에 주먹을 휘둘러보였다.

벗들의 단합된 힘은 강하였다. 창설은 그후부터 학교에 더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놈은 《ㄱ》대학교를 그만두고 미국류학의 길을 떠난다고 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뭉치면 이길수 있었다.

이런 류형의 일들이 여러번 있은후부터 학교당국에서는 대학내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위협조로 오금을 박군하였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불온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누굴 불문하고 학생명단에서 제적하겠다고 고아댔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그따위 말은 학생들의 귀청을 울리지 못하였다.

그후 며칠이 지났다. 조운성교수가 정치학강의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언제나 학생들은 운성교수의 강의를 못내 기다리군하였다. 그 강의속에는 민족의 얼이 흘러넘쳤고 위대한 진리가 스며있었으며 젊은 대학인들이 현실속에서 고민을 거듭하며 찾는 출구가 있었다.

운성교수는 그 권위로 하여 악질적인 학교당국에서도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정치학박사로서 학생들속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드디여 정외과 2학년교단에 운성교수가 나타났다. 약속이나 한듯이 학생들이 반갑다는 뜻의 박수를 치는것이였다.

운성교수는 눈인사로 답례한 다음 흑판에다 활달한 흰 글발로 특별강의제목을 쓰는것이였다.

《자기를 찾자!》

모든 학생들의 눈가에 섬광이 빛났다. 그들은 다시한번 그 글발을 읽었다.

자기를 잃고 운명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방황의 시대에 사는 젊은 넋들속에 얼마나 세찬 충격의 메아리를 일으키는 글발인가.

나 역시 자기를 잃었고 벗들도 부모들도 아니 서울도 이남땅의 겨레모두가 자기를 빼앗겨 남의 의지가 강요하는 포승줄에 묶여가지 않는가.

운성교수는 마디마디 무게있는 진리를 가르쳤다.

《학생제군들, 우리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자기를 너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희랍철

학가 쏘크라테스는 〈인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사회와 시대와 년대를 넘어오면서 자기를 몰랐습니다.》

들을수록 뜻이 깊은 말이였다. 교수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또다시 이어졌다.

《우리 주변을 보시오. 자기를 잃고다니는 방황의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자신이 자기를 모르게 하는 인간파괴의 사조들이 우리의 리념사회를 좀먹고있습니다.

남이 우리 대신 이 땅의 주인으로 뽐내여도, 할아버지

의 분묘가 있는 내 나라, 내 땅에 내가 아니라 남이 활개쳐도 우리는 그런 욕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잃었던 나를 찾고 빼앗긴 들을 찾아야 하며 내가 사는 내 나라를 가꾸어야 합니다.》

교수의 열변을 듣는 순호와 일수의 눈가에도 흥분의 눈빛이 빛났고 자기 아버지의 높은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순이의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였다.

교수의 말을 듣는 나의 머리속에는 운명의 포로로 끌려다니며 가난과 무권리에 울던 지난날이 떠올랐고 미국놈들과 왜놈들이 제세상처럼 날치는 남이 사는 내 나라의 망국적 현실이 필림처럼 풀려나갔다.

운성교수의 목소리는 다시 높은 격조를 안고 교실에 울렸다.

《우리는 이제 더는 운명의 쇠사슬에 묶인 포로로 살수 없습니다. 고대 희랍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사슬을 풀어 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나의 운명의 개척자가 되는 현대의 최고리념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리념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였고 자기를 찾게 하는 보검을 벼려주었으며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내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읍시다!!…》

교수의 말은 끝나지 않았으나 벌써 학생들은 흥분의 절정에 이르고있었다. 그들은 진리에 도달한 인간들이 항용 그러하듯이 바다처럼 설레였다.

강의가 끝난후 학생들은 교실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였다. 운성교수가 한 강의는 얼마나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많은 의미를 가슴속에 새겨주었는가.

진리의 힘은 강하였다. 불의를 추구하는자들에게 있어서 교수가 가르친 진리는 정녕 무서운것이였다. 무서운탓에 학교당국은 교수를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도청장치가 설치되여있는 교실에서 한 교수의 강의는 그대로 록음되여 악질적인 학교당국에서 문제시되였고 안전기획부(지난 시기엔 중앙정보부라고 칭함)요원들의 사찰명단에 오르게 되였다. 이것을 기회로 교수는 이러저러한 압력을 받게 되였다.

그 소문이 교내에 퍼지자 학생들속에서는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하였다.

며칠후 순호군은 저녁녘에 나더러 《학사다방》에 놀러가자고 했다.

나는 일수군과 순이양과 함께 《학사다방》으로 갔다. 다방에서는 간단한 누거리음식을 팔고있었다.

다방 뒤문으로 통한 다른 밀실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 방에는 낯익은 학생들과 대학교에서 이따금씩 만나군하던 상급생들이 있었다.

후에 안데 의하면 그것은 《고려회》라는 이름을 가진 리념써클이였다.

일명 《지하써클》, 《지하대학》이라 불리우는 이 리념써클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식화작업을 다그치고있었다.

젊은 지성이 있고 진리에의 탐구가 있으며 현실에서의 불만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있는 리념써클이였다. 이런 써클이 대학들에 수백, 수천개를 헤아린다고 했다

리념써클현장에 처음 참가한 나의 가슴은 몹시 흥분되여있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방학기간에 밀정들의 감시를 피하여 도시주변이나 농가들에서 20～30명씩 모여 매주 2시간정도 주제발표를 하며 한학기에 두번 정도 집중토론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들의 의식화작업은 7단계로 나누어져있었다.

1단계, 사회과학의 기술서적 독서

2단계, 혁명적인 관계서적 탐독

3단계, 방학을 리용한 7일간 학습

4단계, 혁명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보급, 의식화분위기 고취

5단계, 지금까지 학습한것을 시험하고 자신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독자적인 의식화를 진행

6단계, 상부조직의 지시를 행동에 구현

7단계, 결정적 시기에 행동에로 이행

방학기간에 그들이 의식화작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일과표는 더욱 흥미가 있었다.

5시 기상

6시 30분 아침식사

8시 마을청소

오전 8시～오후 7시 육체로동

저녁 7시～밤 9시 저녁식사 및 주민과의 대화

밤 9시～다음날 새벽 2시 토론회

처음보는 놀라운 생활세계였다.

《고려회》 성원들이 모인 오늘의 이 리념써클현장에서 나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오직 지성을 쌓고 학문을 익히는 탐구일변도의 길을 걸었지만 이 《고려회》 성원들은 학습을 하면서 자기를 찾고 내 나라를 찾고 불공평한 이 사회를 개척할 방도며 그런 중임을 맡아나설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애국애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시대의 흐름에, 대학생들의 시대정신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다.

더우기 놀란것은 나와 같이 다니던 강순호군은 이 《고려회》라는 리념써클의 한 지도성원이였다는것이다. 순이

양과 일수군도 한달전에 이 리념써클에 참가하겠다는 서약문을 썼다고 했다.

그러고보면 지난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돋보였던가. 생각할수록 그들의 정신적 높이가 부러웁도록 아찔하게 바라보였다. 더우기 순호군이 한없이 부러웠고 미덥게 바라보였다.

그날 리념써클에서 긴급히 론의한 문제는 며칠전 조운성교수가 강의한 《자기를 찾자》였다. 이어서 《자기를 찾기 위한 우리의 사명감》이란 부제를 달고 학생들의 열변토론도 있었다.

그날밤 《고려회》를 지도하는 《ㅅ》대학교 철학과 4학년 윤철민형이 론제를 결속하면서 말을 잇는것이였다.

《우리는 광주의 피에서 자기를 알고 자기의 좌표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조운성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리념대로 자기를 찾기 위해 분발해야 합니다.

친미가 아니라 반미로 나가야 합니다. 친미로 망한 나라를 반미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광주시민들이 흘린 피가, 무등산과 광주천의 원한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미 부산에서 미문화원이 첫 반미의 불길에 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반미의지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요즘 각 대학에서 데모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틀후에 데모를 해야 하겠습니다. 데모준비는 순호군이 맡아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자, 제군들! 우리의 비밀은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오늘의 이 비밀을 생명처럼 사수할 사람은 나와 같이 손을 듭시다!》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손을 억세게 들었다. 나 역시 그들을 따라 손을 들었다.

경찰도 군대도 첩보도 법관도 침입 못하는 학생들만의 하루밤 공화국이였다. 차잔속에 온 우주가 비껴있었다. 그러나 밖으로 한걸음만 내디디면 캄캄한 지옥이였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청춘을 연소해왔다.

그날밤 《학사다방》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여느때없이 흥분의 도가니로 끓었다. 아침해돋이를 맞는 기분이였다. 삶의 고달픔도 가뭇없이 사라진듯싶었고 두손엔 저항의 억센 혈맥이 통하고있음을 느꼈다.

5. 불타는 거리에서

인간은 운명의 포로인가. 운명의 희롱에 롱락당할수 없는 우리.

사슬을 풀어헤친 《프로메티우스》가 되여 자유의 파수병이 되리, 노호하는 격랑이 되여 자유의 광장으로 끝없이 흐르는 데모의 물결…

기 발

정의가 있고 량심이 있는곳에 불의를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저주가 있었다. 뜻있는 대학생들이 있는곳이면 어디서나 데모가 일어나군하였다.

나도 지난날 대학에서 데모의 대오가 교내와 길가를 누비며 휩쓸 때 그 물결속에 몇번 몸을 잠근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대학사회에 데모의 선풍이 부는것이 하나의 추세였기때문에 대렬의 뒤를 반사적으로 따라선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데모가 거듭되고 울분에 찬 현실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에도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저도 모르게 싹트고있음을 느꼈다.

고학으로 탐구하고 지성을 쌓는것이 나의 리상과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나의 가슴속에 모순된 세상이 그대로 숨쉬여서는 안된다는 반항심이 점차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날 순호가 나에게로 찾아와 말하는것이

였다.

《영선이, 우리 〈고려회〉의 첫 부탁을 하나 할가?》

《뭔데?》

《영선이야 글을 잘 쓰지 않나. 글을 쓰겠다는 포부를 갖고 공부했으니말야.》

《그런데 뭔가 말야?》

《래일 시위할 때 읽을 성토문을 한번 격조높이 써보라구.》

《성토문을?!》

《그럼,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주는 임무가 아니야. 4학년 철민형이랑 토의하구 말하는거야. 대학 학생회에서 주는 과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그의 부탁이 두렵긴 했으나《고려회》의 첫 지시를 쾌히 받아들였다.

량심적인 교수들을 교단에서 내보낸 문교당국의 부당한 처사와 학원의 정보사찰을 반대하며 학원내의 모리화를 결사배격하는 내용으로 써야 하는 성토문이였다.

사실 이즈음 학생들속에서 인기있는 조운성교수에게도 정보사찰의 검은 마수가 뻗쳐 정년퇴직한다는 소문이 돌고있었고 이미 교단을 떠난 교수들이 학교당국에 항의서를 들이대고있는 때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률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문교당국과 정보사찰의 압력이 높아가고있었다.

이러한 불의는 학생들의 저항심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었다.

대학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와 울분을 반영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날밤 집에서 펜을 들고 성토문을 쓰는 나의 머리속에는 지난날 눈으로 보고 느꼈던 악의 현실에 대한 추억이 일시에 머리를 들었다.

나는 서럽고 통탄하고 울분에 넘치던 그 모든 마음을 한글자한글자에 담아 성토문을 써내려갔다. 순호가 준 방향대로 써보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쓰고 또 썼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왔을 때에야 성토문을 다 썼다. 나는 담아야 할 내용을 다 담은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정의는 필승이고 불의는 필멸이다. 정의에 과감하고 래일에 살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자!》

나는 조운성교수가 가르쳐준 말대로 성토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다.

다 쓴 글을 읽어보니 그 글발우로 학생들의 시위대렬이 물결쳐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호군과 철민형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토문을 고쳐 완성했다.

날이 밝자 나는 대학교로 달려갔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대학교 정원주변에 모여들었다. 약속이나 한듯이 이골목 저골목에서 학생들이 밀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순식간에 1,000여명선을 훨씬 넘는것이였다.

나는 대학생들이 벌써 하나의 지시에 움직인다는것을 직감할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교내시위는 처음부터 열띠고있었다.

성난 바다마냥 설레이는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교가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4학년 선배인듯한 한 학생이 어디서인지 바람처럼 나타나더니 메가폰으로 선언문을 랑독하는것이였다.

《학우여! 모이자! 민주와 자주의 광장으로! 쇠사슬에 묶인 형제들이여! 불타는 민족애와 조국애로 가슴을 불태우고 결연히 나서라!…》

선언은 처음부터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여러번 끊어지군하였다.

대렬속에서 구호들이 막 튀여나왔다.

《민주학원 사수하자!》

《량심교수 복직시키라!》

《학원탄압 중지하라!》

《강제징집 중지하라!》

《대학이 모리장이냐, 학원흡혈귀 처단하라!》

《매판기업, 악덕업주 반대한다!》

대학생들이 웨치는 구호들이 다 나와 너, 우리모두의 마음을 반영한것이였다.

대학캠퍼스(구내)는 그대로 노호한 바다였다.

학생들은 모두 어깨를 겯고 학교운동장을 돌고있었다. 이때 경찰들이 달려왔다.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의 앞길을 막자 학생들의 기세는 더욱 고조되였다.

느닷없이 한 녀대생이 대학게시판지붕우에 올라가 유인물을 뿌리면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웨치는것이였다.

그는 다림질할 때 물안개를 뿜는데 쓰는 비닐통에 휘발유를 채워 그것을 내뿜어 불을 붙이면서 웨치는것이였다.

《다가만 오면 너도 나도 죽는다.》

나는 그 녀대생의 높은 투쟁정신을 읽었다.

내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순이도 상기된 얼굴로 박수를 치는것이였다.

이때 누군가가 항간에서 불리우는 인기있는 류행가 《10곡》을 부르자 여럿이 따라 합창하는것이였다.

류행가 10곡중에서 단연 1위로 당선되였다는 노래 《전두환〈나는 행복합니다〉》가 울렸다. 그것은 륙군보안사령관으로부터 일약 《대통령》자리에 앉은 전두환을 비꼬아 그를 가수로 선정한 야유적인 노래였다.

한참만에 인기있는 류행가 10곡중에서 제8위로 당선되였다는 《순자야 문열어라》가 울렸다.

《순자》라는 이름은 술집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접대부의 이름인데 이와 결부시켜 전두환과 그의 처 리순자를 지탄한 노래였다.

학생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다. 시위대오는 시내 중심가로 육박하고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민주와 자주, 정의를 지향하는 젊음의 대행진이였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시위를 벌리고있었다.

경찰들이 증원되였다. 경찰 화학차들이 급히 달려왔다.

사태가 이렇게 변하자 두개의 흰 프랑카드가 불쑥 나타나 대오의 앞장에서 나붓겼다. 그 프랑카드속에는 《전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미군, 왜놈》라고 씌여있었다.

시위대오는 점차 첨예한 정치문제를 제기하며 민주와 자주를 부르짖고있었다.

대오속에서는 자주를 부르짖는 노래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쪽발이 양키놈 판치는 이 땅
매판과 파쑈에 지친 형제들
가자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우리것 우리가 찾으리
민주주의 피줄속에 투쟁정신 불탈 때
파쑈 책동 또한 두려울것이 없다
우리 각 사람의 힘은 비록 약할지라도
투쟁속에 큰다
전두환을 타도하자(3번 반복)
박살내자 파쑈

나는 학생들의 구호와 노래소리를 들으며 많은것을 생각했다.

내가 밤새워 썼던 성토문의 론조보다 얼마나 높은 구호를 제기하고있는가. 나의 정신은 대학생들의 그 투쟁정신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있음을 느꼈다.

격랑처럼 노도치는 대오속에는 《양키 가라. 전정권 싫다.》는 소리가 계속 울리는것이 아닌가.

저멀리 대오의 뒤에서는 조운성교수를 비롯한 머리가 희슥희슥한 교수들의 얼굴도 보이였다. 우리 학생들의 투쟁에 대학교수들이 따라선것이 분명하였다.

광화문네거리까지 시위대렬이 밀려나오자 경찰 화학차에서는 최루탄가스를 뿜는것이였다.

이때 학생들은 투석전으로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거리에 널려진 돌멩이를 쥐고 마구 던졌다. 쥐고 던질것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돌멩이를 얻으러 여기저기로 뛰여다녔다.

이때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물건을 팔고있던 한 할아버지가 사닥다리를 타고 낮은 지붕우로 올라가 기와장을 내려떨구는것이 아닌가.

기와장들은 땅에 떨어지면서 산산쪼각들이 났다. 옆에 섰던 순호가 달려가 깨여진 기와장을 집어들고 할아버지에게 허리를 굽석하고나서 말하였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어서 경찰놈들에게 집어던져라. 우리 아들애도 4.19때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싸우다 숨을 거두고말았어. 나는 힘이 없어 싸우지 못하는데 내 마음까지 합쳐 힘껏 던져달라구.》

정말 고마운 할아버지였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민중들의 심정을 읽었다.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나의 코마루가 찌릿했다.

저녁해가 서쪽하늘가에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였다.

데모대는 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하였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급히 후송되였다.

순이와 녀대생들이 구호대를 무어 피를 흘리는 동료들을 자동차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지군했다.

수십명의 학생들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경찰차에 실려갔다.

우리들은 묶여간 동료들을 석방하라고 고함을 쳤다. 련좌데모를 벌리던 우리들은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허기가 질무렵 웬 어머니가 빵과 우유를 들고 데모대에 찾아왔다.

의로운 젊음이 있는곳에는 항상 뜨거운 지원이 있었다. 그 어머니는 길가에서 자그마한 빵집을 차려놓고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할 몇푼을 버는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빵과 우유는 자기 밑천의 전부였고 재산의 모두였다. 그러나 아까울것이 없다는것이다.

참 갸륵한 어머니였다. 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나의 어머니도 이 아들이 이 거리에 서있는것을 보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겼다.

이런 광경은 도처에서 벌어졌다.

순호가 어디선가 달려와 나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영선이, 어서 학생들앞에 나가서 어제밤에 쓴 성토문을 읽으라구, 시위대렬에 새 힘을 주어야겠어.》

《내가?…》

《그럼. 시간이 급해. 힘이 진할 때 성토문을 읽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웨쳐야 해.》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여직 한번도 벗들앞에서 선동연설을 해보지 못한 내가 아닌가. 정말 나는 학과토론

괴뢰정권타도
전두환을 타도하자!

때에는 연단에 나서서 자기의 견해와 소신을 여러번 피력한적이 있지만 이런 투쟁거리에서 그런 성토문을 읽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는 더 머뭇거릴 경황이 없었다. 순호가 쥐여준 메가폰을 들고 앉아있는 학생들앞에 나가 성토문을 읽었다. 성토문의 론조는 약하고 구호는 높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시위대렬에서는 다시 기세가 올랐다. 내가 읽은 성토문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마음이 의젓해졌다.

어둠이 깃들자 기회를 엿보고있던 경찰들이 몇배 증강된 인원으로 시위대렬에 달려들었다. 앉아버티기를 하는 학생들을 모두 쫓아버리자는것이였다.

경찰들은 사정없이 마구 곤봉을 휘둘러대며 달라붙었고 잡히는대로 우리 학생들을 끌고갔다.

경찰들의 발악은 극점에 이르렀다. 무차별적인 체포소동이 벌어졌다.

나도 그만 경찰들의 손아귀에 붙잡혀 끌려갔다. 몸부림치며 안깐힘을 썼으나 어쩔수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나처럼 경찰에 붙잡혀갔다. 데모는 이렇게 아쉽게 끝났다.

옥중일기

지성의 세계로 육박하던 고학의 나날은 막을 내리고 나의 옥중살이가 시작되였다.

옥중생활, 이것은 하나의 귀중한 체험이였다. 《철창대학》이라고도 이름하는 옥중의 나날을 그대로 흘러보낼수 없었다. 나는 붓을 들고 옥중의 하루하루를 적어보기로

하였다. 후날 그 글줄마다가 추억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고 나의 자양이 될지 누가 알랴.

5월 8일

달빛이 흐르는 철창가에 묶여있으니 귀가에는 대학교교정과 광화문거리에서 지축을 울리던 자유의 함성이 영원한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시위대오에 새힘을 넣어주느라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던 순호군은 지금 어데 있으며 프랑카드를 들고 나아가던 일수군은 어떻게 되였을가?

부상당한 학생들을 간호하며 병원으로 실어가느라 제비처럼 날아다니던 순이씨며 그 많은 녀학생들은 지금 대학강의실에 앉아 잃어버린 벗들을 그리는것일가?

지붕우에 올라 기와장을 던져주던 그 뜻있는 할아버지며 빵과 우유를 우리 손에 쥐여주던 그 고마운 어머니의 모습이 눈뿌리에 자꾸 감겨든다.

대학교는 데모대때문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점거하고있을테지?

어쩐지 경찰서에 걸려들어 며칠동안 구금처분을 당하던 그때의 심정과는 느끼는바가 완전히 다르다.

의젓하고 힘이 생김을 어찌할수 없다.

5월 9일

경찰서에 붙잡혀온 50여명의 학생들속에서 20여명만 남고 다른 학생들은 대체로 7일구류에 얼마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쨌든 그것은 《피동분자》로 확인되여 경범으로 다루어진셈이다.

남아있는 주동인물들속에 나도 섞여있었다. 아마 성토문을 읽었기때문일것이다.

경찰들은 학교에 들어박혀있는 밀정을 통해 주동인물

들을 신통히도 골라내고있었다.

구류장구석에 앉아있는 한 상급생의 모습을 보니 분명 철민형이였다. 리념써클 《고려회》의 책임자였다.

어느 놈이 일러바쳤을가? 나는 언젠가 리념써클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 말을 주고받던 일이 떠올랐다.

윤철민형은 나에게 름름한 자세로 눈인사를 보내는것이였다. 많은 말을 대신하는 눈인사였다.

경찰서안의 험악한 공기를 어느 정도 알고있었던 나는 그 형의 옆으로 다가가 많은 말을 하고싶었지만 참아버렸다.

5월 11일

나는 오늘 취조를 당했다. 안경을 코허리에 건 경찰관은 나에게 직선적으로 들이댔다.

《네 이름이 영선이지?》

《네.》

《나는 급하다. 간단히 묻겠다. 네가 읽은 성토문은 누가 썼지?》

《내가 썼어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누가 쓰라고 했는가?》

《…》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혔다. 성토문을 집필하는 문제는 순호군이 나에게 준 첫 과업이였다.

내가 대학신문 《별》에 여러번 사회현상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글을 써서 파문을 일으켰던 일이 있다. 그런탓으로 나는 벗들속에서 글을 잘 쓰는 축으로 뽑히였던것이다.

성토문을 쓸 과업을 나에게 준 리유도 바로 이때문이였으리라. 그러나 순호의 이름을 댈수야 없지 않는가.

경찰관의 물음은 련이어 말그루를 박았다.

《네 스스로의 결심으로 썼는가. 아니면 어느 배후의 지시에 따라 썼느냐?》

《내 스스로 썼어요.》

《거짓말! 임마, 내가 네놈을 안다. 공부밖에 모르던 네가 왜 갑자기 데모선동을 할 생각을 했는가말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나는 공부밖에 몰랐다. 그가 나를 어떻게 잘 알가? 밀정들이 박혀있으니 그럴수밖에… 그러나 모르쇠를 부리며 나는 대답했다.

《난 속이지 않아요. 난 데모선동을 하려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그대로 쓰고 말했을 따름이예요.》

《그럼 데모가 일어난다는것을 어떻게 알고 썼느냐?》

《난 점심때 알았어요. 우리 대학에서야 데모가 년중행사처럼 일어나지 않나요. 학생들이 점심때 학교운동장에 모여들기때문에 나는 데모가 태동하고있다는것을 직감했어요.》

《직감했다고?》

《그럼요. 학생들이 있는곳이면 언제나 데모가 있으니깐요. 데모는 대학가에서 하나의 〈류행병〉이라고 경찰서에서도 말하더군요.》

《류행병이라!》

《그럼요.》

《좋다, 그럼 네가 성토문에서 주장한것은?》

경찰관은 장기전으로 따지고들자는 심산이였다. 나는 성토문에서 쓴것이 별반 큰 문제가 제기될것 같지 않아 스스럼없이 대답하였다.

《나는 민주와 정의를 사수하자고 했어요. 권위있는 교수들을 해직시키는 처사도 취소하고 학원의 모리화도 반대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옳다고 봐요.》

《민주와 정의를 사수한다는거야 네놈들이 입버릇처럼 쥐치는 구호가 아니야?》
《그건 우리 대학생모두의 좌우명으로 되고있어요.》
《좌우명?》
《그럼요, 민주없는 학원, 정의없는 대학을 생각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좌익학생들의 심리를 자극했다고 생각해본적은?》
《그것은 각자가 받아들이기에 달린거니깐요.》
경찰관은 약이 오른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다싶이 묻는 것이였다.
《남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네놈이 중뿔나게 나서서 성토문을 읽을게 뭐람, 망할자식! 아예 네놈을 10년징역에 처하겠다.》
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대답하면 그의 성을 돋구어주기때문이였다.
그는 《미군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누가 먼저 불렀는가고 계속 따졌다. 나는 알수 없었다. 모른다고 대답했다.
《좋다, 그럼 너에겐 배후조종인물이 없단말이지?》
경찰관의 성은 숫구멍이 튀여날 정도로 치밀었다.
나는 여전히 배후추동자가 없다고 대답하는수밖에 없었다. 그 훌륭한 벗들의 이름을 어떻게 고발할수 있을가, 안된다. 그럴수 없다.

5월 12일

같은 심문이 계속되였다. 배후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나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었다.
뭇매를 맞았다. 이 땅의 젊은이는 정의때문에 맞아야 한다는것이다.

나는 항변하였다. 왜 때리는가고… 항변하였기때문에 또 곤봉세례를 당했다.
멍이 든 얼굴로 철창가에 돌아왔다.

5월 17일
밖에서 암호쪽지가 들어왔다. 철민형이 알려주었다.
송죽같은 절개를 안고 꿋꿋이 싸우자는것, 대학교에서는 련일 구속학생석방운동이 벌어진다는것이다.
항의, 롱성, 진정, 앉아버티기… 참 고마운 벗들이였다.
순호며 일수 그리고 순이와 같은 열혈대학생들의 후더운 숨결이 온몸을 감싸주는것만 같았다. 외롭지 않았다. 고독하지 않았다.

5월 27일
심문이 끝났다. 나는 오늘 방청도 없는 재판을 받았다. 한 대학교수가 무료변호를 맡아나섰다.
법이란 권력자들의 편이였다. 아무리 론리당당한 항변과 주장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오직 형벌의 대상이 될뿐이다.
나는 드디여 6개월 구류처분과 무기정학을 받았다. 10여명의 학생들이 나와 같은 형벌을 받았다. 철민형은 1년 징역을 받았다. 나는 앞이 캄캄했다.
철민형은 나더러 벌쭉 웃으며 말하였다.
《영선이, 이것은 약과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석방투쟁을 벌린 탓이야. 석방투쟁만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2~3년 징역살이에 걸려들었을거야.
차라리 감옥에서 대학을 마치는것이 낫지. 철창대학을 말야. 인간수업도 하고… 대학교에서만 대학을 마치는 법이야 없잖어. 자. 이제부터 옥중대학생이야.》

철민형은 흥얼흥얼거리며 교가를 부르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높은 정신세계가 부러웠다. 앞이 캄캄해진 나의 앞길도 밝아오는듯싶었다. 그의 인생철학은 나의 의지가 되였다.

6월 2일

우리는 《ㅈ》교도소로 갔다. 새 교도소에 온날밤 나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6월은 더위의 계절이건만 콩크리트감방의 밤은 무더위로부터 해방되는 한순간이였다.

달밤이다. 왜 잠들수 없을가. 집생각이 간절하다. 앓는 아버지의 병세는 어떻게 되고 어머니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실가.

브라질로 팔려간 누이동생 영옥이한테서는 편지가 왔을가?

집생각을 좇고있느라니 구슬픈 생각도 들고 차라리 잘되였다는식의 생각도 한가닥 피여올랐다.

괴로운 집살림을 차라리 보지 않는편이 낫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일종의 도피일가.

고학의 꿈을 싣고다니던 지게며 손수레에도 생각이 미친다. 생각이란 그 나래가 한없이 넓어 미치지 않는데란 없다.

이젠 대학에로의 꿈도 영원히 버린단말인가? 철창속에서도 시간을 아끼며 무엇인가 읽자, 사색하자, 글을 쓰자.

조운성교수가 하던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자!》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렇다. 어데서나 자기를 찾자!

6월 29일

감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185번 면회》

나는 《185번》이였다. 면회대합실에 다가가니 어머니가 기다리고있었다. 순이씨도 따라왔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어머니앞에서 눈물을 참아야 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퍼그나 수척해졌다. 그새 더 늙어보였다. 순이는 나를 보는 순간 반기면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눈동자에 눈물이 맺히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던가싶었다.

아버지의 병세를 물으니 어머니는 그저 그렇다고 한다.

《집걱정일랑 말고 네 몸이나 잘 돌보렴. 네가 건강한 몸으루 집에 돌아와야 아버지의 병도 나을게 안야.》

어머니는 이 아들의 손을 어루쓸며 가까스로 눈물을 참는다.

어머니라는 이름처럼 강하게 울리는 이름이 있을가. 어머니는 자식앞에서 그렇게 강한것이다.

나는 한마디 건넸다.

《어머니, 절 용서해주세요. 제가 아들구실을 못해서…》

《별소릴, 나는 널 후회하지 않는다. 네 몸만 성하면 기쁘겠다.

집일은 걱정말어라. 순이랑 너네 학급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왔단다.》

학우들이 고마왔다. 자기네들도 어렵게 살건만 우리 집까지…

순이가 다가왔다.

《영선씨,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해요. 저의 아버님도 퍽 걱정하셔요. 몸을 주의하셔야 해요.
정의는 이긴다고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구 이 꾸레미속엔 교과서도 있어요. 편지두 있구…》
다정다감한 순이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면회 그만!》
철문이 닫기자 우리의 대화는 끝나고말았다.
《영선아!》
《영선씨!》
《어머니!》
《순이씨!》
서로 부르며 찾는 애절한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철문에 부딪치고말았다.
면회는 끝나고말았다.
감방에 돌아와 꾸레미를 풀었다. 깨끗한 내의와 빵이 들어있었다. 순간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었다.
편지도 있었다. 첫 봉투 편지를 펼치니 학급동창들의 인상적인 필적들이 적혀있었다. 모두가 자기의 별명과 익명으로 한두마디씩 적어넣었다.

•박사님(나의 별명이였다), 첫째 건강! 그대의 벗 〈안암동의 호랑이〉
•그대는 정의의 탑우에 동상처럼 서있다. 〈한강낚시군〉
•형(철민형을 이르는 말이였다)을 사랑하라. 〈고려회의 멜로디〉
•너는 자기를 알았다. 〈삼각산 소나무〉
•너의 곁에 내 있다. 〈아리랑〉

•나는 너, 너는 나! 너의 집에 내 산다. 〈삼각산〉
•창설놈에게 주먹떡을 25개 선사! 〈공격수 5번〉
•너는 미래에 있다. 〈비둘기〉
•웃으세요. 뚱뚱해지셔요. 〈초생달눈섭〉
•강자와 약자, 우리는 강자를 보았다. 〈레스링선수〉
•프로메티우스의 초상을 선물한다. 〈오토바이〉
•그대의 책상은 비여있어도 너의 모습이 있다. 〈세종로의 스케트〉
•교가의 메아리여, 울려가라. 〈안경〉
•시계는 정시로 달린다. 〈메아리〉
•자유의 화원에 꽃구름으로 피여요. 〈들국화〉
•펜+량심+강인성—굴복—허영! 〈앵무새〉
•나는 빨간꽃을 사랑해요. 〈종다리〉…

새겨볼수록 뜻이 깊은 학급동창들의 글발이였다.

그 글자우로는 정답던 친우들의 만가지 얼굴이 떠올랐다.

나에게 뜻을 주고 힘을 주고 미래를 주는 그들이 고마왔다. 나는 그 귀중한 글발을 가슴속에 꼭 품었다. 친구들의 맥박이 내 심장속에 뛰는듯하였다.

두번째 봉투편지를 펼쳤다. 순이씨의 낯익은 필체였다.

《영선씨! 그저 부르고싶은 이름이예요. 뜻이 큰 사람에겐 큰 길이 열리는 법이예요.

시대와 함께 사는 지성을 전 좋아해요. 허세와 위선과 허영을 전 경멸해요.

저는 영선씨가 뭇사랑과 동정속에 사는 강한 남성이 되여주길 바라요.

어머니는 걱정마셔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하고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많았어요. 오늘도 하고싶

은 사연은 많아도 또 참겠어요.

언제나 영선씨의 곁에 벗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출옥하는 날 학급에서는 〈학사다방〉에서 〈대축연〉을 베풀자고 했어요.

하지 못하는 말을 내 가슴속에 파묻어두어요.

귀중한 몸 조심하셔요.

다시 부르고싶어요. 영선씨!…》

뜨거운 맥박이 굽이치는 편지였다. 순이가 정말 고마운 녀대생이였다. 나는 순이가 여태도록 나를 그렇게 위하는줄은 몰랐다. 나는 무정한 인간이였다.

7월 10일

기상나팔소리와 함께 검방이 시작되였다. 간수부장과 간수들이 지장과 필적을 조사했다.

알고보니 삐라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이다. 사흘전에 본 삐라생각이 난다.

《옥중동지들! 굴하지 말자. 웃으며 살자. 굴복말고 뭉치자. 유혹당하여 전향하면 죽는다. 〈옥중동지회〉》

정말 견결한 지사의 글발이라고 생각했다. 미지의 그 지사가 보고싶었다.

간수들은 필적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화풀이로 우리에게 중로동을 시켰다. 옥중분위기는 험악했다.

7월 19일

의무과에 갔다오다가 복도에서 철민형을 만났다.

그는 나의 몸을 어루만져주었다. 앓지 말라고 당부한다. 대학교소식을 말해주었다.

빵 한개를 바지춤에서 꺼내주며 말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구 힘을 내라. 출옥후에 우리

다시 만나 뜻을 꽃피우자.

진리는 우리의것, 미래도 우리의것, 승리도 우리의것!》

저쪽으로 간수놈이 오자 그는 나의 손을 꽉 쥐였다놓고는 그길로 가버렸다.

만날 때마다 힘을 주는 철민형이였다.

그의 몸은 감방에 묶여있어도 그 어떤 철쇄도 그의 의지를 묶을수 없었다. 그가 옥중에 있어도 《고려회》는 살아 움직인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 ×

나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지 못했다. 감방에서 일체 글을 쓰지 못한다고 간수들이 고아댔다. 만일 무슨 글이든지 쓰면 몇달씩 형기가 늘어난다는것이다. 연필도 다 닳아빠지고 종이도 없었다. 간수들은 차입물건속에서 책과 연필은 모조리 빼내였다.

부득불 나는 마음속에 일기를 새겨두는수밖에 없었다.

《비둘기통신》

인간은 있으되 인권이 없고 민족은 있으되 존엄이 없는 숨막히는 땅.

그 땅을 일러 사람들은 《공기 없는 땅, 즙이 없는 땅》이라고 비유하였다.

이남땅은 참말로 숨막히는 지옥이였고 지붕이 없는 감옥이였다. 비록 사람은 제 집에서 숨을 쉬며 살지만 한쪽 다리는 감옥에 들여놓고 살고있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와보니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생활

을 여덟번 한 신기록을 보유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섯번, 세번, 두번의 옥살이를 기록하고있다.

하기에 철창속에서 함께 고역을 치르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한감방, 옆감방에서 어울려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감방동기생》이라고 부르고있다.

《감방동기생》들은 철창속에서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것이 아니라 출옥후에도 각별히 다정한 사이가 되여 서로 오간다고 한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만기가 가까와오고 출소때가 박두하면 《감방동기생》들은 더 가까와지고 자연스럽게 출옥뒤의 일을 의논하게 된다.

서로 리별할 때 《나는 S동에 사는데 R다방에서 논다. 나오거든 찾아오라.》는 인사나 약속이 보통이다.

교도소에서 나와 일단 전과자의 락인이 찍히면 사회에 나와도 일정한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다.

감방동기생들은 할 일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심심풀이로 한번 친구를 찾아가기도 한다.

서로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먹고사는 일이 궁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다.

어려울 때 맺은 정이 참된 정이라고 철창속에서 서로 사귄 친구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참된 친구들인것이다.

그들은 인생의 길에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준다. 그처럼 남을 속이고 등을 쳐먹고 사람들끼리 생활의 담을 쌓고 사는 이 강마른 인정의 페허지대에서도 철창속의 감방동기생들끼리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다.

아무튼 고난의 언덕을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속에 피여난 인간의 향기는 참으로 그윽한것이였다.

나쁜 사람들은 이남의 교도소를 일명 《범죄학교》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교도소의 생활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소후의 《깨끗한》 새 생활을 설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연히 만난 감방동료끼리 《범죄의 지혜》를 짜내고 모아 《제2의 범행》을 약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서 비롯된 말이라는것이다.

《별》(항간에서는 《전과》를 가리켜 《별》이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늘어날수록 《범죄두뇌》는 점점 발달하기마련이고 《범죄계획》도 치밀해진다.

어쨌든 감방동기생들이 서로 만나거나 모이면 보통사람의 두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내가 철창살이를 하면서 듣고 체험한 이야기를 여기서 그저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은 《비둘기통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교도소안에서도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것이 없고 돈만없으면 갖은 고초를 겪고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돈다.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만 없으면 죄가 있다는것이다.

돈은 교도소안에서도 별의별 신기한 조화를 다 부린다.

그래서 이남 교도소에서는 《비둘기통신》 이란 이야기가 생겨난것이다.

《비둘기통신》이란 교도관에게 심부름값을 찔러주고 그대신 부탁하고싶은 내용을 쪽지로 써서 건네주는것을 말한다.

어느날 한 수감자 (죄수를 말한다.)가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철창속에서는 담배를 구할길이 없었다.

《야, 담배 한모금 피워봤으면!…》

《담배?》 옆에 있던 다른 감방동기생이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이름은 박칠범이였다.

《그래 담배. 〈은하수〉 한꼬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집생각날 때 〈은하수〉 한모금 빨면 취하련만. 아 그리운 〈은하수〉야!》

그의 말끝은 룡조로 길게 울렸다. 《은하수》란 일러주는 담배의 한 종류였다.

《〈은하수〉가 그립다면 비둘기통신을 띄우자.》

《돈이 있어야 비둘기통신을 띄우지…》

《나한테 돈이 좀 있어.》

《그래!》

한 중년사나이가 반겼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 담배를 구할수 있는 통로는 많지만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교도관에게 《비둘기》를 띄우는것이다.

교도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쪽지를 써 건네주는것을 《비둘기를 띄운다》고 말들을 한다.

돈을 몇푼 쥐고있는 박칠범이란 수감자가 철문밖으로 지나가는 교도관에게 손짓하며 부른다.

《교도관님.》

《뭐야?》

《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박칠범은 눈을 찔끔 감았다가 떴다.

무엇인가 통한다는 무언의 암시였다. 그는 교도관의 손에 꼬깃꼬깃 말아쥔 쪽지편지를 쥐여주는것이였다. 교도관은 뒤돌아서 그 쪽지를 풀어보았다. 그는 입속으로 읽어내려갔다.

《교도관님, 〈은하수〉담배 한갑만 부탁합니다. 담배생

각에 정신이상이 걸릴지경입니다. 적은것이지만 3천원을 사례금으로 드립니다. 103번》《103》이란 그의 번호이다.

쪽지밑에는 돈 3천원이 깔려있었다.

교도관은 쪽지를 마구 구겨쥐더니 홱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뱉었다.

《안돼!》

이 말은 심부름값으로는 3천원이 적다는 의미로 통하고 있었다.

《자, 그럼 2개 더합시다. 약속합니다.》

박칠범은 그에게 손가락 두개를 펴보이며 눈짓으로 약속하는것이였다. 두개를 더한다는것은 이미 준 돈 3천원에다 2천원을 더 주겠다는 뜻이였다.

그제서야 마음이 어느정도 동하는지 교도관은 그자리에서 눈을 끔벅하더니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지는것이였다.

이렇게 담배 몇대가 2천~3천원에 들어오며 어떤 때는 담배 한갑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씩의 《심부름값》이 뒤따르기도 한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런 《비둘기통신》놀음을 할수 있다.

교도소안에서는 현금을 자기 몸에 소지할수 없다. 부유한 층이 만일 얼마간의 돈을 갖고싶으면 교도소측에 영치시켜놓고 카드제에 의해 쓸수 있을뿐이다.

그러나 카드제에 의해 돈을 쓰려면 시끄러운 수속을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는 죄수복 바지고무줄넣는 부분에 돈을 숨겨두고 필요하면 임의의 순간에 꺼내쓰는 경우가 많은것이다.

교도소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란 이렇듯 어렵지 않다. 개가 뼈다귀를 물면 다른 개가 볼수 없는 다른 구석

진 자리로 피해 가듯이 수감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감방구석으로 간다는 뜻에서 수감자들은 담배를 그들의 용어로 《개》라고 부르고있다.

감방구석에서 담배연기를 벽쪽으로 향해 불면 연기가 벽을 타고 넓게 흩어지기때문에 여간해서는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교도소안에서도 술을 마실수 있다. 웬만한 범틀 (교도소카드에 영치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을 이르는 용어)들은 《비둘기통신》을 통해 술맛도 능히 볼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교도소로 뒤덮인 감옥의 땅 이남에서만 들을수 있는 이야기이다.

감방동기생들이 도처에 차고넘치고 교도소 주변에 붐비여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태여나고있으며 《비둘기통신》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철창속에서 벌어져 뭇사람들을 놀래우고있는것이다.

나는 감방동기생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땅은 전체가 교도소이고 우리 국민은 전부가 죄수들이다.

어데서나 철창이 사람잡이로 울고있는 이 캄캄한 지옥에 언제면 이 고달픈 밤이 지새고 맑은 아침의 려명이 비낄가! 아, 자유의 푸른 하늘, 인권이 꽃피고 고귀한 인격의 향기가 피여오르는 정의의 풍토가 그립구나! 그리워!)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부풀어오를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저절로 시구절이 튀여나왔다.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는 못버려

나는 싫어 철창
정말 싫어 노예살이
나는 좋아 푸른 하늘
정말 좋아 자유인이

«쓰레기공화국»의 인생속에서

엄혹한 세월은 흘러만 갔다. 철창속에서도 시간은 덧없이 흘러 나의 옥중살이가 끝났던것이다.

내가 철창속에서 풀려나오자 벗들은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학교당국에서는 나를 학적에서 제명처분하고말았다. 문교당국의 지시라는것이였다.

조운성교수도 힘쓰고 벗들이 주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강심을 먹고 대학에의 길을 단념하고말았다. 물론 어머니의 괴로움은 컸고 앓는 아버지의 병세도 악화되여갔다.

나는 더이상 순이네와 벗들의 방조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인으로 직업전선에 나서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옥살이를 하였다는 리유로 어디서나 나의 값눅은 로동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흔히 《떠돌이인생》이란 별명이 붙어있지만 내가 바로 여기서 하루, 저기서 이틀하는 식으로 철새마냥 일자리를 찾아 떠다니였다.

가난의 낮은 지붕밑으로 돌아오면 삶의 가파로운 벼랑

길을 간신히 톺아오르는 숨막히는 집안의 가련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끝없이 허비였다.
골병이 든 아버지는 이젠 운신도 못하고있었다.
약이라도 얼마 구해서 앓는 아버지의 마지막 운명을 어느정도 달래보려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두부장사도 불경기를 만나 빚을 질 때가 많았다.
앓는 아버지의 신음소리와 고달픈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여져 한순간도 견딜수 없었다. 운명이란 이렇게 야속하고 가혹한것일가.
나는 또다시 가혹한 운명을 맞받아 이를 사려물고 《직업전선》에 달려나갔다. 박일수군의 아버지 주선으로 철공소에 들어갔다. 허기진 몸으로 해종일 철판을 달구고 메질을 하며 피땀을 흘려야 했다.
뜨거운 불길, 시뻘건 쇠철판, 무거운 메, 비오듯 쏟아지는 땀물… 이것이 철공의 상징이라 할가.
이처럼 참기 어려운 고열속에서 힘겨운 일을 해도 대가는 보잘나위 없었다. 그렇지만 한푼이건 두푼이건 더 벌어야 했다.
마지막 운명의 가파로운 고개길을 넘어가는 아버지의 가련한 모습과 어머니의 눈물진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메를 들어 철판을 쳤다.
(조금만 더하자, 돈을 더 벌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밤일까지 했다.
내가 다섯번째 품삯을 탔을 때 업주가 나에게 찾아와서 선심이라도 쓰듯이 말하는것이였다.
《영선이,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들고 이것저것 생각할것 없잖어. 〈계〉에 한번 들어보렴.
〈계〉에 들면 돈을 불굴수도 있고 요긴한 때 목돈을 찾아쓸수도 있잖어. 사람이 돈을 벌자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업주의 말을 들어보니 과시 그럴듯했다. 이왕이면 《계》에 들어 돈도 불구고 목돈도 쓰고싶었다.

어찌보면 순진한 마음이라 할가. 어쨌든 나는 업주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계》에 들었다. 내가 번 돈을 남김없이 고스란히 《계》에 밀어넣었다. 목돈을 타서 아버지께 좋은 약을 드리고싶은 희망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비록 몇푼이 되지 않았지만 《계》에 바친 돈이 늘어날수록 나는 제나름대로 자라나는 돈머리를 생각하며 저으기 자신을 위안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제 한달만 있으면 《계》의 돈을 찾게 되였을 때 《계》의 돈을 말아보던놈이 돈을 털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말았던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그만 자리에 폭 주저앉고 말았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하늘처럼 믿었던 일루의 희망이 하루밤사이에 허물어졌기때문이다.

약을 기다릴 아버지의 해쓱한 얼굴이며 가정의 모든 시름에 짓눌려 너무도 일찌기 파파 늙은 어머니의 가냘픈 모습이 자꾸만 눈뿌리에 감겨들어 도저히 마음을 눅잦힐 길이 없었다.

가만히 생각할수록 《계》에 들라고 요사스럽게 꼬이던 업주놈이 얄밉기 그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여올라 업주한테 찾아들어갔다.

《〈계〉돈을 찾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숨져가요.》

비굴할 정도로 나는 애원하였다.

《〈계〉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돈은 번개불에 구워먹고 우리 집 부뚜막에 와서 달라고? 흥! 그 돈 난 몰라.》

《아니 주인님이 〈계〉에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와서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낸들 무슨 수가 있어? 그녀석이 돈을 집어넣고 줄행랑을 놓았는데.》

《그럼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든가 무슨 방법으로라도 돈을 찾아야 할게 아니예요.》

《난 모른다. 잔말 말고 나가라.》

업주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보아하니 업주가 도망친녀석과 짜고든것이 분명하였다. 그러잖으면 무엇때문에 그 약차한 돈을 훔쳐갖고 도망친놈을 그냥 둘수가 있을가.

나는 그냥 업주에게 들이댔다.

이것이 내가 업주의 비위를 상하게 만든 리유였고 철공소에서 쫓겨난 구실이였다.

나는 부아가 동해 업주놈에게 찾아가서 화풀이를 하느라 그놈의 책상을 뒤집어놓았고 유리창 몇개를 까부시였다.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돈 없고 권세 없는 최하층 백성이 당하는 또하나의 슬픔이라 할가.

나는 또다시 실업의 길에서 헤매였다. 당장 배가 고팠다. 허기가 져서 제대로 걸을수도 없다. 그렇다고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의 한숨을 자아낼수도 없었다.

옷은 다 꿰졌다. 나는 밑천이 없이도 할수 있는 넝마주이의 길을 택하였다. 말하자면 《쓰레기인생》의 길에 몸을 실은것이다.

넝마주이통을 메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가냘픈것인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실력을 자랑하던 내가 넝마를 줏다니, 기막힌 일이였다.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학교동창들 보기가 무서웠다. 그들이 지나다 볼가봐 머리를 푹 수그리고 넝마를 주었다.

그러나 이남땅에서는 넝마주이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쓰레기장이 있는곳에는 의례 그 주인이 있었다.

내다버린 쓰레기에도 임자가 있었고 그것을 줏는 권한도 몇십만원에 거래되고있다.

돈 한푼 없는 나는 넝마를 줏는《권리》도 살수 없었다. 그러나 비위를 무릅쓰고 다짜고짜로 쓰레기장을 뒤졌다. 어느날 쓰레기장에서 넝마를 줏는데 웬 중년사나이가 다가오더니 점잖게 한마디 거는것이였다.

《여 불쌍한 친구, 이 쓰레기통에도 임자가 있어. 다른델 가서 줏게나. 사정은 같지만 우리 사정도 봐주게.》

넝마주이를 하는 사람들도 무슨《회》같은것이 무어진듯싶었다. 그는 가난한 넝마주이인생들의 회장인것만 같았다. 그 주위에는 코흘리개 조무래기들이 그의 지휘에 따라 넝마를 거두고 선별하고있었다.

나는 간청하였다.

《이봐요. 오늘만 넝마를 줏게 해줘요. 철공소에서 번돈을 다 떼웠어요. 집에선 아버지가 앓고있으니 어찌하겠어요. 절반을 바칠테니 제발 줏게 해줘요.》

나의 진정이《회장》의 가슴에 울린것 같았다.《넝마주이회 성원》들인 조무래기들이《회장》에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인데 같이 줏게 하자고 서로 말하자 그는 승낙하는것이였다.

《집사정이 딱한 모양인데 절반을 바치지 말고 모두 가져가라.》

말만이라도 고마왔다.《쓰레기공화국》인생들의 인심은 참으로 좋았다. 동정도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 나눌줄 아는것이 아니랴. 한없이 반가왔다. 이 도적놈같은 서울땅에도 이처럼 인정이 두텁고 고마운 인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으기 위안이 되였다.

쓰레기장을 모조리 뒤지고난 다음 한 30대청년이 땅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집어들고 피우더니 한마디 던지는 것이였다.

《요즘 청와대에서는 머리를 앓는다고 해. 청와대의 〈민원창구〉라는데는 별의별 편지와 전화가 다 날아든대.》

《나도 그런 말을 들었어.》

그들은 흥미있는 말을 서로 건네는것이였다.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주었다. 그들의 말대로 청와대의 《민원창구》에는 이런 쪽지편지가 날아들었다고 한다.

《청와대주인아, 들어보라. 우리 민중은 배고파 못살겠다. 매일 매맞아 죽어간다.

대통령을 갈아버리겠다. 대통령도 갈고 국회도 갈고 밭도 갈고 모두 갈아엎겠다.

백성민》

한번은 이런 전화가 걸렸다고 한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구두 무슨 대통령이야!! 3일안으로 돈 2억 5천만원을 우리 실업자구제명목으로 창경원입구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5일안으로 무사치 못할줄 알아라.

한강실업자회 일동.》

어떤 편지에는 또 이렇게 씌여있었다 한다.

《양코배기한테 바치는 뢰물을 우리한테 가져오너라. 만일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빨리 수유리공동묘지로 가지. 지옥에서 리승만이 부르고 있어…》

들을수록 흥미가 있는 이야기였다.

겉엔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깨끗하고 청신했다.

《쓰레기인생》들이 수십명이 모여 한창 흥이 나서 말할

때 《잠바》를 입은 한 안경쟁이가 한걸음 나서더니 한마디 주요발언을 하는것이였다.

《에ㅡ이 쓰레기장에 모인 넝마주이인생들! 이제 방금 말한것처럼 우리 백성들의 민심은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장차관들, 특권족속들을 모두 때려엎으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밥이 그립고 자유가 그립고 통일이 그립습니다.》

대학중퇴생인듯한 26대 젊은이가 한마디 끼여들었다.

이때 열이 오른 《안경쟁이》는 허리에 두손을 올리더니 또박또박 력점을 찍으면서 말하는것이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인생들도 공화국을 정식으로 무어 사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제히 대답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쓰레기공화국〉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쓰레기공화국〉은 우리처럼 넝마를 줏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모든 백성들의 리익을 위하는 공화국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모인 〈쓰레기공화국〉의 성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여 넝마를 줏는 한집안식구들입니다.

우리 공화국도 누데기를 벗고 행복한 민중공화국으로 될 날이 꼭 올겁니다.》

《넝마주이인생들》속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의 말은 듣기만해도 힘이 솟았다.

나도 이제부터는 《쓰레기공화국》의 성원이 아닌가.

비록 살아갈 앞길은 막막하고 배는 고파도 이처럼 도래할 미래를 그리는 랑만이 굽이치고있었다.

이 땅의 버림을 받는 최하층 인생의 가슴속에도 자기 미래를 사랑하는 뜨거운 민심이 흐르고있었다.

이 악의 세상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불길이 그 가슴들에 활활 타오르는것이였다.

6. 민심은 어디로 흐르나

얼음장밑으로 강물은 흐른다. 파쑈의 칼바람이 이 땅을 동토지대로 만들어도 그 빙하밑으로 흐르는 민심의 격랑…
악의 세상을 미워하는 저항의 의식과 참된 새 세상을 그리는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흐르는 민심, 민심…민심

삯군 사병으로

운명은 가혹하였다. 《쓰레기공화국》의 성원으로 서울의 오물지대를 떠돌아다니던 나에게도 군입대라는 징병장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있었다.

운명이란 인간을 희롱하는 하나의 회오리바람이라고 할가, 군입대라는 숙명의 철쇄는 내 나이를 기다리다가 불의에 나의 몸을 칭칭 묶어버리는것이였다.

어느날 쓰레기를 판 돈 몇푼을 쥐고 어깨를 떨어뜨린채 집으로 들어갔을 때 징집령장이 기다리고있었다.

어머니는 기둥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아들의 징집령장을 받아쥐고 서글픔에 울고있었다.

집에 들렸을 때 그런 사연이 깃들어있는줄 모르고 나는 또 불상사가 생겼나 하여 근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군대에 나가란다. 네가 군대엘 나가면 이 집은 어떻거냐? 야 세상도 모질구나.》

어머니는 또 눈물을 훔치는것이였다.

나의 가슴은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내가 만일 군에

나가면 앓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시름은 어떻게 덜어준담?

만가지 시름에 짓눌린 나는 그대로 울고만 있을수 없었다. 한번 집사정을 해당기관에 아뢰고싶었다.

서울 병무청에 가서 진정을 내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동사무소 호병계에 진정서를 냈다.

《…저의 집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여 군입대를 널리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집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군에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앓아죽고 어머니는 굶어죽게 됩니다.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징집에서 면제해주셔요.

방위소집병으로 집에서 군살이를 하게 해주셔요. 징집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만일 군에 기어이 나가야 한다면 1년후로 미루어주셔요. 부모님들을 살려놓고 군에 입대할수 있도록 은정을 베풀수는 없겠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셔요.…》

글씨가 눈물에 얼룩이 지도록 구차한 사연을 깨알처럼 박아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나운 파도가 이는 망망한 바다우에서 애오라지 가느다란 목소리로 구원을 부르짖는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정한 세월의 사나운 파도는 나의 진정을 들은체도 않고 삼켜버리는것이였다.

나는 할수없이 군으로 떠나야 했다.

한숨과 눈물에 기둥이 썩어내릴것만 같은 판자집을 떠나 그 죽음의 군살이에 몸을 잠그어야만 했던것이다.

울적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날 동사무소 호병계에서 나

를 찾아왔다. 호병계직원은 병무청에서 보내여 왔다고 하면서 첫마디부터 상냥스러웠다.

그렇듯 얼음처럼 차거운 세상에서도 그처럼 따스한 온기를 가슴속에 뿜어주는 고마운 인정이 있을가싶었다.

내 무르팍에 바싹 다가앉으며 하는 호병계직원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영선군 집사정이 어렵다지?》

《네.》

나는 얼결에 대답해놓고도 어리둥절했다.

대낮에 사람의 생눈을 뽑아가는 세상에서 낯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정답게 어깨에 손을 얹어놓으며 동정해주는것이 너무도 이상해서였다.

나는 그의 다음말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징집령장을 받았으니 어찌겠나. 집살림이 여간 말이 아니겠는데…》

《네, 그래서 전 호병계에 진정서를 내서 좀 사정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 진정서나 내서 될것 같으면 걱정도 안하겠어. 군에는 아무래도 나가야 해.》

《그럼 우리 집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이왕 군엘 나갈바치면 꿩먹고 알먹는게 좋지 않아?》

《꿩먹고 알먹다니?》

나는 귀가 벌름해졌다.

《종로거리 〈ㅅ〉은행리사장네 아들대신에 군엘 나가면 군사복무기한도 마치고 돈도 얻겠다.…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는게 안여?》

《??》

나는 그 호병·계직원을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는 나의 눈길을 한번 흘끔 곁눈질해보더니 인차 말꼬리를 이었다.

《나이 20대가 되면 누구나 군엘 갔다와야 하거든. 말하자면 군복무란 우리 사회에서는 인생에 반드시 겪어야하는 젊은 시절의 홍역과 같다니깐. 그래서 리사장네 아들 이름으로 군에 복무하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군복무기한을 마치는것이나 다름없거든. 얼마나 좋은가.

자, 선불로 받으라구. 100만원이야. 이제 영선군의 집살림은 리사장네 집에서 잘 돌봐줄거야.》

그는 이렇게 선심을 쓰는척 하면서 나의 무르팍에 약차한 돈뭉치를 얹어놓는것이였다.

기막힌 일이였다. 삯군으로 군에 가라는것이였다.

강한 쇠붙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것 같은 충격때문에 나는 그만 자리에 쓰러질번하였다. 나는 정신적 지주를 잃고 흐리멍텅한 정신세계에서 갈팡질팡하였다.

나의 귀전에는 그자의 간드러지는 말소리가 울렸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머리를 쓰면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얻을수 있단말이야.

영선군의 집살림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수소문해서 그런 호떡이 굴러들게 했으니 그리 알고 결심하라구.》

한마디로 그는 제가 선심을 써서 그런 행운이 나에게 차례졌다는것이다.

보아하니 그자 역시 거간군이였다. 그가 리사장네 아들을 의무병역에서 빼놓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뢰물을 받아먹은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어찌하랴. 이놈의 세상이란 서로 속이고 속히우며 살아가기 마련인걸.

나는 정신을 다잡고 곰곰히 생각하였다.

(어쩔가? 아무래도 군복무에 걸려든걸… 이왕이면 돈을 받고 나간다?

만일 그렇다면 내 이름앞으로 나온 징집령장은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그에게 한마디 건넸다.

《그렇게 생각해주어 고맙소만 내 이름으로 나온 징집령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리사장네 아들 이름으로 군에 나가면 나는 곱배기로 군에 복무해야 하지 않아요?》

《하— 공연한 걱정일랑 그만두라구. 내가 호병계직원이니까. 어련히 처리하지 않을라구. 내가 이래뵈두 그만한것쯤 무난하게 처리할 힘은 있단말이야. 또 막상 군에

나갔다가 훈련에서 어디 다치던가 앓아 드러누우면 인차 집에 돌아올수도 있잖어. 사람이란 꾀를 써야지.—》

《……》

나는 입을 다물고 다시 곰곰히 생각하였다.

생각할수록 눈물겨운 일이였다. 돈이 없어 가난뱅이로 사는탓에 군에 복무해도 남의 이름으로 나가다니!!

그는 망설이는 나를 재촉하더니 리사장의 아들징집령장을 내손에 쥐여주며 말하는것이였다.

《자, 이 령장이나 받으라구. 그 후일은 호병계에서 내가 다 처리할테니.

그럼 영선군이 승낙한줄 알고 난 가보겠어. 군의 집걱정은 말라구. 후에 나도 짬짬이 들려 리사장네집에 그 사정을 알려주지 않으리. 백만장자나 다름없는 그 집에서 군의 집식구쯤 먹여주는것은 새발의 피야.》

그는 나의 등을 툭툭 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회오리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다가 지나간것 같기도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것 같기도 했다.

한참만에 호병계직원이 쥐여준 그 징집령장을 보니 《안우길》이란 이름이였다.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부모가 지어준 《김영선》이란 이름대신 《안우길》이란 이름으로 사병생활을 해야 한단말인가!

순간 슬픔이 확 밀려들어 저도 모르게 두줄기의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도 시름겨운 살림에 너무도 일찌기 늙어가는 어머니도 울기만 했다.

나는 망설이였다.

(순호군이나 일수, 아니 순이씨나 운성교수를 찾아가 의논할가? 아니야, 그들도 다른 수가 없어. 차라리 만나지 말자.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더 괴로와 할수 있어. 더 이상 벗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 편지나 부치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한 나는 밤새껏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이렇게 되여 《안우길》이란 이름을 가지고 군살이를 시작하게 되였다.

말하자면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삯군사병》으로 군복을 입게 된것이 아닌가.

아! 삯군사병!

이것이 나에게 차례진 운명인가. 이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자니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방위소집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기한을 마쳤으면 하던 나의 기대는 물먹은 토담벽처럼 무너지고말았다.

기어이 현역에 끌려가야 하는가!

어느덧 호병계에 호출되여간 나는 병무청에 모여 징병검사에서 2급을 받게 되였다.

군복무에서도 돈만 있으면 현역보다 훨씬 쉬운 보충역에 떨어질수 있었다.

군의에게 50만원만 찔러주면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떨어질수 있었다.

돈있는 집 자식들은 모두 그 길을 택하고있었다.

신병교육대에 끌려간 나는 교육련대에서 4주간의 신병훈련을 받았다.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연무대에서 당하는 첫 고통이 가장 괴로왔다.

《사병제일주의가 고통제일주의》로 불리우는 죽음의 연무대였다.

어느날 정훈장교가 나타나더니 한마디 고함을 쳤다.

《너희들은 제복의 군인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다. 알았는가?》

신병들의 대답이 잘 들리지 않자 정훈장교는 다시 고함을 쳤다.

《알았는가?》

여전히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60여명의 연무대 신병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마주보며 눈짓을 할뿐 대답이 없었다.

약이 오른 정훈장교는 또 고함을 질렀다.

《네놈들이 첫 기합을 받아보아라. 변소바닥핥기 기합!》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군대 명령이라 우리는 할수 없이 더러운 중대 변소바닥을 혀로 핥는 기합을 당했다.

더러운것이 혀바닥에 닿을 때의 그 고통은 뭇매 봉변을 당하기보다 더 괴로왔다.

인간을 고대사회의 노예보다 더 처참하게 취급하는 이 무지한 군살이의 첫 세례는 너무도 가혹하였다.

사병들은 아무말없이 명령에 순종하는척하지만 첫순간부터 울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날저녁 막사에 들어온 사병들은 끼리끼리 모여 불평을 털어놓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신병들속에는 대학교재학생들이거나 대학졸업생들이 많았다. 어떤 신병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등 각 대학들에서 데모를 벌리던 학생들이였다.

《여, 이거 참을수 있어?! 우리를 아프리카의 들소처럼 취급하는것안야. 우리가 잘못한것이 뭔가말야. 제길할…》

《우리를 인디안처럼, 야만처럼 다루는 악질장교들을 점찍어두자. 한번 봉변을 안겨야지.

변소핥기가 뭐야. 변소핥기가! 이 끔찍스러운 기합을 어떻게 고안해낼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애젊은 사병들에게 그런 야만적인 기합을 강요할수 있단말인가!》

《당장 연무대의 신병들 공동명의로 항의서를 만들어 들이대자. 제길할 다시 그따위 기합을 들이대면 모두 제끼고 도망치고말테다!》

서로 주고받는 그들의 울분은 하늘에 닿을것만 같았다.

그들의 마음은 나의 심정과 똑 같았다.

나는 그들틈에 끼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몇배나 더 세찬 격분을 토하고싶었다.

연무대의 밤은 깊어만 갔다. 군살이의 첫 봉변을 당한 신병들은 잠을 이룰수 없었다.

콩나물시루처럼 비좁은 막사에서 서로 맞붙어 누운 그들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첫순간부터 폭발을 지향하는 울분의 도화선이 늘여지고있었다.

고통의 밤, 울분의 밤은 깊어만 가나 사병들의 마음속에는 아침이 밝아오고있었다.

«도식당원» 총회

민심은 철쇄로 묶을수 없는 법이다. 비록 팔다리나 몸은 쇠사슬로 묶을수 있어도 마음이야 어떻게 결박할수 있는가.

그래서 그 누가 마음은 철쇄보다 강하다고 했는지 모른다.

살벌한 파쑈의 칼바람은 강산을 휩쓸고 강압의 쇠사슬은 모질게 생명을 위협해도 자주의 리념이 꽃피고 민주와 통일의 새 강산에서 살기를 바라는 민중의 지향은 하나로 이어지고있다.

나는 이런 민심의 의지를 어디서나 보고 읽을수 있

었다.

《국군》사병들의 가슴속에서는 그 언제나 자기를 지키고 강요된 굴종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심이 도도한 격랑이 되여 흐르는것이다.

겉으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 식의 생활체계가 있었다.

어느날 우리는 《유엔군고지》로 불리우는 높은 《ㄷ》산에서 원자전 가상하의 공격전투를 끝내고 련이어 내한훈련을 하였다.

내한훈련이란 얼음물이 흐르는 차거운 강물을 건느는 훈련이였다. 내한훈련을 끝내고 중대막사에 들어온 우리 사병들은 서리맞은 풀잎처럼 느른해서 풀썩풀썩 주저앉았다. 모두 저녁밥을 먹자 잠자리에 곯아떨어졌다.

그날밤따라 나는 공교롭게도 보초에 걸려들었다. 내한훈련끝에 중대의 식당보초를 서게 되였다.

깊은 밤 보초를 서자니 배가 더없이 고파났다.

차라리 꿈속에 잠기면 배고픔도 잊으련만 보초를 서게 되니 더없이 허기증이 났다.

오늘저녁 먹은 밥은 주먹밥 한개만했다. 거기에다가 국은 나이롱국이였다. 맹물처럼 훌훌 마시면 단숨에 넘어가는 국이였다. 씹을것도 없었다.

당국에서는 국군의 식사가 《자유급식제》라고 선전을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였다. 말하자면 사병들이 먹고싶은대로 먹는다는것인데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광포》였다.

목숨이나 겨우 붙어있을 정도의 밥과 국을 주었다. 한마디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픈데다 내한훈련을 한 뒤여서 오한이 났다.

나는 추워 주위에 널려있는 가마니때기를 몸에 휘둘렀다. 누구도 보지 않는 밤인데 부끄러울것도 없었다. 가마

니를 휘감으니 한결 훈훈하였다. 사람이란 얼어죽는 법이 없는가싶었다. 머리만 쓰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었다.

나는 우렷이 비치는 달빛아래서 자기 모습을 둘러보았다. 흡사 그 모양은 농촌 초가집 굴뚝 같았다. 나의 머리는 쭈뼛이 솟은 굴뚝대가리 같았고 가마니를 휘감은 몸뚱이는 겨울에 랭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가마니로 겹겹이 감아놓은 굴뚝몸뚱이 같았다.

《굴뚝보초》라는 말이 국군사병들속에서 떠도는것이 일리가 있었다. 벌써 가마니로 몸을 휘감은 수많은 사병선배들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굴뚝보초》란 말이 류행어처럼 떠도는것이 아닌가.

밤은 깊어만 갔다. 고요한 정막이 깃들고있었다. 이따금씩 귀뚜라미가 울뿐이였다.

느닷없이 너덧명의 사병들이 살금살금 다가오는것이였다. 나는 눈길에 초롱불을 켜고 심상치않은 그들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살폈다.

(혹시 나쁜놈이 아닐가? 아니면…)

겁이 왈칵 났다. 총을 으스레 잡고 호각을 불려는 순간이였다.

뒤에서 웬 사병이 바람처럼 날아들어 나의 두손을 꽉 붙잡는것이였다.

《우길이, 나야. 나! 〈도식당〉총재란말이야.》

《도식당》이란 음식을 도적질해 먹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였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최일병이였다. 그옆에는 고참병, 윤일병, 박상병이 히죽이 웃고있었다.

《이 굴뚝보초야!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겠나?》

최일병이 약을 올리는 말이였다.

《왜 밤중에 나왔어. 자지 않고?》

나는 의심쩍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잘도 배가 불러야 오는거야.》

《그래서?》

《네가 오늘 식당보초를 서니 우리 〈도식당〉생활을 해야 할게 안야.

우길이, 너도 배가 쪼르륵하지? 먹을것을 옆에 두고 굶는 사내야말로 로보트지.

여, 그까짓거 다른것은 하나도 지킬것 없어. 이제 식당안에서 《도식당》 상무위원회를 열겠는데 그거나 지키라구.》

최일병은 고참병에게 눈을 질끔 감았다 떠보이는것이였다.

《들키면 줄기합을 받을라구 그래?》

내가 겁에 질린 눈을 크게 뜨며 말하자 그는 《〈도식당〉원이 저렇게 배짱이 없다구야.… 죄는 무슨 죄라구 그래.

사단장은 〈후생미〉요, 〈불식미〉요 하면서 매달 우리 쌀을 몇포대씩 훅—삼키는데두.》

옆에 섰던 경상도내기가 함께 북을 치는것이였다.

《련대장도 두포대, 대대장도 한포대씩 떼여먹는당기요.》

최일병은 나의 등을 툭 치며 재빨리 이었다.

《장교나으리들은 사병들의 몫으로 나오는 쌀을 포대로 잘라먹고도 자기 집이 아니라 우리 사병식당엘 나와서 상관이라고 특식을 하지 않나. 그러니 우리는 깡보리밥이나 나이롱탕밖에 얻어먹지 못하잖아!

때문에 우리 〈도식당〉원들은 오늘저녁 목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심중히 토의하고 비상대책을 세워야겠단 말이야.》

익살군 최일병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싫증나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나의 대답이 있기도전에 다른 《도식당원》들이 식당 주방안으로 뛰여들어가 쌀을 꺼내서 난로불에 밥을 짓는것이였다.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때 순찰병이나 장교라도 불시에 달려들어 이 광경을 본다면 어쩔가 싶었다. 그러면 나는 다된 놈이다.

그래서 나는 최일병에게 다가가 《빨리! 조용히!》 몇마디 주의신호를 주었다.

최일병이 알았다는 신호로 손을 높이 드는것이였다. 나도 인제 《도식당》활동에 공모한 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병다운 생활이였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피곤한 몸에도 자지 않고 밤중에 나와 맹렬한 《도식당》생활을 하겠는가.

《도식당》! 이름만 들어도 희한한 《당》이였다. 《국군》사병들속에서만 있을수 있는 《당》 명칭이였다. 생각할수록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도식당》이란 이름만은 걸작이였다.

《도식당원》들의 활동은 번개불에 콩을 구워먹듯 했다. 그들은 어느새 벌써 몇그릇씩 지어 먹어버린것이다.

최일병이 경상도내기를 나대신 보초를 서게 하고 나의 손목을 잡고 식당엘 뛰여들어왔다. 나더러 빨리 체하도록 밥을 실컷 먹어보라는것이였다.

막상 밥이 많이 생기니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필사적으로 밥을 먹었다.

호경기를 만났을 때 배를 불려야지 언제 배를 불리우겠는가.

최일병이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고나서 한탄조로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정말 배불리먹으니 눈물이 다 나누나. 내 오늘처럼

배를 불려보긴 국군살이 3년만에 처음이다. 참 도적질해야 배가 얼근하게 먹는 판이니 정말 이 놈의 세상이 언제가면 망한단 말이냐.》

나는 그들의 거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참 이 친구들이야말로 《도식당》 세상에서 활개치는 야간대통령이

구나. 밤의 정치는 실제상 이 《도식당원》들이 다 하는것이 아닌가.)

배들이 부르자 익살군들이 이야기판을 펴놓기 시작했다.

《야 〈도식당원〉들은 우리 소대만 있지 않을거야. 우리 소대에 이렇게 많고보면 중대, 대대, 사단…아니, 온 륙군적으로 얼마나 많겠나. 일반사회에도 있을거야.》

《그렇다능기요. 적어도 〈도식당원〉들이 700만은 넘는다능기요.》

고참병이 우정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하는것이였다.

박상병도 제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륙군뿐이겠나. 해병대에도 있을거구. 공군, 온 〈국군〉에 다 있을거야. 배고픈자는 다〈도식당〉후보당원들이야. 진짜 정당별 투표경쟁을 해서 정권을 잡을내기하면 〈도식당〉이 단연 집권당이 될결세.》

최일병이 히죽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박상병의 말이 옳아, 우리 〈도식당〉은 비밀투표를 하면 그따위 허수아비 〈민정당〉을 누르고 단연 집권당이 될수 있지 뭐.》

고참병도 제순서를 지키듯 말틈에 끼여들었다.

《〈도식당〉이란 이름이 어떤가? 굶주려서 밥이 그리운 수백수천의 백성들이 다 입당해야 할 당인데 이름이 좀 귀에 거슬리지 않아? 이름을 달리 다는게 어때?》

윤일병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이 도적놈의 세상에선 그 〈당〉 명칭이 제일 어울리는 이름이야.

사실상 진짜 〈도식당〉은 백주에 나라의 돈을 긁어 제주머니에 넣는 특권족들의 당이지. 말하자면 이 땅에서 정치를 한답시고 부정부패를 하는 오적촌무리들의 당이야. 배불리 먹는 놈들이야 모두 남의것을 등쳐먹고 훔쳐

먹는 백주의 날강도놈들이지 뭐. 진짜 〈도식당〉은 청와대의 주인이 총재로 있는 〈민정당〉이야.》

한참 익살을 피우다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최일병이 한마디로 결론하였다.

《그러고보면 우리 〈도식당〉의 정강은 사병, 백성들의 기아해방이다.

기아해방, 우리 〈당〉의 총목적 실현을 위하여 자, 그만들 들어가세.》

사병들은 모여올 때와 같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나는 제자리에 돌아와 《굴뚝보초》를 서면서 제나름으로 생각했다.

(《국군》은 푹 썩었다. 장교들이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사병들의 민심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도식당》의 정강은 정말 멋이 있는것이였다. 기아해방! 참 멋있는 정강이다.)

나는 방금 《도식당》총회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주어섬기던 말이 떠올라 혼자 웃고 또 웃었다. 어찌보면 통쾌한 일이였다.

《반공》과 신라식당

외진 산골짜기에서 국군사병의 고역살이는 흘러갔다.

또 서글픈 가을이 왔다. 푸르싱싱하던 나무잎새들은 단풍잎처럼 물들고 벌써 차거운 바람이 이따금씩 불어오는 산등성이에서는 락엽이 지기 시작하였다.

누가 봄은 정열의 계절이고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락엽을 밟고다니니 역시 생각이 깊어졌다.

생각할수록 서글퍼지고 쓸쓸했다. 그래서 나는 봄은

꿈이 부푸는 계절이요, 가을은 쓸쓸한 절망의 계절이라고 생각했다.

앓는 아버지생각, 가냘픈 어머니생각, 브라질에 팔려간 누이동생생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

천가지 생각, 만가지 시름이 가슴에 파고들어 이 마음을 한없이 쓸쓸하게 만들었다. 되도록 마을이나 서울로 한번 외출이나 해서 이 서글퍼지는 마음을 달래고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소대장과 함께 《ㅅ》시내로 들어가게 되였다. 외출하는 소대장의 몸종처럼 뒤따라 나섰다.

최창우라는 소대장은 서울 《ㄱ》대학교출신인데 정의감이 강한 30살가량의 패기있는 장교이다.

대학시절 데모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정학처분도 드문히 당했고 끝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완력이 있고 자기 소대를 이끄는 통솔력이 유별나게 뛰여나서 사병들속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더우기 불쌍한 사병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되도록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정미가 있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사병들은 저마다 그를 따랐다. 아무리 욕해도 아프지 않았다.

소대장과 함께 시내로 들어가는 나의 눈앞에는 그처럼 소란스럽던 서울의 축도판같은 시가가 펼쳐졌다.

길가의 도처에 《반공》간판이 붙어있었다. 상점, 다방, 은행바람벽… 어쨌든 사람들의 눈길이 제일 많이 미치는 곳에는 의례히 《멸공》, 《멸북》, 《반공제일》이란 표어들이 크게 붙어있었다.

지어 추녀낮은 구멍가게 깨진 유리창에도 《멸북하자》라는 표어가 되는대로 붙어 바람에 날리고있었다.

《반공》, 《반북》… 정말 그 어디서나 피로할 정도로 볼수 있는 표어였다.

그 《반공》 표어들을 보니 군대에서 매 걸음마다 《멸

공》, 《멸북》 하면서 뛰여다니던 일이 얼핏 떠올랐다.
《초전박살》,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자》고 고함을 지르던 악질정훈장교들의 새된 목소리가 귀전에 되살아나는 것이였다.
온 이남땅이 《반공》, 《멸북》의 표어와 현수막속에 잠겨있는것이다. 누가 말한것처럼 정녕 이남땅은 《반공》으로 빚어지고 《멸공》으로 부풀어오른 땅인것만 같았다.
나는 그런 표어를 보고 리해가 잘 가지 않았다. 한 피를 나눈 이북동포들인데 어떻게 한식솔이나 다름없는 형제를 그렇듯 적처럼 대할수 있을가.
《반공》구호로 뒤덮인 시가를 걸어가는 나의 마음속에는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못견디게 갈마들었다.
어느날 《동아일보》를 보니까 《반공》은 관념적 단계로부터 리념적 단계로 넘어갔고 리념적 단계로부터 행동적 단계로 다시 전변되였다고 씌여져있었다.
그 말이 옳았다.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때만해도 하루일과가 《반공》으로부터 시작되여 《반공》으로 끝났다.
하루종일 《반공》의 소란속에 흘러갔다. 어떻게 보면 《반공》은 이 땅에서 숨쉬며 걸어다니는 하나의 통행증이기도 했다.
최소대장도 《퉤!》 하면서 《온통 반공이야》라고 입속말로 푸념처럼 늘어놓았다.
시내를 한참 걸어가는데 별스레 배가 출출하였다.
소대장도 배가 고픈 모양이였다.
《신라식당》이라고 써붙인 음식점앞에 이르자 소대장은 나를 부르는것이였다.
《야—안우길! 식당엘 들어가 정찰하고 오라. 헌병놈들이 없나…》
소대장의 속마음을 다 아는터여서 나는 식당문을 살며

시 열고 들어가 보고 나왔다.
《소대장님, 없습니다. 쬐쬐한 식당인걸요.…》
《임마, 잠자코 따라와!》
소대장은 길 아래웃쪽을 날쌔게 바라보더니 식당안으로 바람처럼 날아들어갔다.
식당은 3류급 식당이였다.
소대장은 주머니가 불룩하지 못하지만 식당에 가서 여윈 창자를 뜨거운 기름기로 열열하게 덥히고싶은 심산이였다.
《신라식당》엘 들어서는 순간 고기를 튀기는 냄새가 가뜩이나 궁한 나의 창자를 못견디도록 놀래우는것이였다.
나는 소대장이 시키는대로 식당 탁상에 마주앉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도 식당레지(안내양)가 오지 않았다.
나는 소대장의 눈치를 살피다가 주방 바람벽에 붙은 식당《메뉴》가 있는데로 다가갔다.
그 주위에는 시골사람들 십여명이 모여 《메뉴》를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들속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웬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좁혀가며 《메뉴》를 들여다보고있었다.
얼핏 보아하니 할아버지는 벽촌에서 온것 같았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집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고있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별로 측은하게 여겨졌다.
돈이라도 있었으면 할아버지에게 따스한 음식을 사서 주고싶은 마음이 불쑥 치밀었다.
촌할아버지는 《메뉴》에 적힌 글자를 한참 뜯어보더니 음식을 청하는것이였다.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고 이왕 도회지에 들렸던김에 별음식을 먹어볼 생각으로 표를 떼는

중년녀인(얼핏보니 회계원인듯 싶었다.)에게 말하는것이였다.

《거 반공 두그릇만 주슈.》

그 녀인은 할아버지를 의아쩍게 바라보며 되물었다.

《반공 두그릇이라니요?》

《여기 이렇게 반공이라고 크게 써있지 않수.》

《반공??》

《예, 반공!!》

할아버지는 공연히 되묻는다는것이였다. 그는 주위에 모여선 사람들에게 《메뉴》를 손짓하며 그렇지 않느냐고 동정을 구하는듯 싶었다.

나도 그렇고 소대장도 흥미가 있어 할아버지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정말 식당 《메뉴》에는 《신라남비탕》, 《아리랑국수》 등 음식들과 탁주들이 주런이 적혀있었고 그옆에 《반공》이라고 크게 쓴 표쪽이 붙어있었다.

《반공》이란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할아버지는 《반공》이라고 먹음직하게 쓴것이 아마 별음식 이름으로 알았던모양이다.

주위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따라 웃고 소대장도 폭소를 터뜨렸다. 안내양도 꺄르륵 웃는것이였다.

나는 난처해하는 할아버지에게 귀띔해줄 심산으로 말하였다.

《할아버지, 〈반공〉이란건 음식이 아니랍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아, 그게 음식도 아니라면 〈반공〉이란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써붙였누?》

《그 말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거예요. 할아버지.》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
《그럼 공산주의란건 또 뭣이기에 이 식당에까지 반대한다고 써붙였누?》
나는 상관의 앞에서 더는 대답하고싶지 않았다.
이때 소대장이 곁들어 말하는것이였다.
《공산주의란건 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북사회입니다.》
소대장은 제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럼없이 대답하였다.
《이북?!》
《그럼요. 이북에서 하는 정치가 공산주의거든요.》
그는 제가 생각하는대로 할아버지를 일깨워주는것이였다.
주위는 조용했다. 이북정치에 대하여 몹시 알고싶은 할아버지였다.
최창우소대장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나서 아무 꺼리낌없이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말해주는것이였다.
《이북 공산주의라는것은 너나없이 골고루 잘사는거예요. 땅도 농부의것이래요. 그러니 소작료도 없구요. 세금도 없고, 빼앗아가는것도 없고, 부정도 없대요. 모두가 근로한대요. 그리고 정치도 백성이 하구요. 공부도, 치료도 무상으로 한대요. 간추려 말하면 희한한 백성의 세상이지요.》
소대장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나는 소대장에게서 이북을 헐뜯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지만 이처럼 이북의 희한한 세상을 무척 동경하고있는줄은 미처 몰랐다.
《뭐, 그게 공산주의라면 어느 쓸개빠진 녀석이라구 그걸 싫다 하겠누. 우리 둘째 녀석두 이북에 있는데 반공이라면야 그래 이 아비가 제아들과 등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유.》
소대장은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의 귀에 대고 주먹나팔로 솔깃하게 말하는것이였다.

《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북은요, 더더구나 만백성이 우러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치를 베푸시는 지상천국이거든요.》

《그렇지 내가 왜 **김일성**장군님을 모르겠누. 장군님은 지난 전쟁때 나에게도 땅을 분여해주셨는데 왜 그분의 은혜를 잊겠누.》

할아버지는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성을 발칵 내는것이였다.

《이보게 군대어른, 자네말이 옳다네. 이 망할놈의 세상에서 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남없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하는것이 평생소원인데… 응, 그 표쪽을 당장 떼여버리시유.—》하고 할아버지는 지팽이로 《반공》표쪽을 원망스럽게 가리키는것이였다.

이때 식당 회계원이 다가오며 할아버지에게 귀속말로 말하는것이였다.

《쉬—할아버지, 조용히 말하세요. 여기 사복검정개(경찰)들과 밀정들이 욱실거리는데 공연히 화를 입겠어요.

그깐놈의 표쪽이야 붙은들 뭘하나요.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고 이자처럼 웃어버리면 되는거죠 뭐.》

《하긴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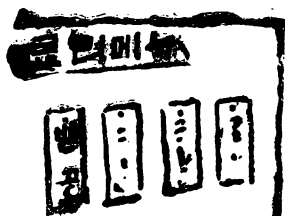
《그럼요. 사실 저런 표쪽을 붙이지 않으면 식당같은 접객업소들에서는 영업을 못하거든요.

말하자면 특수영업허가증이나 다름없는거예요.》

《특수영업허가증?! 하하하…》

말하는 사람도 웃고 듣는 사람도 웃었다.

보통 잘 웃지 않는 소대장도 따라 웃었다. 나 역시 통쾌하여 소리내여 웃었다.

그 웃음속에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만병통치약》으로, 모든 일의 《허가증》으로 간주하는 위정자들을 야유하고 조소하는 비난의 색조가 짙게 서리는것이였다.

《반공이 특수영업허가증이라… 퉤!》
사람들의 말을 곰곰히 듣고있던 할아버지는 불현듯 《반공》표쪽에 침을 뱉아버리는것이였다.
나는 그 할아버지며 그에게 귀띔해주던 소대장이며 식당회계원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있음을 느꼈다.
민심은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고있었다. 진리를 파악한 사람들의 심장은 항상 그 진리를 향해 줄달음치고 그 진리를 사수하며 부정을 불사르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쓴맛을 다시며 말을 이었다.
《이북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지. 백성들앞에서 제법 으름장을 놓으며 거드름을 피우는 전두환패거리들이 이북이 무서워 쩔쩔 매누만.
얼마나 무서우면 식당에까지 〈반공〉표쪽을 붙여놓겠는가 말이야.》
최창우소대장과 함께 나는 눅거리 온반을 한그릇 사먹고 식당을 떠났다.
한참 묵묵히 걸어가던 소대장은 나를 흘깃 쳐다보더니 말을 건네는것이였다.
《우길이, 이제 방금 이 땅의 민심을 들었지. 민심은 북으로 향하고있네. 해바라기는 어디서나 태양을 따르는 법이야.》
《네, 알았습니다.》
《살다가 별난 일을 다 보누만. 그 촌할아버지가 정치를 한답시는 청와대족속들을 단단히 골탕을 먹여놓았지.
정치가 백성을 속이는 기술로 통용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 민중은 전두환의 숨가쁜 반공광증에서 이북의 강대성을 느낄따름이야.
우린 군에 복무하고있지만 전두환의 파수병이 되면 안돼. 미군놈의 총알마개가 되여서는 더욱 안돼.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북형제들을 겨냥하여 총을 들고 있겠나.

우길이나 알고 다른 사람에겐 입을 봉하고있어.》

나는 소대장이 고마왔다. 자기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그가 한없이 미더웠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거리를 걸어갔다.

모순된 이 세상은 오늘 신라식당에서 얼마나 통쾌한 만화를 제 이마빡에 그려붙였는가.

아마 그것은 세계만화전람회에서도 단연 노벨상을 받을만한 대정치만화였다.

신라식당에서 일류급 만화가로 등장한 촌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소대장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은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듯 끝없이 상쾌하였다.

7. 해님따라 별님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저 해빛, 저 별빛…
그 눈부신 빛발이 있어 우리의 앞길은 환한것일가.
해님따라 별님따라 나도 가련다. 리상이 꽃피는 삶의 새 언덕으로…

은 하 수

사람이란 한번 뜻을 나눈 다음에는 서로 통하기 마련인가싶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안 다음에는 결합하기가 쉽다. 최창우소대장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나는 최창우소대장이 대학교선배이기때문에 그를 따르는것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정의감이 불탔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신라식당에서 시골할아버지한테 이북에 대한 참된 말을 하던 소대장이 늘 떠오르군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그가 《국군》의 소대장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가는 생활의 선배라고 생각했다. 나만이 아니였다. 소대의 사병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그를 미더웁게 바라보았다.

정훈장교들이 나타나 《반공》과 《멸공》을 부르짖으며 이북을 헐뜯어도 그만은 딴 말을 했다.

어느날 창우소대장은 나더러 자기 방에 들리라고 했다. 내가 달려가니 그는 한번 픽 웃고나서 말하였다.

《우길이, 나하고 전라도엘 갔다오지 않겠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명령이 아니야, 대대장이 나보고 사병 한 사람을 데리고 전라남도 강진땅에 가서 경운기(소형 뜨락또르) 한대를 사갖고 오라지 않겠나, 강진땅엔 자기 사촌벌 형이 있는것 같애. 경운기를 사다가 기지주변 황무지를 개간해서 돈벌이 하자는 심산이겠지.》

《가겠습니다.》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군살이가 지긋지긋한데 바람이나 쐴겸 가보자구.》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도해기슭으로 떠났다.

대대장의 지시대로 자기 소대는 다른 소대장이 림시 맡아보기로 하고 몸을 뺀 창우소대장이였다.

강진땅에 도착한 우리는 맡은 일을 제꺽 끝내고 다문 며칠이래도 다도해구경이나 하고 들어갈 심산으로 바다기슭에 자리잡은 한 농가에 림시 거처를 정했다.

언제나 호수처럼 잔잔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푸른 바다, 수평선 저 멀리에 점점이 떠있는 고요한 섬들과 어부들이 저어가는 매생이같은 고기배들…

시원한 해풍에 머리카락이 하염없이 날리는 바다가에 나가 하루종일 고기를 낚고보니 그 많은 시름과 고달픔이 일시에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지옥같은 국군살이에도 이런 한가한 순간이 있을가싶었다. 강요된 생활에 순종할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생활을 가꾸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할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하던 창우소대장의 뜻이 크나큰 파장을 안고 이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바다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해변가에 밥깍지를 엎어놓은

듯한 윤로인의 초가집 웃방으로 들어갔다. 윤로인 내외는 몹시 마음씨가 상냥하였다.

캄캄한 웃방에 드러누워 초저녁부터 잠을 청하자니 집생각이 갈마들어 도저히 꿈나라에 몸을 잠글수가 없었다. 어느 집에 들려 막걸이잔을 얻어마시고 돌아온 소대장은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점점 정신이 또릿또릿해진 나는 문가에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방 마루에는 마을사람이 여럿이 돗자리를 펴고 모여앉아 전설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윤로인의 집은 마실군들이 모여드는 마실방으로 동네에서 알려져있었던것이다.

탐스럽게 자란 감나무가 달빛에 비쳐 밤의 정서를 한결 돋구었다. 모기불을 피워놓은 마당가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토막토막 들려왔다.

《저 하늘을 보라구. 요즘 저 은하수가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것 같지 않아, 근간에 이르러 은하수가 여느때없이 밝아졌단말일세.》

윤로인이 자기만이 아는척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위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는것이였다.

《왜 밝아졌누?》

《하늘이 조화를 부리는결가?》

모두들 알고싶다는 눈길로 윤로인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도 얼결에 문창너머 저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윤로인의 말대로 은하수는 이상할 정도로 밝아졌다. 밤하늘에 비껴간 은하수는 마치 내 마음속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았다. 사실 내가 감방에서 매일밤 저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였는지 모른다.

은하수, 그것은 분명히 뭇사람들의 마음을 리상의 세

계, 꿈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정서를 풍기는것만은 사실이다. 윤로인은 말을 이었다.

《근간에 은하수가 밝아진것은 다 곡절이 있어서 그렇네, 그게 다 이북에 계시는 거룩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선생님의 뜻이 하늘에 비꼈기때문일세.》

《**김일성**장군님?!》

《**김정일**선생님?!》

마실군들의 눈은 저저마다 빛났다.

《그렇네, 그분들의 뜻이 하늘에 비치면 은하수도 밝아진다는거요.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날 조짐이 틀림없네.》

《천지개벽?》

《그러잖구, 이제 천지개벽이라면야 미국놈이 쫓겨나고 국토통일의 문이 열리는거겠지.》

평안도출신의 윤로인은 아무 스스럼없이 말하면서 그리 길지 않은 턱수염발을 감상적으로 쓰다듬는것이였다.

《하긴 저 한나산 고목에 꽃이 피고 사슴떼들이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군, 게다가 주작이 춤을 추고 백호가 노래한대.》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한나산 백록담에 물이 찼다더군. 백두산천지에 고인물이 백록담에 흘러들어 말라버린 백록담을 적시였다더군.》

마실군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주어섬겼다.

《그게 다 좋은 조짐이지, 우리 민족앞에 대통운이 틀 징조란 말일세.

지난 왜정때 백두산의 장군별이 떠서 왜놈이 망하더니 요즘 평양하늘에 향도성이 뜨니 미국놈이 망한대.》

윤로인의 확신에 넘친 말이다.

나는 그들의 주고받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문가에 바싹 다가섰다.

《쉿— 자네 그런 말을 망탕해서 일없나? 자네집에 군대들이 들었지?》

《괜찮아.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같애. 그 사람들이 지금 한창 자고있어. 자 소릴 들어보라구. 피곤해서 지금 코를 골고있질 않나.》

사실 소대장은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꿈속에 잠긴듯싶었다.

나는 다도해기슭에 있는 이 한 농가의 이름없는 늙은이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민심을 듣고 놀랐다.

방안에서 코를 골며 자는줄 알았던 소대장도 간간이 들려오는 로인들의 말에 귀를 주는듯 한동안 죽은듯이 가만히 누워있었다.

한참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창우소대장은 문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을 엿듣는 나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쏘아붙이는것이였다.

《영선이, 로인장들의 말에 흥미가 있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소대장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를줄 알아? 그런 말은 들어도 나쁘지 않으니 실컷 들어라, 허만 조심하면 돼.》

《아니, 그럼 소대장님도 들었습니까?》

《듣구말구, 그런 말은 어디서나 들을수 있어.

이 땅에 사는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나 평양에 계시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선생님을 경앙해마지 않는단말이야.

우리 이남민중의 구세주는 하느님인가? 알라신인가? 아니야,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자유를 주고 통일을 가져다주는 길도 오로지 경모하는 **김일성**장군님과 친근하신 **김정일**선생님께서 밝혀주신단말이야.》

창우소대장의 말은 높은 격조를 안고 방안에 울리

였다.

나의 가슴이 불덩이를 안은 사람마냥 끝없이 달아올랐다.

밖에서는 마실군들의 성수나는 이야기가 여전히 꽃을 피웠다.

달빛이 흐르는 감나무밑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나의 가슴속에 비문처럼 아로새겨졌고 끝없는 흥분의 파도를 일으켰다.

밤이 이슥해지자 동네마실군들은 돌아갔다. 잠자리에 누운 나는 종시 잠들수가 없었다. 주인집 윤로인의 그 흥에 겨운 말소리며 소대장의 신념에 찬 목소리가 귀가에 메아리쳐 좀처럼 흥분을 달랠수가 없었다.

거의나 뜬눈으로 새우다싶이 한 내가 어슴새벽에 일어나보니 옆에 누웠던 소대장이 없어졌다.

나는 생각을 고를 겨를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가 주위를 살폈다. 문밖에 서있던 소대장이 나를 보더니 조용하라는 눈짓을 하는것이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이른새벽에 일어난 주인집내외는 울타리밖에 다가가 옷깃을 여미더니 북두칠성이 빛나는 북녘을 향하여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큰절을 하는것이였다.

웬일인가? 나와 소대장의 눈길이 마주쳤다. 도저히 그 큰절의 의미를 짐작할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만이 사는 숭엄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집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큰절을 한 그들은 깨끗한 은사발을 정히 들고 바다가 바위턱에 소담스럽게 자란 해당화나무와 목란꽃나무옆에 이르더니 잎사귀에서 무엇인가 그릇에 정성스레 담는것이였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우리의 호기심은 더더욱 부

풀었다.

가만히 다가가보니 그들은 잎사귀에 맺힌 새벽 첫이슬을 은그릇에 정히 받는것이였다.

큰절과 첫이슬, 이것은 나의 가슴속에 의문과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해풍에 파파늙은 머리카락을 날리며 이슬을 받는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서울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이윽고 소대장이 그들곁으로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흠칫 놀라다말고 빙그레 웃으며 반기는것이였다.

《아니 벌써들 일어나셨소?》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이 이슬을 받아서 무엇에 쓰렵니까?》

소대장의 물음에 윤로인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는것이였다.

《귀한 보약에 쓰렵니다.》

《아니 보약이라니요?》

《군대어른은 그쯤 알고있수다. 우리 가문에 한한 일이니…》

무엇인가 짐작이 가는데가 있었던지 소대장은 대뜸 왕청같이 물어보는것이였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시원히 말씀해주세요. 어제밤 문밖에서 재미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저희들도 많이 느꼈어요.》

《어제밤 이야기를 다 들었단말인가. 이거 야단났군.》

두눈이 휘둥그래진 로인은 사위를 살피는것이였다. 창우소대장은 마음놓으라는듯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은그릇에 이슬을 받는 일을 함께 거들어주었다.

《할아버지, 괜찮어요. 우리도 다 할아버지들과 같은 마

음이예요.》

《그런가?! 사람들두…》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 윤로인은 큰절과 첫이슬에 깃든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윤로인의 내외는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첫새벽에 남먼저 일찌기 일어나 북녘을 향해 큰절을 하였다는것이다.

그들이 큰절을 할 때마다 《존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생불로하시옵고 젊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만년청춘으로 계시옵기를 기원하나이다.》라고 축원의 인사를 하였다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큰절을 올린 다음 매일아침 나무잎사귀에 맺히는 이슬을 받아서 그분들께서 만년장수하시옵기를 바라는 장생불로주를 만든다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빛나는 눈빛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한나산에서 유명한 70가지 보약재를 골고루 섞어서 맑은 이슬로 술을 고으면 장생불로주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는 저 제주도로 가서 한나산을 한달가량 돌아다니며 진귀한 보약재들을 캐왔수다.

존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탄신 70주년에 올려보려는 뜻에서 70가지 보약재를 모았수다.

혹시 이북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장군님께 드려보려는 마음이지요.

우리 뜻이 성사되겠는지는 알수 없으나 하여간 우리 가문의 정성이오니 그분께 닿을 날이 오겠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혹시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지 알겠나요.》

윤로인은 한참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잇는것이였다.

《이 사람들아, 내 마음을 젊은이들은 다 모를거야. 그

리운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난 전쟁때 발뙈기 하나 없는 나에게도 땅을 주셨다우. 내 죽어도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소.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다시 이남땅에 오실 날만을 기다리지요.》
그의 눈빛은 하염없이 빛났다.
창우소대장은 저도 모르게 윤로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뜻이 너무나 갸륵하고 진정에 넘쳤기때문이다.
나도 뜻이 깊은 윤로인의 팔소매를 정겹게 잡으며 불렀다.
《할아버지！》
이 땅에 사는 뜻있는 사람들의 민심과 초상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과 얼굴에 그대로 함축되여있었다.
우리들은 서로 오래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무언의 시선우로는 천만마디를 대신하는 깊은 뜻이 흐르고있었다.
다도해의 서느러운 해풍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끝없이 흩날렸다.
해님과 별님을 따르는 그 일편단심, 아침이슬처럼 맑은 경앙의 마음이 해당화로 붉게 피여난듯싶었다.
밝아오는 바다가에는 갈매기떼들이 날아예고 저 멀리 수평선으로는 붉은해가 떠올랐다.

동심은 묶을수 없다

뜻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몸은 이남에 있어도 마음만은 해님과 별님이 빛나는 이북에 가있었다.
늙은이건 어린이건 가림없이 그들의 가슴속깊이에는 해님과 별님에 대한 그리움이 호수처럼 설레이고있

였다.

어느날 우리 중대에서는 희한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나어린 소년이 휴전선부근에서 월북을 하려다 잠복초소에 걸려들었던것이다.

이런 사건이 한두번 생기는것이 아니라 년중 행사처럼 빈번히 발생하기때문에 중대에서는 그에 그닥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쩐지 나는 그 소년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었다. 북향의 그 마음이 기특했고 그 뜻이 귀중했다.

마침 중대장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창우소대장이 그 소년을 심문하게 되였던것이다.

소대장은 누구도 자기 방에 들여놓지 않았다.

창우소대장은 심문내용에 따라 조서를 꾸며야 하기에 나를 자기 방에 불렀다. 윤일병과 최일병이 나를 부러워 시샘하듯 옆구리를 쿡지르는것이였다.

어떻게 당돌하게 생겨먹은 소년이기에 그런 담을 지녔을가.

소년을 만나볼 생각이 앞서던 나머지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소대장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미지의 소년은 허름한 옷을 걸친채 머리를 수그리고있었다.

비록 겉모습은 초췌하게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별처럼 빛난다.

창우소대장이 물어보았다.

《네 이름이 뭐냐?》

《…》

《이름이 뭔가 말야?》

《…》

소년은 여전히 침묵이다. 아마 겁을 먹은 모양같았다. 하기야 어린 몸으로 사민은 얼씬도 못하는 군대병영

에 끌려와 심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슴도 떨릴수 있고 입도 무거워질수밖에…

나무걸상에 되는대로 옹송그레 앉은 그의 모습은 지난날 한강변에서 흘러간 나의 옛 소년시절을 추억속에 불러일으켰다.

한번 으름장을 놓자는 심산인지 소대장이 버럭 성을 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딘줄 알아,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한다는 군대병영이야, 너 기합을 받아보지 못했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걸 너 알지?

너 내 기분이 나쁘면 따꿍한다.》

한참 소년의 거동을 살피던 소대장은 퍼그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겁을 먹지 말고 말해라. 나한테도 너같은 동생들이 있다. 나를 형님처럼 믿고 솔직하게 말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나를 속이면 아예 군대영창에 가둬버리겠다. 알겠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있던 소년은 피뜩 소대장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것이였다.

《네 이름은?》

《한병남이예요.》

《나이는?》

《열넷이예요.》

《고향은?》

《파주예요.》

《파주라, 파주는 내가 잘 아는 고장이다. 거긴 미군이랑 양공주들이 많지?》

《많아요.》

《어느 학교엘 다니느냐?》

《국민학교두 채 졸업못하구선 돈벌이해요.》

《돈벌이? 야 이애가 상당한놈이다. 네가 쪼끄만게 무슨 돈벌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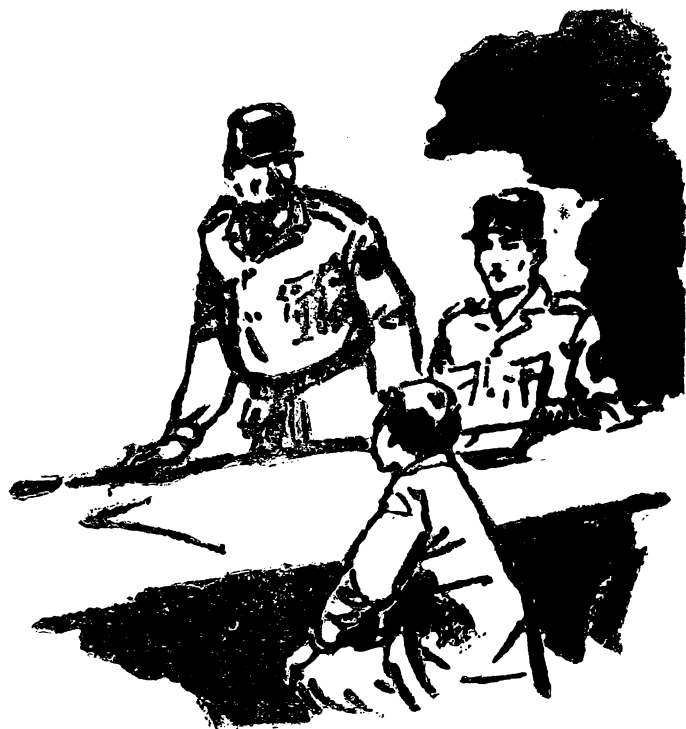
《넝마를 줏고있어요.》

《넝마?! 그래 돈벌이가 잘되냐?》

《어떤 날엔 공칠 때가 많아요.》

《왜?》

《쓰레기통이 차례지지 않거든요.》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쓰레기를 줏던 가슴아픈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넝마를 줏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의 아픔이야 나보다 더 잘 실감하는 사람도

없을상싶였다. 나는 《쓰레기공화국》에 가맹한 《정식맹원》이였으니까…

소대장이 측은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아버진 무슨 일을 하냐?》

《아버진 없어요.》

《어머닌?》

《어머니도 없구요.》

《그럼 고아란말이냐?》

《네, 우리 4형제는 모두 고아가 됐어요.》

알고보니 그의 아버지는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높은 나무우에서 떨어져 숨지고 어머니는 울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달만에 급성페염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던것이다.

순식간에 고아가 된 그네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다. 나어린 호주가 된 병남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을 팔아쥔 푼돈을 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고모와 숙부, 이모네 집으로 뿔뿔이 보내였다.

드디여 홀몸이 된 그는 고학을 해보겠다고 넝마도 줏고 남의 집 청소도 해주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가혹하여 그 어린 소년앞에 고학의 문마저 열어주지 않았었다.

소대장은 그의 말을 자르며 다시 물어보았다.

《저기 서있는 저 사병형님도 다 너처럼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공부했구… 그런 말은 이젠 듣기도 싫다.

그런데 넌 무엇때문에 이북땅으로 월북하려고 했느냐?》

한참 묵묵히 앉아있던 소년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둘러대는것이였다.

《난 월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 휴전선근방까지 왔느냐?》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길을 잘못들었어요.》
《임마. 거짓말 말아. 여긴 사민들이 사는곳이 아니란말이다.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곳이야. 쥐새끼 한마리도 마음대로 못다니는데란말이다.》
《정말 월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길을 잘못들었어요.》
《넌 솔직하지 못한 애야. 내가 아까 말했지. 형님처럼 믿고 솔직하게 말하면 너를 도로 보내주고 거짓말을 하면 영창귀신이 된다구. 겁을 먹지 말고 말하렴.》
소대장은 소년의 언 마음을 녹여주며 마음놓고 말하도록 정다운 음성으로 유도했다.
《왜 이남땅을 버리고 이북으로 가려구 했느냐?》
《저…저…》 소년은 망설였다.
《괜찮어. 어서 말하라는데두. 우린 다 네 마음과 같은 군대들이야. 어서!》
《이북에 가서 공부를 할려구 했어요.》
《공부?》
《예. 이북에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같은 고아들을 돈 한푼 받지 않구 학교에 보내주신대요. 장군님께서는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학부모가 되여주신대요.》
소년의 눈빛은 일루의 희망과 동경으로 섬광처럼 빛났다.
《그리구 또 무슨 말을 들었냐?》
《**김정일**선생님께서 우리 같은 어린이들을 품에 꼭 안아 희망껏 배우도록 해주신대요.
우리 마을에선 향도의 별님이야기가 떠돌고있어요. 배고픈 아이들도 그 별님이야기만 들으면 배가 부르고 슬픈 애들도 그 별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없어진대요.
그래 나도 그 별님을 따라가려구 했어요.》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냐?》

《난 듣기두 하구 보기두 했어요. 동무네 집에 놀러 갔다가 텔레비에서 보기두 했어요.

난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선생님을 다 뵈왔어요.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이북은 모두 골고루 잘산대요.》

소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역시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소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의 순진한 동심속에 아로새겨진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었고 묶을수도 없었다.

《병남아, 이제부터 어디 가서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경을 친다. 감옥귀신이 된단말이야.

그래 이제 누가 물어보면 길을 잘못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해라. 알았냐?》

《알았어요.》

《됐다. 우리도 이 조서에다 약속한대로 쓸테니 그리 알고 헌병대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무사할수 있다.》

《고마와요. 소대장아저씨!》

《고맙긴, 앞으로 어데 가서나 이자 네가 말한 그런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해님을 따라 별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무 때나 월북할 날이 있을게다. 이남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구 살면 돼, 알겠냐?》

《네!!》

소대장은 기특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는 소년을 심문한 조서에다 그의 부주의로 병영주변에 나타났다는것, 심문결과 밤중에 길을 잘못들어 잠복초소에 걸렸다는것, 《불온사상》이 없고 《경향성》이 좋다는것 등을 상세히 썼던것이다.

그후 소년은 헌병대에 들려 또다시 심문을 받고 우리가 꾸민 조서에 따라 무사히 돌아갔다.

불쌍한 소년이 빈손으로 떠나 또다시 가파로운 인생의 험한 길에서 허덕일 생각을 하니 내 가슴이 아팠다. 기특한 소년에게 무엇인가 들려줄수 없는 나의 처지가 못내 야속하였다.

소대장은 떠나면서 인사를 꾸벅하는 소년의 주머니에 얼마간의 로비를 찔러주었다. 소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는것이였다.

몇번이나 뒤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는 소년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속에도 뜨거운것이 불쑥 치밀었다.

(차라리 내가 잠복초소에 섰을 때 소년이 걸려들었더라면 그냥 월북하도록 내버려두었을걸.)

이렇게 생각한 나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빠고다공원에서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렀다. 준마같이 달리는 세월속에서 달력은 빨리도 번져졌다.

만물은 변화속에 존재한다고 시간이 흐르니 자연도 변모되고 인간세계도 달라졌다.

헬기(직승기)가 하늘을 뒤덮고 중땅크들이 산야를 누비였다. 공격전투훈련이 끝난 중낮이였다.

최일병이 나에게로 달려오며 한장의 편지를 전해주는것이였다.

《우길이, 서울의 사랑하는 아가씨한테서 편지가 왔네.》

《자식, 또 사람을 골려주누나.》

《정말이야. 보라구. 〈서울시 종로구 순이.〉… 소대장님이 전해주라구 했어.》

《순이??》

나는 순간 가슴이 섬찍했다. 무슨 사연이란말인가? 군복무 1년반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순이씨의 편지였다.

(헌병대에서 편지검열을 했겠는데 무슨 사연을 썼을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다른편으로는 불길하기도 했다. 나는 얼른 편지봉투를 뜯어 읽어내려갔다. 안우길앞으로 온 편지는 간단했다.

《영선씨, 집에서 벌써 세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회답이 없군요.

혹시 다른 부대로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휴가를 받고 집엘 잠시 들려주셔야겠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요. 사연은 만나서 알려드리겠어요. 귀중하신 몸 안녕히! 순이.》

이것이 편지의 내용 전부였다.

나는 편지를 든채 그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란말인가?)

대중없는 만가지 생각이 몽롱한 안개속을 헤염쳐갔다.

나는 최일병과 함께 창우소대장을 찾아갔다. 소대장의 첫눈길에 벌써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내가 중대에 말해서 집에 휴가를 가도록 신청을 해보겠다. 큰일이야 없겠지.》

소대장은 그길로 중대에 가서 나의 딱한 사정을 말하고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소대장의 각별한 주선이 없고 후원이 없다면 휴가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내가 막상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떠난다고 하니 친구들이 오히려 몸둘바를 몰랐다. 빈손에 떠나보내는 마음이 아파 어떤 친구는 집에서 얼마간 부

쳐온 남은 돈 몇푼을 쥐여주기도 하고 어떤《도식당원》들은 상점과 식당을 《기습》하여 통졸임 몇통과 양주 한병을 싸가지고 나의 배낭속에 넣어주기도 했다. 《도식당원》들의 활약은 여전히 민첩하였다.

소대장이 다가오더니 얼마 되지 않은 봉급봉투에서 백원짜리 몇장을 꺼내주며 앓는 아버지께 약이라도 한첩 지어드리고 어머니께 수건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라고 하는것이였다.

이 지긋지긋한 국군살이에도 정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처럼 뜨거운것이 오갔다.

나는 코마루가 시큰하고 눈굽이 뜨거워났다. 《도식당》성원들인 최일병, 윤일병, 고참병, 박상병 그리고 정다운 창우소대장… 수많은 사병들이 주련이 서서 급히 떠나는 나를 손저어 바래워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종의 부러움도 비껴있었고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릴 나의 앞길을 우려하는 동정의 기색도 어려있었다. 나의 눈가에는 끝내 이슬이 맺히고야말았다.

나는 병영을 벗어나 큰 길가에 나섰다. 저 멀리서 트럭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있었다.

내가 길복판에 나서서 손을 들자 트럭은 급히 멎었다. 운전수의 못마땅한 눈길이다. 군복을 입었으면 입었지 길복판에 나서서 차를 마구 세우냐는 뜻이였다.

나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미안하게 차를 세우게 되였으니 부디 서울까지 태워달라고 간청을 들이대였다. 나의 청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운전수는 첫마디에 고개짓을 하며 뒤 적재함에 올라타라는것이였다.

고마왔다. 나는 적재함에 넝큼 올라탔다. 트럭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나는 들추는 트럭의 운전칸지붕에 의지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받아나갔다.

트럭이 서울 미아리고개에 이르자 문뜩 멎었다. 이제부터 서울도심지로 들어가니 검문검속이 심해서 차에서 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고 운전수가 되려 애원하듯 나에게 간청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마음씨가 곱고 어진 운전수였다. 그러지 않아도 내리려던 참이였다.

나는 트럭에서 내린 다음 수고롭게 태우고 온 사례금을 주려고 친구들이 준 돈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만두시라요. 난 돈을 받지 않아요.》

《아니 그럼?…》

참말로 고마운 운전수였다. 부디 잘 가라고 인사하였다.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다. 나는 시내뻐스를 타고 빠고다공원옆에서 내렸다. 친구들의 말대로 공원주변의 가게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약도 사고 어머니의 손에 들려줄 머리수건이라도 사려고 이 상점 저 상점에 들렸다. 순이씨에게는 들려줄것이 없었다. 밥술이나 먹고사는 집안인지라 믿음을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막상 집으로 향하자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자꾸만 고개를 드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나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느라 옆에 있는 빠고다공원에 잠시 들렸다. 빠고다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였다. 지난날 고등학교시절과 대학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걷던 수많은 자욱들이 떠올랐다.

공원의 나무는 자라 고목으로 변하건만 추억의 푸른 잎사귀는 여전히 시들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의 발길에 떨어졌다.

빠고다공원에 있는 자그마한 팔각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가지가지의 차림을 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었다.

언젠가 대학시절 이 팔각정에 들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선 희한한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리고있

었다. 말하자면 신문에도 광고하다싶이 《빠고다국회》가 열리고있었던것이다.

《빠고다국회》란 말은 신문에도 그 별명이 소개된 일이 있지만 《민심이 비낀 대화의 광장》이라는 뜻에서 《민중의 국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있었다.

원래 국회의사당은 태평로로부터 한강 여의도로 옮겨왔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노릇을 하고있는 전두환의 사설국회로 민중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있다.

그 《여의도국회》에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여 민중적인 의제를 토론해본 일이 한번도 없다. 말하자면 민심을 등진 국회로 전두환의 꼭두각시국회로 세론의 조소를 받아왔다.

민중들이 모여 시국에 관한 말을 하고 국민생활을 론하는 참다운 민중의 《국회》는 행인들이 모이는곳이면 어디나 있다.

그런 민중들의 《국회》는 창경원이나 장춘단공원, 남산공원에도 있고 서울 번화가의 복덕방에도 있다. 역의 대합실에도 시골의 마실방에도 민심의 《국회》가 있다. 여기서는 청와대주변의 희한한 《류비통신》으로부터 뒤골목 장마당의 물가시세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이야기가 다 《국회의제》로 오른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북에 대한 말도 귀속말로 주고받는다. 오늘 《빠고다국회》에서도 바로 그런 희한한 세상에 대한 말이 오갔다.

리야까군인듯싶은 한 《빠고다국회의원》이 머리가 희슥희슥한 지성인들과 퇴색한 대학생복차림의 젊은이들앞에서 한마디 했다.

《오늘 〈빠고다국회〉는 평양화첩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

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이 좋을상싶습니다. 검정개(경찰)들의 눈에 들키지 않도록 눈치있게 이 화첩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품속에서 손때묻은 화첩을 한권 꺼내는것이였다.

주위에 모여섰던 뜻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평양화첩을 흥미있게 보고있었다.

나역시 그들의 등뒤로 조용히 다가가 천연색화첩을 바라보았다.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화첩이였다.

화첩을 보느라니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평양은 첫눈에 공상속에 그려보던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리상적인 도시였다.

화첩을 내놓은 그 《빠고다국회의원》이 한장한장 번지며 사진을 설명하는것이였다.

《자, 이것은 세계에 소문난 만수대예술극장이고 이건 인민대학습당이요, 이건 또 체육관, 이것은 평양산원, 창광원, 인민문화궁전…

이 고층건물들이 수풀처럼 일어선 거리는 창광거리, 또 이것은 문수거리…》

모두 신바람난 그의 말을 들으며 화첩을 번져갔다. 정말 보이는것마다 모두 희한하였다.

한 지성인이 흥분해서 말을 했다.

《나는 뉴욕이나 빠리, 런던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그 도시에 있는 고층 삘딩들은 답답하고 침침한 인상을 자아냈어요. 〈문명〉을 자랑한다는 그 사치풍의 도시보다 얼마나 생신하고 랑만적이고 립체적인 민중중심의 평양인가요.》

《우리가 사는 서울을 보시오. 얼마나 숨막힌가. 한 시

인이 풍자적으로 묘사한것처럼 서울은 하나의 큰 〈요강〉이요. 사치와 허영, 랑비의 풍조가 거리에 넘치지요.》

《빠고다국회의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자기의 의사들을 털어놓았다.

한 젊은이가 이북사람들의 밝은 표정에로 화제를 돌리는것이였다.

《이봐요. 평양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활기에 넘치고 밝아요. 민중들의 얼굴은 곧 그 나라의 표정이고 그 나라의 정치기상도라고 했는데 이북의 정치가 밝으니 민중들의 얼굴이 밝을수밖에 없지요. 걱정이 없고 시름이 없고 고민이 없고 번민이 없으니 얼굴이 그토록 환하고 자부심에 넘치지 않을수 있어요.

고달픈 생활에 짓쫓기는 우리 서울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겨운 그늘이 비껴있지만 그네들의 얼굴엔 생기가 어려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빠고다국회》의 토론은 활기를 띠였다.

지난날 《태평로국회》나 오늘날 《여의도국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싸움질도 없었고 서로 멱살을 쥐고 《레스링》경기를 하는 란투극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법도 없었고 발언을 삼가하는 억제조치도 없으며 발언순서도 따로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북땅에 민중의 리상향을 건립하시고 민중복지의 새 세상을 펼치신 주체의 해님과 향도의 별님에 대한 무한한 추앙심과 흠모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해님과 별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은 어느 문인의 표현 그대로 하늘의 기라성을 모두 모아 백두산마루에 만수축원탑을 쌓아드리고싶은 마음이였고 온 세상의 령롱한 무지개를 모두 걸어 주체의 하늘에 영광의 월계수를 엮어드리고싶은 심정이였다.

이때 한 중년사나이가 《쉿, 검정개다, 〈국회〉휴회!》라고 급히 암시하는바람에 모여섰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것이였다.

공원 저쪽에서 정복차림의 경관이 곤봉을 휘두르며 지나가고있었다.

그들은 《국군》사병복을 입은 나의 거동도 못마땅한 눈길로 곁눈질해보고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비록 내가 《국군》복을 입었지만 그네들과 한마음인줄 그들은 알수 없으리라.

비록 집으로 가는 급한 걸음에 잠시 참관한 《빠고다국회》이지만 얼마나 활기띤 민심의 광장인가.

나는 산지사방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웨쳤다.

(이 땅의 민중은 태양을 향해간다. 해님따라 별님따라 민심은 흐른다. 도도한 격랑이 되여 흐르는 그 거대한 민심의 격류를 그 어떤 힘도 막을수 없다.》

그 흐름속에 나의 마음도 합류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오래간만에 다시 걷는 서울의 거리는 변한것이 많았다. 양풍, 왜풍으로 짙어가는 거리의 풍경도 조선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도 거리에 사는 민심도 다 달라진것만 같았다.

모든것이 변한 서울거리였다. 그 거리로 걸어가는 나의 상념도 나의 인생관도 달라졌다.

지난날 서울을 떠날 때의 내가 아니라는것이 저도모르

게 느껴졌다. 그때는 운명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쩐지 지금은 욕된 운명의 나루배에 이몸을 고스란히 맡기고싶지 않았다.

모든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느끼는 심장이 커진것만 같았다.

그러나 집이 가까와질수록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떤 사연이 나를 기다릴것인가.

집문밖에 이른 나는 문득 멈춰섰다. 비록 추녀낮은 판자집이지만 나의 넋이 자라고 배움의 푸른 꿈이 부풀던 삶의 첫 보금자리였다.

나의 학비를 위해 어진 어머니가 애를 태우고 어리무던한 아버지가 뛰여다니던 집이였고 정겨운 누이동생의 눈물겨운 얼굴이 비껴있던 옛 고향집이였다.

시름에 짓눌려 언제 한번 웃음을 모르고 살아온 집이건만 그래도 막상 집앞에 이르니 가난뱅이만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추억의 세계가 펼쳐졌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방금 일어나 반길듯하고 어머니가 문지방에 엎어지며 이 아들의 손목을 쥘것만 같았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제눈을 의심했다. 집은 텅 비여있었다. 깨여진 사발쪼각이 부엌에 한두개 널려있었고 입다버린 누데기옷이 방안구석에 되는대로 꾸겨박혀있었다.

내가 들고다니던 헌 책가방은 다 찌그러져 반나마 넘어진 책상우에 되는대로 놓여있었다. 즐겨읽던 사회학서적이 찢어져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는 텅빈 집, 그 어떤 삶을 위협하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처참한 광경이였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강타하는것이였다.

(어데로 이사갔을가? 그렇다면 순이씨의 편지는?)

방안에 비석처럼 굳어져버린 나는 지꿎게 갈마드는 불

길한 예감을 애써 지워버리였다. 사람의 생각이란 그렇게 모질어 불행의 그림자를 그렇듯 가상의 세계에서 쫓아버리는것이였다. 되도록 좋게 생각해보았다. 아무리 좋게 풀이해도 바람직한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 어떤 기상천외의 사변이 있기전에는…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집을 나섰다. 무서운 사연이 기다릴 이 집의 사연을 얼른 알고싶지 않아 대중없이 머리를 잡아흔드는 그 만가지 생각을 애써 쫓아버렸다.

한참만에 나는 저도모르게 옆에 사는 《해주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새 퍼그나 늙어버린 《해주집》어머니가 달려나오더니 군복입은 나를 훑어보는것이였다.

《어머니, 나예요. 옆에서 살던 영선이예요.》

《아이구머니, 영선이구나. 영선이…》

《해주집》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나의 손목을 꼭 쥐고 우는것이였다. 한동안 서럽게 울다가 눈물에 젖은 눈길로 나를 빠끔히 쳐다보며 한마디 건네는것이였다.

《이사람아, 여직 모르고있나?》

《??》

《집에 생긴 불상사말이야.》

나는 더 묻고싶지 않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때문에 더 묻고싶지 않아 어머니의 다음 말만을 기다리고있었다.

《거 종로구에 산다는 그 귀한집 고운 따님이 있잖어. 그 처녀가 여러번 와서 집의 뒤일을 처리했어.》

《어머니 고마와요. 순이를 만나겠어요.》

나는 옆집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순이네집으로 달려갔다. 대학시절 몇번 집문가에까지 갔다가 도로 돌아온 순이네 집이였다.

순이네 집에 이른 나는 더 망설일 겨를도 없이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만에 대문이 열리더니 그처럼 정다운 순이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나무랄데 없이 다듬어진 순이씨의 그 아릿다운 모습과는 얼마나 초췌한 나의 몰골인가.

《아니 영선씨!》

순이는 다짜고짜로 나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영선씨가 돌아왔어요.》

《영선이가?! 아이구머니나. 몰라보게 됐어. 자 어서 들어가자구.》

어리무던한 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나를 반겨주었다. 순이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ㄱ》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아버지도 서재에서 글을 쓰다가 마주나와 나를 반겨주는 것이였다.

이 차거운 세상에서도 이처럼 따스한 정에 접하고보니 가슴이 찡하였다.

나의 얼굴엔 불행을 예감한 그 어떤 그늘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한동안 순이네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고난후 나는 순이씨를 데리고 자그마한 뜨락의 백양나무뒤로 갔다. 순이는 여전히 나를 위로하느라고 화제를 아득한 동화의 세계에로 끌고가는것이였다.

《순이씨, 편지를 받았어. 말해줘. 우리 집이 어떻게 됐어? 옆집에서 대략 들었어.》

《영선씨!…》

순이는 그만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그렇게 애써 밝게 짓던 웃음이 가뭇없이 사라진 순이씨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어서 말하라구.》

《영선씨,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잘못되였어요! 흑흑…》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가 인제 몇달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으흐흑…》

나는 순간 이를 앙다물고 머리를 떨어뜨린채 속으로 흐느낌소리를 냈다. 불길한 예감이 끝내 현실로 변하다니.

순이씨는 한참만에 우리 집에 들이닥친 불행한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골병으로 드러누워앓던 아버지는 내가 군에 입대한지 1년만에 돌아갔다. 순이네가 가져다준 약도 써보고 병원에서 자주 진찰도 해봤으나 효력이 없었다는것이다. 머나먼 브라질 이민으로 떠나간 누이동생한테서는 여전히 편지 한장 없다는것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로 생기를 잃은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살다가 넋잃은 사람처럼 길가를 헤매기도 했다.

어느날 어머니는 외아들인 나를 만나보겠다고 미아리고개를 넘어 북행길에 올랐다는것이다. 아무데나 《국군》이 있는 부대에 가서 이 아들의 주소를 물어볼 심산으로…

그때로 말하면 서울주변에서까지 《팀 스피리트》라는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때라 길가에는 미군트럭이 늘어져있었다.

미군놈들은 길가는 주민들을 놀래우며 트럭이며 전차며 종포들을 몰아갔다.

그런데 웬 미군트럭이 미친듯이 지나가다가 길가를 걸어가는 어머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리였다.

순이와 대학동창 순호, 일수군들이 늦게나마 알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을 때였다.

순이네는 온 가족이 떨쳐나서 순호, 일수군들과 함께

어머니를 아버지의 묘에 합장하였다는것이다.

자기를 대신해서 아니 이 못난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이 묻어준 순이씨와 나의 스승인 순이의 아버지 조운성교수와 정다운 동창들이 한없이 고마왔다.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이 아들을 대신해준 그네들의 갸륵한 마음을 포옹하고싶었다. 이몸이 눈을 감아 한줌의 흙으로 사라져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은혜였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백양나무를 으스러지게 쥐여뜯으며 부르짖었다.

아버지에게 드리려던 약과 어머니의 손에 쥐여주려던 머리수건이 든 보자기가 나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어찌할바를 모르던 순이씨가 따라 울며 나의 이름만을 계속 부르는것이였다.

《영선씨!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선씨가 제대될 때까지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끝내 승낙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때나 영선씨가 집에 찾아오면 어찌겠는가고…아버지두 없는데…이 어미라도 집을 지켜야 아들이 찾으면 대답할것이 아니냐고말예요.》

순이는 갈린 음성으로 흐느끼며 주섬주섬 말을 섬기는것이였다.

순이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집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도 눈굽을 훔쳤다. 순이의 진정이 넘친 목소리는 계속 울렸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싫던 좋던 어머니를 집에 데려와야 하는걸… 영선씨,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구 이 사실을 영선씨에게 빨리 알리려고 그 부대에 편지를 세번이나 쓰고 전보도 쳤어요. 군사훈련을 몇

달씩 하는 무시무시한 때여서 사민들의 편지를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고마운 순이를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바꿔놓고 순이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다면 내가 순이처럼 몸담아 투신할수 있을가. 생각할수록 순이의 인격이 높이 바라보였고 그 남달리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갈한 순이의 마음씨가 뜨겁게 안겨왔다.

《순이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어. 내 일생을 바쳐서라도 순이씨의 그 마음에 머리숙이겠어.》

나는 이를 사려물고 주먹을 부르쥐였다.

어머니를 죽인 미군놈에 대한 증오의 비수가 순간 가슴속에서 푸른 섬광을 내며 번뜩이는것이였다.

그 누가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증오는 얼음처럼 차야 한다 했거늘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것만큼 어머니를 죽인 미군놈을 미워하였다.

보복의 칼을 벼리는 나의 눈에서는 류황불이 일었다. 나는 여태까지 격분도 느끼고 증오도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노의 절정에 서있음을 느꼈다.

그날 나는 순이씨와 강순호, 박일수군들과 같이 수유리공동묘지 뒤기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묘에 갔다.

묘를 정성스레 써준 순이씨 가정과 친구들이 한없이 고마왔다.

소대장이하 군대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아버지의 약과 어머니의 머리수건을 묘앞에 정히 놓고 나는 술 한잔을 부었다.

순이씨도 들꽃 한묶음을 묘지앞에 놓은 다음 술을 부었고 친구들도 술잔에 애도의 술을 가득 담아 부었다.

나는 묘앞에 비석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일생을 고생속에 살아오신 아버지와 어머니, 늘그막에나마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려던 나의 마음은 이젠 메아리마냥 산산이 흩어지고 물거품마냥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무리 향불을 피워 사라진 부모님들의 넋을 위로해도 풀길 없는 원한이요, 저주였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미국놈에 대한, 전두환역도에 대한 울분을 금할수 없어 나는 주먹을 부르쥐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그 정다운 목소리를 다시

들을길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원망해주세요. 이제라도 아들답게 살아 부모님들의 넋을 위로하겠어요. 부모님의 령혼앞에 부끄럼없이 서겠어요. 내 이제 만약 어머니의 원쑤를 갚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무덤속에서나마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없이 무덤앞에서 복수의 마음을 거듭 다졌다.

인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부모님들의 무덤앞에서 지난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달려가서 그 품을 찾던 그 아이적 목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지막으르 불렀다.

순이씨와 동료들이 나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모두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없이 언덕을 내려왔다.

이 슬픈 날에도 변함없이 어둠이 깃들었다. 이윽고 우리는 순이씨 집에서 마주앉았다. 나를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순이씨도 순호, 일수군들도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학시절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던 명망높은 윤성교수도 나에게 술잔을 권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독한 술을 연거퍼 마셨다. 술기운으로 이 아픈 마음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하려는 벗들과 스승의 마음이 술방울이 되여 철철 넘치는 그 술잔을 나는 련속 비웠다.

위로의 말도 많았고 대학시절의 추억도 많았다. 순이씨는 마음속으로 나때문에 울고있었으나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짓고있었다.

윤성교수가 뜻이 깊은 말을 하는것이였다.

《사람이란 운명에 돛을 달아선 안돼.

나는 최근 자주의 철학, 주체의 리념을 접하면서 이것

을 절감하네.
영선군도 모든 슬픔을 이기고 자기 운명의 희롱을 박차며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여주길 바라네.
나도 요즘 젊은 학도들이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할 때마다 더 생각이 깊어지네. 나도 늙은 몸이지만 그들의 대오속에 함께 서있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나는 순이씨의 아버지이며 다정한 스승인 운성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 순이도 이 아버지곁에 서있네. 온실에 피는 국화꽃이 아니야.
당국의 압력도 있고 협박전화가 매일밤 걸려와도 우리 가문은 진리를 향해가네.
뜻이 있는 군들이 모인 좌석에서 하는 말이네만 진리의 태양은 평양하늘에서 빛나네! 진리의 태양말이네! 현대인의 인격도 현대지성의 가치도 오직 그 진리의 태양, 주체의 리념을 따르는데 있네.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되네.》
교수의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심장과 열정은 청춘기에 살고있었다. 눈빛은 여느때없이 활기를 머금고있었다.
순이씨의 애무의 눈길과 오래도록 마주친 나도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도 늦게나마 알고있습니다. 저는 다도해기슭에 가서도 그 진리를 느꼈고 빠고다공원에 들려서도 그 진리의 태양을 보았고 월북하려던 어린 동심속에서도 해님과 별님이 빛나고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 진리의 태양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고맙네. 그런 의미에서 자, 어서…》

우리들은 또 한잔을 비웠다. 동료들은 모두 나의 손을 약속이나 한듯이 꽉 쥐였다.

밤이 깊어지자 동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비장한 그날 밤, 나는 순이씨와 나란히 한강 백사장을 거닐기도 했고 남산마루에 올라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기도 했다.

남산마루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는 나의 머리속에는 가지가지 추억이 피여올랐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던 그날, 대학교의 벗들과 나란히 프랑카드를 들고 광화문거리며 교내를 누벼가던 그때의 일들, 내가 교도소에서 옥중살이를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면회왔던 순이씨의 그 갸름하던 얼굴이며 누이동생의 얼굴에 항상 어려있던 시름과 고민의 그늘이며가 필림처럼 풀려나갔다.

내가 깊은 상념에 잠겨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자 순이가 나를 말끔히 쳐다보며 조용히 물어보는것이였다.

《영선씨, 지금 무얼 생각하세요? 또 부모님생각이세요?》

《음? 아니…》

긍정했다가 부정하는 나의 대답은 거의 본능적이였다.

《인젠 그만 생각하세요. 저를 위해서도 아픈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엔 순이가 울기 시작하였다. 여태도록 참던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정말 순이는 나의 힘이였다. 나는 감상적이라면 순이는 의지적인것만 같았다. 순이가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덥혀주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어 내가 지금 슬픔을 이기는 정신적 강자로 사는것이 아닌가.

순이의 그 열렬한 마음에서 나는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를 발견하였던것이다.

나는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이상으로 느끼는 순이의 손목을 저도모르게 뜨겁게 쥐였다.

《순이씨!》

《영선씨!》

우리는 서로 손목을 꼭 쥐였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무리들이 반짝였다. 태양이 뿌리는 빛발을 받아 반짝이는 저 별빛은 천리대공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가슴에 비쳐드는듯싶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의 생리, 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생각하며 말했다.

《순이씨. 우리도 별처럼 살자구.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둠속에서도 반짝이는 저 별무리들처럼말야.》

《어데서나 별처럼, 정말 별처럼 살래요.》

《우리 함께 주체의 해님과 향도의 별님이 뿌리는 그 빛발을 안고 사는 이 땅의 별무리가 되자구, 순이씨!》

나는 다시한번 뜨겁게 순이의 손을 꽉 쥐였다.

우리를 반기듯 밤하늘의 별무리들은 더없이 밝은 빛을 뿌렸다. 이 어두운 이남땅에 태여나는 한쌍의 별무리를 축복하듯이 광대무변한 우주속에서 령롱한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북두칠성이 반짝이였다.

그날밤 잠자리에 누운 나는 한순간도 잠들수 없었다. 이리뒤척 저리뒤척거리다 일어나 애꿎은 담배만 피웠다.

방안에는 담배연기만이 자욱하였다.

이생각 저생각으로 밤새도록 모대겼다.

(이젠 어떻게 할가? 부대에 다시 돌아갈가? 아니면…그럼 내가 부대에 가서 그냥 그 미국놈들의 총을 쥐여야 하는가?…청춘의 꿈을 꽃피우는 길은 이젠 모두 막혔는가?…아니, 나의 가슴에 차고넘치는 분노를 풀길

은 없을가?

정녕 내가 앞으로 서야 할 땅은 어딘가? 내가 가야 할곳은 어디란말인가? 어디? 어디? 어디??)

자리를 뒤척이다 일어나고 다시 눕고 또다시 일어나 방안을 거닐고… 이렇게 하기를 몇십번, 옆방에서는 순이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정다운 말소리가 이따금 들렸다.

번민과 방황, 끝없이 이어지는 방황…이 고뇌와 방황속에서 동창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서울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사선을 넘어

서울에서 부대로 다시 돌아온 나의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없이 비장해졌다.

원래 과묵한 성미였지만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후부터는 더없이 입이 무거워졌다.

창우소대장은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면서 우리 어머니를 무참히 깔아죽인 미국놈들에 대한 울분을 달래지 못해 저녁마다 술을 마셨다.

정다운 동료들인 최일병이며 고참병, 윤일병, 박상병 모두가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주지 못해 애를 태웠다.

악질적인 장교들이며 중대 정훈장교들의 강압이 우심해지고 미군고문인 존의 민족적 멸시가 커가지만 그속에서도 익살이 있고 롱담이 있고 풍자가 있고 꿈이 있던 그들이였다. 하건만 우리 집의 비극적인 참사를 들은후부터는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 활기띤 《도식당원》들의 모습도 더는 찾을길이 없었다. 모두가 나의 운명에서

자기 운명을 보고 나의 부모의 비극적인 최후에서 자기 부모들의 그것을 보기때문이였다.

나는 홀로 있을 때면 생각이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운성교수가 말하던것처럼, 순이가 바라는것처럼 살수 있을가? 창우소대장의 말처럼 모든것을 들부실가?

날이 갈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복수심이 더없이 소용돌이쳤다. 미국놈에 대한 증오심이 불탈수록 해님과 별님이 빛나는 이북에 대한 그리움은 더없이 가슴속에 설레였다. 이런 생각속에 날이 가고 달이 지났다.

어느날 우리는 미군고문 죤앞에서 중대훈련정형을 검열받게 되였다.

비상소집도 하고 원자전 가상하의 공격전투훈련도 했다. 도하훈련도 했다.

지난날 우리 소대는 대대적으로 돋보였다. 소대장의 남다른 패기와 통솔력도 이름이 났고 소대의 모든 인원들이 소대장휘하에 하나로 뭉친 군의 기풍도 소문이 났다. 때문에 훈련검열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연 으뜸이였다.

그런데 이번 훈련검열에서는 우리 소대가 제일 굼떴다. 이것은 창우소대장의 기분과 직결된것이였다.

《개성기습작전》이름밑에 진행된 야간공격훈련에서도 우리 소대는 제시간에 S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대대장의 기분을 잡치게 했고 죤고문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후에 알고보니 대대장은 토목회사사장의 아들이며 국민학교때부터 한학년에서 같이 공부하여 대학까지 함께 올라온 《돌대가리》창설의 형이였다.

땀투성이 되여 목적지에 늦게 이른 우리 소대앞에 트럭으로 먼저 와있은 죤고문과 대대장, 대대 정훈장교가

노기가 등등하여 서있었다.

존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소대장! 왜 당신네 소대가 이번 훈련에서 거부긴가?》

소대장은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우리 소대의 힘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두 지쳤습니다.》

《그렇게 굼뜨고서야 어떻게 개성을 삼키고 평양을 점령하겠는가. 당신 머리에 병이 들었다.》

고문은 손에 든 나무가지로 소대장의 군모를 툭툭 치는것이였다. 우리 사병들속에서는 그 모욕적인 광경을 보다말고 웅성거렸다. 창우소대장은 고문을 쏘아보다가 분을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다.

《나의 머리는 정상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소대장은 배심있게 말대꾸를 했다.

《모욕?! 우리 대아메리카의 위엄앞에서는 당신의 인격은 령이란말이다.

나는 아직 당신같이 미군사고문에게 맞서는 국군소대장을 본 일이 없다.》

《나도 당신같이 남의 나라 소대장을 사병들앞에서 그처럼 모욕하고 희롱한 외국 장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소대장이 말하자 우리 사병들이 또 웅성거렸다.

존고문은《노―》하면서 성이 나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옆에 말뚝처럼 서있던 대대장이 존의 눈치를 보다가 말틈에 끼여들었다.

《야, 소대장, 네가 뉘앞이라고 빽빽 맞서는거냐? 여기가 꿕하면 데모나 하는 대학교인줄 아느냐. 네놈이 대학때 시위 주모자라는것을 모르는줄 아느냐. 네 사상이

불온한줄 우리는 다 안다.》

《함부로 딱지를 붙이지 마시오. 내 사상이 어쨌단말입니까? 내 사상은 정상이고 내 머리는 깨끗합니다.》

존이 옆에서 듣다가 한마디 총알처럼 내뱉는것이였다.

《당신같은 소대장 국군에 필요없어!》

존은 머리를 흔들더니 홱 돌아서 가버렸다.

《두시간후에 내 방에 오너라, 알겠는가?》대대장이 버럭 고함을 치고 총총히 존의 뒤를 따라 트럭에 몸을 싣는것이였다.

소대 사병들속에서는 울분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소대장은 이를 사려물고 고문과 대대장쪽을 쏘아보고있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당장 모든것을 끝장내고싶은 결단의 불길이 타올랐다.

《개새끼들! 뭐 고문이면 단가!》

《여기가 미국인줄 아는 모양이지?》

《도대체 우리 소대를 어떻게 알고 그래?》

《저 대대장새끼의 꼴 좋다. 고문관놈의 비위를 맞추는 그 꼬락서니, 퉤!》

《저따위를 한바탕 해제끼고 차라리 월북이나 해버렸으면…》

사병들속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소대장은《그만두지 못할가!》라고 청천벽력같은 고함을 지르고 부대로 돌아갔다. 우리도 소대장을 따라 무질서하게 걸어갔다.

그날저녁 대대장실에 갔다온 소대장은 끝내 고문 존에게 대답질을 한 리유로 소대장자리에서 떨어졌고 취조를 받은 다음 군에서 제대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소대장을 기다렸다. 소대장은 소대에 돌아오자 방에서 제손으로 치욕스러운 국군소대장의 제복에서 계급

장을 뜯어버리더니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독한 술을 한 고뿌 쭉 들이켰다.

소대사병들이 자기를 지켜본다는것을 의식한 창우소대장은 우리에게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소대장이 아니다. 나는 이젠 사민이다. …서울로 돌아가 진짜 〈도식당〉을 꾸려 배고픈 사람들의 기아해방을 위해, 진리와 자유를 위해 이 한몸 담아보련다. 그동안 욕설도 하고 기합도 시켰지만 다 량해하라. 마음만은 너희들과 같았어.

4. 19광장에서 쓰러진 나의 한 선배가 부르던 시 구절이 생각나누나.

자유라는 나무의 꽃을 피우며
우리의 봄을 찾자
찬 바람을 맞받아 나가자…
잃어버린 나를 찾자
참된 우리를 가꾸자

사병들, 어디서나 진리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자유와 자주의 파수병이 되여달라구. 저 하늘의 해님과 별님이 밝은 빛을 뿌려주기에 우리의 앞길은 밝아.

우리 이제 또다시 만날날이 있을거야. 자, 어서들 막사로 들어가라구.》

《소대장님!!》

모두들 일제히 창우소대장을 부르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뜨거운것이 손맥으로 흘렀다.

그날밤 창우소대장은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자구. 반미자주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싸우자구. 해님을 따라, 별님을 따라 살자구.》

소대장은 순간 나를 부둥켜안았다. 뜨거운 포옹속에 하나의 마음이 고동치며 흘렀다.

며칠후 소대장은 우리곁을 떠났다. 먼지를 일으키며 서울로 트럭을 타고 사라졌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소문이 들려왔다.

자동차전복사고로 창우소대장이 중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두었다는것이 아닌가.

알고보니 미군고문 존과 대대장이 서울로 돌아가는 창우소대장의 트럭을 고의적으로 전복시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것이다.

《이 악한들아!… 창우소대장님!!》

나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사병들이 웅웅 했다.

(미국놈들을 제껴버리자. 모두 부셔버리자!)

나의 가슴속에는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증오의 용암이 화산처럼 터져올랐다.

그날밤 나는 보초를 서게 되였다. 최일병과 박상병에게서 탄창을 4개 더 넘겨달라고 했다. 수류탄도 8개를 구했다.

깊은 밤 나는 보초를 서다말고 고문관들이 들어있는 고문관실로 불의에 다가가 존과 다른 고문관들의 가슴에 련발탄을 안겨 쓰러뜨렸다. 그길로 옆에 붙어있는 대대장네 집으로 달려가 대대장과 정훈장교를 해제꼈다.

무엇도 겁날것이 없었다. 대대에서 비상소집이 일고 수색대와 헌병대들이 총 출동했다.

나는 어둠속에서도 바람처럼 달려 휴전선부근에 이르렀다.

막상 남과 북의 경계선인 휴전선에 이르니 생각이 깊었다. 용단을 내려 새 삶의 길을 택해야 할 준엄한 기로에 섰다.

만가지 일들이 필림처럼 풀려나갔다. 고등학교시절부

터 대학을 다니던 그 고통스럽던 나날들, 리념써클에서 《자기를 찾자》고 울리던 그 목소리, 불타는 거리에서 격문을 읽던 일이며 옥중의 나날들, 종호며 일수, 순호 등 친구들과 철민형의 그 모습, 그렇게 정답던 순이씨며 조운성교수의 뜨겁던 마음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장한 죽음이며 지긋지긋하던 《국군》살이의 낮과 밤들, 소대장과 소대사병들의 마지막 그 얼굴들…

극히 짧은 시간에 압축된 생각들이 서로 엇갈렸다.

(어쩔가?? 이북땅으로 갈가? 만일 간다면 정다운 친구들을 더는 볼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이남땅에 그대로 있으면 총살형을 받는다.

어쩐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어느 길을 택할가?)

나는 순간 망설였다. 인간이란 이런 생의 기로앞에서 그처럼 머뭇거리는것일가!

아! 나는 저도모르게 머리를 거머쥐였다. 그리고 다시 리성적으로 생각했다. 나를 잡겠다는 수색은 지금 절정에 이르고있지 않는가. 이 썩은 세상에 그냥 남아있다면 나의 가슴엔 희망의 꽃이 피는것이 아니라 미국놈들의 총탄이 박힐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도고히 머리를 들었다.

(가자!! 이북으로 가자!! 그리운 **김일성**주석님과 존경하는 **김정일**선생님께서 계시는 이북으로 가자!

창우소대장이 늘 그리던 이북, 운성교수가 늘 동경하던 그 희망의 언덕, 순이씨가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그려보던 그 락원의 강산으로 가자!

순이! 나를 기다릴 순이씨! 잘 있으라구. 서울에서 꿋꿋이 살아달라구. 그대의 승낙도 없이 이북으로 가니 널리 생각해달라구. 통일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운 순이, 순이! 최일병, 박상병, 윤일병, 고참병 그리고

정다운 병사동료들아, 잘있으라. 서울의 강순호군, 박일수군! 통일후에 서울에서 만나자구.

그리고 지금 어데 있는지 알수 없는 고등학교시절의 최선생님! 부디 안녕히!…)

마음속으로 정다운 스승들과 벗들과 순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낸 나는 어둠을 뚫으며 휴전선 미군잠복초소에 이르렀다. 미군놈들은 《국군》을 믿지 못해 저들끼리 군데

군데 잠복초소를 세우고있었다. 월북하는 통로를 이미 알고있었던 나는 수류탄을 모두 꺼내 가슴에 품었다.

나는 불현듯 몸을 일으켜 세우고 미군잠복초소에 수류탄을 연거퍼 던졌다. 화염이 충천하고 련이어 일어나는 폭음속에서 미군놈들의 아우성이 부서지고있었다. 수색대와 헌병대들이 달려왔다. 나는 탄창을 모두 풀었다. 여태도록 가슴속에 차고넘치던 울분과 원한을 탄창에 재워 쏘고 또 쏘았다.

총탄이 나의 다리를 관통시켰다.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휴전선을 넘은 다음 나는 그만 의식을 잃고말았다.

드디여 나는 그처럼 그립던 이북으로 월북하는데 성공하였다.

정신을 차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병원입원실 새하얀 바람벽에는 존귀하신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지 않는가!

《여기가 이북입니까??》

나는 소스라쳐 일어나며 물었다.

《네. 여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공화국북반부입니다!》

새하얀 위생복을 산뜻하게 입은 꽃같은 간호원이 밝게 웃으며 정다웁게 말하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만가지 시름이 풀리고 눈에서 두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침대에서 일어날수 없었던 나는 간호원의 부축임을 받아 겨우 상반신을 일으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초상화앞에 정중히 첫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만시름이 풀려 울고 울었다.

사람이란 흔히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에 안겼을 때 우는것일가.

서울에서, 다도해기슭에서, 휴전선일대에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늘 해님으로 우러르고 별님으로 그리던 바로 그분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품에 안겼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둘도없는 행운아인가!

나는 이렇게 지옥에서 탈출하여 락원으로 왔던것이다.

붓을 놓으며

붓을 들고 나의 탈출기의 첫장을 번질 때에는 욕심이 컸으나 막상 붓을 놓고보니 미흡한점이 많아 아쉬운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새 삶의 언덕으로 넘어온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낡은 세계를 버리고 새 세계로 들어서는 그 인생의 전환기에는 이루 헤아릴수 없는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입니다. 나 역시 이남땅을 탈출하게 된 그 많은 사연의 일부를 간추려 이 글에 옮겼을뿐입니다.

독자들은 이 어설픈 탈출기를 읽으며 이남땅은 사람못살 암흑천지라는것을 알아주면 나는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내가 이 탈출기의 마감장을 넘기며 몇마디 력점을 찍고싶은것은 이북이야말로 이남사람들이 리상향으로 그리는 복된 락원이고 이 땅에서 비치는 주체의 빛발은 온 지구를 밝힌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참으로 이남민중들이 《주체의 해님》으로, 《향도의 별

님》으로 경모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서 밝혀주시는 주체의 빛발은 지금 온 세상을 밝히고 지구를 움직이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도 진리의 태양도 바로 이북에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이북이야말로 태양의 조국이며 이북의 겨레들이야말로 태양의 국민들입니다.

아, 은혜로운 태양!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수십억의 인류가 밝은 마음으로 따르는 위대한 태양입니까.

나에게 재생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꽃피워주시며 밝은 창가에서 청춘의 푸른 꿈을 마음껏 여물려주신 그분들,

나에게 참된 삶의 새 화원을 펼쳐주시고 참된 나로 살게 하는 은혜로운 품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만세를 매일같이 소리높이 부르고싶은 심정입니다.

나는 이북에서 인간의 리상향을, 참된 민중의 락원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날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줄로 압니다.

이남땅에 두고 온 스승들과 많은 벗들과 낯익은 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도 주체의 해님따라, 향도의 별님따라 굴함없이 싸워 통일후에 꼭 다시 만나자는 이 한마디의 약속을 엄숙히 지키자는것입니다.

그때 조국앞에, 벗들앞에, 주체위업앞에 부끄럼없이 서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겨레와 온 민족, 온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안고 그분들의 아들로, 충복으로 살며 일할 결의를 새로이 다지며 탈출기의 붓을 놓습니다.

1984년 섣달도 저물어가던 그날에

김영선

지옥에서 락원으로 (2판)

저자 김영선 편집 김순영
장정 안학주 교정 오향란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1판발행 1985년 6월 20일
2판인쇄 1989년 10월 15일 2판발행 1989년 10월 25일

ㄱ—85405